전우치전

田禹治傳 · 경판 37장본

작자 미상 · 1847년 경판본

옛 한글 → 현대 한국어 윤문 · 2026-05-25

vLLM Gemma 4 26B-A4B + Claude Opus 4.7 검수

책 정보

원전

『전우치전(田禹治傳)』 경판 37장본 (1847년 간행, 경판본 중 최고본)

원작자

작자 미상. 19세기 방각본 고전소설

원전 출처

ko.wikisource.org · 옛 한글 원문 (퍼블릭 도메인)

현대화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1차 윤문 → Claude Opus 4.7 재검수

작업 방식

한문 번역이 아닌 옛 한글 → 현대 한국어 윤문. 아래아·옛 자모·고어 어휘를 현대 정서법으로 옮김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5

윤문 정책

- 아래아(ㆍ)·옛 자모·옛 표기를 현대 정서법으로 정규화
- 고어 어휘를 현대어로 풀어씀 (화설 → 한편, ᄒᆞ더라 → 했다)
- 인명·지명·관직 보존 (전우치, 화담, 고려, 송도)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지양,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AI 윤문의 한계상 옛 어휘의 동음이의 오역·어조 흔들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교주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교주본을 권합니다.

전우치전

한편, 고려 말에 남선부 땅에 한 명사가 있었으니, 성은 전(田)이요 이름은 숙이며 별호는 운화선생이었다. 대대로 공후(公侯)의 자손이었으나, 숙에 이르러서는 청운의 뜻이 없어 몸을 산림에 숨기고 글을 숭상하며, 때로는 벗을 모아 산천과 풍월을 두고 문답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산중처사(山中處士)라 불렀다.[1][2][3][4]

부인 최씨는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 출신으로, 얌전하고 정숙하며 미모와 덕을 두루 갖추었다. 부부가 서로 공경하고 화목하게 십여 년을 함께 살았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 적막함을 밤낮으로 탄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씨가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한 떼의 구름이 내려오더니, 그 구름 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푸른 연꽃을 손에 쥐고 나와 부인께 두 번 절하고 말했다.[5][6][7][8][9]

"소자(小子)는 영주산에서 약초를 캐던 선동(仙童)인데, 천상에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으로 내쳐지니 갈 곳을 모릅니다. 부인께서는 저를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10][11][12]

그러자 부인이 크게 기뻐하며 다시 물으려 하다가 문득 깨어나니, 심신이 황홀하였다. 이에 처사를 청하여 꿈 이야기를 들려주니, 처사가 다 듣고 말했다.[13][14][15]

"우리 팔자가 기박하여 자식 없이 늙을까 봐 슬퍼하며 지냈는데, 이제 부인의 꿈이 이와 같으니, 이는 반드시 하늘이 귀한 자식을 점지해 주시려는 뜻이다."[16]

그렇게 기뻐하며 지냈다. 과연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열 달이 차자, 어느 날 채색 구름이 집을 두르며 향기가 진동했다. 처사가 정당에 물을 뿌리고 쓸어 깨끗이 한 뒤 때를 기다렸다. 부인이 혼미한 가운데 눈을 들어 보니 전날 꿈에서 보았던 동자가 다가와 품에 안기는데, 부인이 반가운 중에도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이윽고 한 옥동자를 낳았다. 처사가 크게 기뻐하여 한편으로 부인을 보살피며 아이를 살펴보니, 용모가 화려하고 기골이 장대했다. 처사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17][18][19]

"이 아이는 꿈속에서 보이던 동자이니, 이름을 운치라 하고, 자는 몽중선이라 하며, 별호를 구십재라 한다."[20][21]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비할 데가 없었다.

우치가 점점 자라 일곱 살에 이르자, 처사가 글을 가르치니 총명하고 영민하여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았다. 처사가 우치를 지극히 사랑하며 가르쳐 열 살이 되었다. 슬프다! 흥이 다하면 슬픔이 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는 일이다. 처사가 갑자기 병을 얻어 온갖 약을 써도 효험이 없자, 부인을 불러 말했다.[22][23][24][25]

"내가 생각하건대 머지않아 황천객이 될 것이오. 아이가 장성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한스럽소. 부인은 부디 슬픔을 억누르고 나의 부탁을 저버리지 마시오. 운치를 잘 길러 영화를 누리게 하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백세토록 탈 없이 지내시오."[26)27)28)]

그러자 부인이 이 말을 듣고는 실성한 듯 눈물을 쏟으며 말을 잇지 못하더니, 며칠 후에 처사가 세상을 떠났다. 부인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통곡했고, 운치 또한 하늘처럼 끝없는 슬픔에 잠겨 자주 기절했다. 부인은 그 망극한 중에도 아들을 염려하여 지극히 위로했다. 운치는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상을 치르는 데 예법에 어긋남이 없어 초상을 극진히 치렀고, 선산에 아버지를 안장한 뒤 어머니를 모시고 삼년상을 지극한 효성으로 지내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탄복했다.[29)30)31)32)]

한편, 전처사(田處士)의 친한 벗 윤공이라는 사람은 문장이 넓고 해박하며, 만 리 앞을 내다보는 밝은 식견을 지녔다. 우치가 서책을 가지고 윤공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치가 일찍 일어나 서책을 들고 서당으로 가는 길이었다. 산 하나를 넘어가는데, 대나무가 무성한 곳에 한 여인이 소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앉아 울고 있었다. 우치는 보고도 못 본 체하고 지나가, 윤공에게 글을 배운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 그 처녀가 여전히 울고 있었다. 우치가 괴이하게 여겨 다가가 보니, 나이는 열대여섯쯤 되었고 용모는 옥 같아서 그 아리따운 자태가 남자의 마음을 흔들어 방탕하게 만들 정도였다. 우치가 다가가 위로하며 물었다.[33)34)35)36)37)38)]

"낭자는 어디에 살며, 무슨 일로 아침부터 한낮이 되도록 슬피 우는 것이오?"[39)]

그 여자가 울음을 그치고 부끄러움을 머금은 채 대답했다.[40]

"나는 이 산 아래에 사는데, 서러운 일이 있어 운다."

그는 즐겨 말하려 하지 않았는데, 우치가 그 곁으로 다가가 간절히 물으니 그 여자가 마지못해 말했다.[41]

“나는 맹 어사(孟御史)의 딸입니다. 다섯 살에 어머니를 잃고 계모가 들어온 뒤로, 그가 나를 아버지께 참소하여 죽이려 하므로, 밤낮으로 서러워 자결하려 해도 차마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42][43][44]

그러자 전우치가 그 사연을 듣고 몹시 가엾게 여겨 말했다.[45][46]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다 정해진 운명이 있으니, 낭자는 부모께서 물려주신 몸을 생각하여 살아남기를 도모하시오."[47][48]

그러고는 곧 고운 손을 잡았는데, 그 여인이 조금도 차갑게 굴거나 망설이는 기색이 없어 흔쾌히 몸을 섞으니 두 사람의 정이 흡족하게 어우러졌다. 한참 뒤 서로 헤어질 때 두세 번 거듭 못내 아쉬워하며 돌아갔다.[49][50]

이튿날 전우치가 윤공에게 나아갈 때, 그곳에 이르자 그 여자가 나와 불러 말했다.

"내가 벌써 이곳에 와서 공자를 기다린 지 오래되었다."

그러자 우치가 반기며 손을 잡고 즐기다가 말했다,[51][52]

"아직 이곳에 있어라."

그리고 서당으로 나아가니, 윤공이 말했다.

"네가 오는 길에 여색(女色)을 범하였으니, 글을 배운다 한들 천지의 조화를 통달하지는 못할 것이다. 네가 지금 돌아가면 그 여자를 만날 것이다. 그 여자가 입에 구슬을 머금고 있을 터이니, 그 구슬을 빼앗아 다가 나에게 보여라."[53][54][55]

그러자 우치는 명을 받고 그곳에 이르러 그 여자를 만나, 고운 손을 잡고 대숲 사이로 들어가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치가 보니 과연 여자의 입에 구슬이 있었다. 한 번 구경하게 해 달라고 청했으나 여자가 기꺼이 보여주지 않으니, 우치가 정색하며 말했다.[56][57][58][59]

"낭자도 규중의 처녀요 나도 아직 혼인 전이니, 서로 부모님께 고하고 원앙의 짝을 지어 백년해로하고자 하거늘, 낭자는 어찌하여 내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오?"

기녀는 그 말을 듣고 정을 이기지 못해 운치와 입을 맞대고 혀를 내밀어, 구슬을 굴려 운치의 입속에 넣어 주었다. 운치는 그 구슬을 받아 입에 머금고는 오래도록 돌려주지 않았다. 여자가 아무리 보채도 소용이 없자 운치의 입에서 떨어져 구슬을 도로 빼내려 했으나, 운치가 그대로 삼켜 버렸다. 여자는 구슬을 찾아도 없는 것을 보고 한마디 말도 못 한 채 목 놓아 크게 울며 들로 내려갔다. 운치는 머쓱하여 돌아와 윤공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아뢰니, 윤공이 말했다.[60][61][62]

"너는 이미 호정(狐精)을 먹었으니 천문지리에 통달하고, 지살(地煞)의 일흔두 가지 변화를 부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올해 사월에 진사(進士)에 오를 것이니, 이후의 일은 조심하여라."[63][64][65][66]

한편, 우치는 나이 열다섯에 이르러서는 문장이 이태백을 압도하고 필법은 왕희지와 견줄 만했으며, 호정을 먹은 뒤로는 삼십육 가지 변화술에 능통하게 되었다. 이때 나라에서 감시를 보였는데, 우치가 시험장에 들어가 글을 지어 바친 뒤 장원에 올랐다. 사흘 동안의 유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모친을 뵙자, 최 부인이 한편으로 기뻐하고 한편으로 슬퍼하며 말했다.[67][68][69][70]

“네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는 과거 보는 것을 즐기지 않으셨는데, 이제 네가 누리는 영화를 보니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71][72]

이럭저럭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 어느덧 이듬해 봄이 되었다. 전우치가 이름난 산과 큰 강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세금사라는 절에 이르러 보니, 천여 칸이나 되는 전각이 거미줄에 뒤덮여 있고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마음에 괴이하게 여겨 성림사로 내려오니 노승 네댓 명이 나와 맞이했다. 전우치가 세금사의 사연을 묻자 노승이 말했다.[73][74][75][76]

"세금사와 이 절의 승려가 천여 명이나 되었는데, 사오 년 사이에 두 절에 잇따라 재변이 닥쳐 승려들이 도저히 버텨내지 못하고, 더러는 뿔뿔이 흩어지고 더러는 간 곳도 없이 사라져, 세금사는 텅 비었고 이 절에도 늙은 중을 비롯해 사오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77][78][79][80]

그러자 우치가 말했다.

"이것은 틀림없이 요사한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것이로구나."[81]

전우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세금 문제의 사정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인이 말했다.

"다음에는 조심하라."

그리하여 이후로 전우치는 농사일에 힘쓰며 어머니를 봉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경덕의 처소에 가서 공부하고는 이듬해 과거를 보겠다고 아뢰니 부인이 말했다.[82][83]

"예전에 들으니 그 절에는 요사스러운 것들이 많아 사람을 해친다고 하던데, 어찌하여 그곳에 가려 하느냐?"[84]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니, 어찌 조그만 요물이 침범하겠습니까. 어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85][86]

그러고는 곧 행장을 챙겨 세금사로 가는데, 한곳에 이르니 층암절벽 위에 한 노인이 갈건야복 차림으로 청려장을 짚고 한가로이 서 있었다. 전우치가 다가가 예를 올리자 노인이 말했다.[87][88]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수고로이 다니는가?"[89]

"노인께서 이렇게 여기 계시니, 소자가 어찌 무심히 지나치겠습니까."[90][91]

“내가 그대에게 줄 것이 있어 이곳에서 기다린 지 오래되었네.”[92]

그리고 소매에서 부용승이라는 노끈과 부적 한 장을 꺼내 주며 말했다.[93][94][95]

"자연히 쓸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는 문득 사라지니, 운치는 공중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리고 끈과 부적을 챙겨 세금사로 들어갔다. 시동에게 명하여 방장을 깨끗이 쓸어 청소하게 하고, 성림사 스님에게 저녁밥을 시켜 먹은 뒤 촛불을 밝히고 글을 익혔다. 그러다 삼경쯤 되었을 때 문득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와 천연덕스럽게 곁에 앉았다. 운치가 눈을 들어 보니, 그 여자는 나이가 열네 살쯤 되었는데, 화려한 용모는 모란이 아침 이슬을 머금은 듯하고, 고운 자태는 수양버들이 봄바람을 이기지 못해 흔들리는 듯하여, 가히 사내대장부의 애간장을 녹일 만했다.[96][97][98][99]

운치는 신혼의 기쁨에 황홀해하며 말했다.

"낭자는 어디에 있기에 이 깊은 밤에 무슨 일로 왔느냐?"

"첩은 본디 사족(士族) 가문의 부녀로, 남편을 따라 장양 태수로 부임하러 가던 길에 도적을 만났습니다. 도적이 식솔을 모두 죽이고 행장마저 빼앗아, 저 홀로 목숨만 건져 달아났습니다. 낮이면 산속에 숨고 밤이면 길을 걸어 고향을 찾아가다가, 멀리서 창밖으로 비치는 촛불 그림자를 보고 그저 시골집인 줄로만 알고 찾아왔습니다. 남자가 글 읽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으나, 온몸이 너무 지친 탓에 체면도 돌보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바라건대 상공께서 이 가엾은 목숨을 구해 주신다면, 훗날 죽어서라도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100][101][102][103]

“사람의 화와 복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낭자가 사람을 보내 청한 덕분에 내가 이곳에 이르게 된 것 또한 다행한 일이거니와, 알 수가 없구나! 낭자가 사시는 귀한 댁은 어디이며, 나이는 얼마나 되느냐?”[104][105][106]

"제 집은 경성 남문 밖이고, 나이는 열일곱입니다."

"나와 동갑이오. 경성이 여기서 삼백여 리나 떨어져 있으니, 여자의 몸으로 어찌 거기까지 갈 수 있겠소? 내가 실로 염려하오."[107][108][109][110]

"상공께서는 첩의 딱한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룻밤 머물다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집안이 가난하여 지금까지 장가들지 못하고, 내년 봄 과거에 나아가 급제하면 혼인할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낭자를 만난 것 또한 연분입니다. 원컨대 두 집안이 혼인을 맺어 백 년을 함께 즐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11][112][113][114]

여인이 그 말을 다 듣고도 고운 눈썹을 숙인 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촛불 아래에서 더욱 빼어나게 아름다웠다.[115][116][117][118]

우치가 서안을 물리치고 말했다.[119]

"내가 우연히 한 마디 던진 말에 아가씨가 이토록 화를 내니 도리어 무안하지만, 아가씨는 깊이 생각하여 앞날을 그르치지 마시오."[120][121][122]

여자가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123]

"제 한 몸이 곤궁하고 절박하나 그래도 저는 사문(斯文)의 한 핏줄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찌 욕을 달게 받겠습니까마는, 상공의 말씀을 들으니 한없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훗날 제 원수를 갚아 주신다면, 그 분부를 어찌 받들어 따르지 않겠습니까."[124][125][126][127][128][129]

전우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들떠서 그와 가까이 사귀게 되었고, 이어 물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 마땅히 합환주를 나누며 천지에 맹세하자."[130][131]

그러고는 죽병의 술을 잔에 가득 부어 먼저 마신 뒤 다시 부어 권하니, 여자가 감히 거스르지 못하고 마셨다. 운치가 또 한 잔을 부어 권하자, 여자는 한사코 사양하였다.

"술을 한 잔쯤 마신들 무엇이 문제겠느냐."[132]

그러니 여인이 마지못해 마셨다. 우치가 다시 한 잔을 마시고 또 한 잔을 부어 권하자, 여인이 죽기로 사양했다.

"여자가 군자를 따르는 데에는 순종하는 것이 옳거늘, 어찌 이토록 무례하게 구느냐?"

여자가 생(生)의 기색을 살피고는 마지못해 술을 받아 마셨다. 잠시 후 정신이 혼미해져 자리에 거꾸러지더니 코를 골았다. 운치는 그제야 여자의 옷을 벗기고, 주필(朱筆)로 여우의 가슴에 진언(眞言)을 썼다. 그런데 글씨가 도무지 흔적을 남기지 않으니, 분명 여우임을 알아챘다. 곧 부용승(芙蓉繩)을 꺼내 손발을 동여매고, 송곳으로 정수리를 쑤시며 방망이로 두드렸다. 여자가 놀라 깨어나 크게 부르짖으며 말했다.[133][134][135][136][137]

"상공!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몹쓸 여우년아. 네가 이 절에서 죄악을 저질러 사람들의 목숨을 해치니, 내가 너를 죽여 인간 세상의 해악을 덜고자 여기서 기다린 지 오래다."[138][139][140]

그러면서 송곳으로 사방을 두루 찌르니, 그 요괴가 견디지 못하고 본래 모습을 드러내어 금빛 털이 돋고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가 되어 살려 달라고 빌었다. 전우치가 말했다.[141]

“나에게 호정(狐精) 하나를 주면 너를 살려주마.”[142][143]

"호정은 배 속에 있지만, 호정보다 더 나은 천서 세 권이 있으니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144][145]

한편, 우치는 본래 서생이라, 책 이야기를 듣고 반가워하며 말했다.

“그 책이 어디에 있느냐?”

"제 동굴에 있으니, 저를 풀어 놓아 주시면 가져오겠습니다."[146]

그러자 우치가 크게 노하여 송곳으로 여기저기 쑤시니, 요괴가 말했다.[147][148][149]

"발을 묶은 것을 풀어 놓으면 상공과 함께 가서 책을 드리겠습니다."[150][151]

운치는 그 말을 옳게 여겨 발걸음을 옮겨 따라 여우굴로 갔다. 큰 산에 장대한 바위가 있고 그 아래에 굴이 있었다. 그 안으로 오 리쯤 들어가니, 소나무와 대나무가 푸르게 우거지고 시냇물이 잔잔히 흐르는 곳에 수많은 집이 늘어서 있는데, 단청이 찬란했다.[152][153][154]

전우치가 여우를 앞세우고 들어가니, 집 안의 한 시녀가 나와 맞이하며 말했다.[155]

"아기씨가 오늘 사냥하러 가시더니 잡은 짐승을 가지고 오시니 맛있게 먹겠구나."[156][157][158]

그러고는 달려들자, 우치가 크게 노하여 잔요괴들을 낱낱이 쳐 죽이고 구미호를 송곳으로 쑤셔댔다. 구미호가 견디지 못하여 시녀에게 말했다.[159][160][161]

"너는 빨리 가서 성적함 속에 있는 책 세 권을 가져오너라."[162]

그러자 요괴가 급히 가져왔다. 우치가 받아 보니 하늘의 글이었다. 글자를 알아볼 길이 없어 구미호에게 글의 뜻을 가르치라고 하니, 구미호가 말했다.[163]

"손을 풀어 놓아 주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우치가 송곳으로 찌르며 방추를 들어 올리니, 구미호가 굴복하여 응했다. 우치는 묶은 노끈을 풀지 않은 채 말했다.[164][165][166]

“나 있는 절로 가자.”

그러고는 구미호를 데려 세금사로 와서 술을 마신 뒤, 구미호를 앉혀 놓고 천서(天書) 상권을 배워 하룻밤 사이에 모두 통달하니, 참으로 귀신도 헤아리지 못할 술법이었다. 그제야 우치가 여우를 묶어 놓은 것을 풀어 주고, 등에 붙은 부적을 떼어 천서 상권에 붙인 뒤 일러 말했다,[167][168][169][170][171]

"너를 죽여 후환을 없애려 했으나, 도리어 네 은혜를 입었기에 살려 보내노라. 앞으로 다시는 소란을 피우지 마라."

한편, 구미호는 사례하고 돌아갔다.

이윽고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 문이 열리며, 푸른 구름 속에서 누군가 외쳐 말했다.[172]

"구십재야, 내 부용승은 도로 찾아 가고 부적은 두고 가겠다."[173][174][175]

그러자 전우치가 급히 나가 보니, 푸른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전우치는 공중을 향해 사례하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한 선비가 나귀를 타고 들어와 섬돌 아래로 내리니, 그가 바로 윤공이었다. 전우치가 황망히 맞이하여 말을 나눌 때, 윤공이 말했다.[176]

"이 책은 선비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보느냐?"[177][178][179]

우치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윤공이 간데없이 사라졌다. 우치가 깜짝 놀라 살펴보니 천서 한 권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몹시 의심스러워하던 차에 문득 들으니 여인의 곡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다. 우치가 나가 보니 자기 유모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며 말했다.[180][181]

"어머님께서 어제는 평안하셨는데 하룻밤 사이에 돌아가셔서 초상이 났으니, 상공께서는 어서 가셔야 합니다."[182][183]

그러자 우치가 크게 놀라 급히 서책을 수습하는데, 잠깐 사이에 유모는 간 곳이 없고 또 천서(天書) 한 권도 사라지고 없었다. 우치가 크게 노하여 말했다.[184][185][186][187][188]

"흉악한 요물이 나를 업신여겨 이렇게 속이니, 내 이제 여우 굴로 가서 책을 찾고 요괴를 없애 버리겠다."[189][190]

그러고는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굴로 갔다. 산천이 깊고 험한 데다 길이 아득하여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되돌아오며 생각했다.

"이 요괴는 변화가 헤아릴 수 없으니, 이곳에 오래 머물게 둘 수 없다."

그렇게 서책을 챙겨 돌아왔는데, 상권은 부적을 붙여 둔 까닭에 앗아 가지 못한 것이었다.[191][192][193]

전우치는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고는 익히지 못할 술법이 없었다. 그러자 과거 공부에는 뜻이 사라져 스스로 생각하기를,[194][195]

'내가 벼슬을 해서 어머니를 봉양하려 한다면 자연히 늦어질 것이다.'

그러고는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 내어, 몸을 흔들어 선관(仙官)으로 변신하더니 오색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 곧장 궁궐 안으로 들어갔다. 대명전(大明殿) 한가운데에 떡 버티고 서니 상서로운 기운이 공중에 어렸다. 궁중이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는데, 조정 신하들이 임금께 아뢰었다.[196][197][198]

"예나 지금이나 보기 드문 괴이한 변고다."

한편 임금이 크게 놀라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고 계셨는데, 전우치가 구름과 안개 속에 서고 청의동자가 외쳐 말했다.[199][200]

"고려 국왕은 옥황상제의 명령을 들으라."[201]

그러자 왕이 명하여 자리를 깔고 향안을 차려 놓게 한 뒤 나아가 보니, 한 선관이 금관을 쓰고 붉은 도포를 입은 채 동자들을 좌우에 세우고 오색구름에 싸여 단정히 서 있었다. 왕이 절을 네 번 올린 후 땅에 엎드리니, 우치가 말했다.[202][203][204]

“천상 요지(瑤池)의 보배로운 누각이 세월이 오래되어 낡고 허물어졌기에, 이제 다시 수리하고자 인간 세상 여러 나라에 명을 전하여 모든 물건을 다 갖추어 바치게 했으나, 다만 황금 들보 하나가 없습니다.

상제께서 그대의 나라에 황금이 넉넉하다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 명을 내리시니, 칠월 칠일 오시(午時)에 들보를 올릴 것입니다. 그날에 맞춰 대령하되, 길이는 십 척 오 촌이요 너비는 삼 척 이 촌으로 하고, 만일 그날에 맞추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실 것입니다.”[205][206][207][208]

그렇게 말을 마치자 신선의 음악 소리가 은은하게 울리며 오색구름이 남쪽으로 향해 가니, 왕이 남쪽 하늘을 향해 네 번 절하시고 궁전에 오르시어 문무백관을 모아 의논하실 때, 좌우의 신하들이 아뢰었다.[209][210][211][212][213]

"팔도에 공문을 보내 금을 거두어 천명을 받드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214][215]

임금이 옳게 여기시어 즉시 팔도에 공문을 내려보내 금을 모으고 장인들을 불러 길이와 너비의 치수를 맞추어 기한에 맞춰 만들어 바치게 하셨다. 임금이 사흘 동안 재계하시고 기다리시더니, 이날 진시에 오색구름이 궁궐 안에 자욱하고 향내가 진동하며 선관이 엄연히 구름 속에 싸여 내려왔다. 양편에는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학을 타고 내려와 갈고리로 걸어 올리니, 채운에 싸여 남쪽 큰 하늘로 무지개가 뻗치고 오색구름이 각각 동서로 흩어졌다. 임금과 신하들이 향안 앞에 나아가 네 번 절하고, 선관은 전상에 올라 하례를 받으셨다.[216][217][218][219][220][221][222]

전우치는 임금을 속여 황금 들보를 얻었으나, 우리나라에는 금이 동나 귀했기에 금 들보를 사고파는 것이 매우 수상쩍은 일이었다. 그래서 문득 한 가지 계교를 생각해 내어, 들보의 끝부분을 베어 가지고 성 안

으로 들어가 팔려고 하였다. 마침 포도청 군졸이 이를 보고 의심하여 물었다.[223)224)225)]

“이 금은 어디서 났으며 값은 얼마나 하느냐?”

"이 금은 나온 곳이 따로 있지만, 값으로 치면 오백 금이오."[226)227)]

"그대 집이 어딘지 말해 주면 내가 내일 돈을 가지고 가겠소."[228)229)]

"제 집은 송악산 남쪽 마을이고, 이름은 전우치입니다."[230)]

한편, 포교가 서로 약속한 뒤 관가에 이 사연을 알리자 태수가 말했다.[231)232)]

"이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터이니, 이를 자세히 알아낸 뒤에 이놈을 사로잡겠다."[233)234)]

그러고는 우선 은자 오백 냥을 주며 사 오라고 했다. 포쾌가 즉시 남서부로 가서 전우치를 만나 은자를 주니, 전우치는 금을 주고 은자를 받았다. 포쾌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돌아와 태수에게 보고하니, 태수가 보고 크게 놀라며 말했다.[235)236)]

"이 금은 들보 머리에 있던 것이 분명하니, 우치를 잡아다가 진위를 가려 장계를 올리겠다."[237)238)]

그리고 장교 십여 명과 포교들을 보냈는데, 장교들이 남서부에 가서 전우치를 잡아내려 하자, 전우치가 음식을 내어 정성껏 대접하며 말했다.[239)]

“네가 수고스럽게 찾아왔으나 나는 가지 않겠다. 너희 태수의 힘으로는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다. 다만 왕명이 내린다면 그때는 잡혀가리라.”[240][241]

그러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니, 장교들이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돌아가 태수에게 이 사연을 아뢰었다. 태수가 크게 놀라 토병 오백 명을 풀어 전우치의 집을 에워싸고 잡으라 명령하는 한편, 이 사연을 장계로 올렸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백관을 모아 의논하시고, 의금부에 명을 내려 잡아들이라 하셨다.[242][243]

이때 운치는 은자를 얻어 음식을 마련해 어머니께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서 자신을 잡으라는 명령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 어떻게 대응할지 계책을 궁리하던 참이었다. 이때 금부도사와 포교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운치의 동정을 살펴 붙잡으려 했다. 운치는 먹던 것을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말했다.[244][245][246]

"어서 이 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자 부인이 병 속으로 들어가고 운치 또한 따라 들어갔다. 도사와 포교들이 괴이하게 여겨 우르르 달려들어 병의 주둥이를 단단히 틀어막아 들고 밤낮으로 달려오는데, 병 속에서 누군가가 외쳐 말했다.[247][248][249][250]

"내가 난을 피해 병 속에 들어갔거늘, 누가 병 주둥이를 막아 숨이 막혀 죽게 되었으니, 막은 것을 빼내라."[251][252]

그러자 도사가 두말없이 곧장 급히 달려 탑전에 이르러, 우치를 잡으려던 일의 자초지종을 아뢰니, 임금이 말했다.[253][254][255][256]

"전우치가 비록 요술을 부린다 한들, 어찌 병 속에 들어오겠는가?"[257]

이렇게 하자 전우치가 병 속에서 소리를 질러 말했다,

"답답하니 병마개를 빼 주십시오."[258]

그러자 임금은 그제야 우치가 병이 든 줄 아시고, 신하들에게 어떻게 처치할지 물으셨다. 여러 신하들이 아뢰었다.

"이놈의 요술이 헤아릴 수 없으니, 섣불리 하다가는 일을 그르칠까 합니다."[259][260]

임금이 전지를 내려 가마에 기름을 끓이고 그 안에 소용병을 넣으니, 병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261][262][263]

"신의 집이 가난하여 밤낮으로 떨며 지내왔는데, 오늘은 더운 곳에 들어와 몸을 녹이니 나라의 은혜가 그지없습니다."[264]

그러던 중, 아침부터 늦도록 끓여서 기름이 다 졸아들었다. 임금이 병을 깨뜨리라 하시니, 그 병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었으나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병 조각마다 달음질하여 임금 앞으로 나아오며 말했다.[265][266]

"소신 전우치,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크게 노하시어,[267][268]

"그 조각을 갈아서 기름에 끓여라."[269]

그렇게 하시고, 전우치의 집을 헐어 그 터에 못을 파라 명하시며 우치를 잡으려 하실 때, 대신이 아뢰었다.[270][271]

“이 요사스러운 도적을 잡을 수 없으니, 후환을 덜고자 하신다면 사대문에 방을 붙여 ‘우치가 스스로 나타나면 죄를 사하고 벼슬을 내리겠다’라고 하소서. 만일 우치가 스스로 나타나거든 중책을 맡기시고, 다시 잘못을 저지르거든 죽이는 것이 마땅할까 합니다.”[272][273][274]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사대문에 방을 붙였다.[275]

"전우치가 비록 나라에 죄를 지었으나, 그 재주를 아까워하여 특별히 죄를 용서하고 벼슬을 줄 것이니, 어서 빨리 스스로 나타나라."라고 했다.[276][277][278]

한편, 전우치가 어머니를 모시고 산속에 들어가 은신술을 쓰며 구름을 타고 사방을 마음대로 오가던 어느 날이었다. 한곳에 이르니 백발노인이 슬피 울고 있어, 전우치가 다가가 그 까닭을 물으니 노인이 말했다.[279][280]

"내가 일흔에 하나뿐인 자식을 두었는데, 그 아이가 억울하게 살인죄수가 되었으니 이렇게 서러워하는 것이오."[281][282]

운치가 그 애매한 사정을 자세히 물으니, 노인이 말했다.[283]

“우리 마을에 왕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인물이 고와서 내 자식이 그 여자와 몰래 정을 통하며 드나들었소. 그런데 그 여자가 음란하여 조가라는 자와도 몰래 정을 통하다가 왕가에게 들키고 말았소. 두 놈이 싸워 서로 구타하던 차에, 내 자식이 마침 그곳에 갔다가 싸움을 말리고 조가를 돌려보냈는데, 왕가가 즉시 죽고 말았소. 그러자 왕가의 사촌이 관가에 고발하여 살인 사건이 되었소. 조가는 양문기의 문객이라 연줄이 있어 빠져나가고, 내 자식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문서가 꾸며져 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으니, 이렇게 서러워하는 것이오.”[284][285][286]

"정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무사하게 해 주겠다."[287]

노인과 작별한 뒤, 몸을 흔들어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되어 양문기의 집으로 갔다. 마침 양문기가 사랑채에서 거울을 마주하고 얼굴을 비춰 보고 있었는데, 전우치가 또 모습을 바꾸어 왕개가 되어 그 곁에 서 있었다. 양문기가 괴이하게 여겨 거울을 거두고 돌아본즉 아무것도 없었다. 이에 생각하기를,

'백주에 요사스러운 것이 나를 희롱하니 참으로 괴이하구나.'[288]

그러고 다시 거울을 보니, 아까 보이던 사람이 서서 말했다.

"나는 이번에 조가(趙哥)의 손에 죽은 왕생(王生)이오. 상서가 잘못 알고 애꿎은 이가(李哥)를 가두고 조가를 풀어주었으니, 이제 만일 조가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소."[289][290][291][292]

그러고는 문득 간 곳 없이 사라졌다. 양문기가 깜짝 놀라 급히 자리를 차려 조가를 붙잡아 엄히 문초했다. 조가가 억울해하며 매를 치려는 즈음에 왕개가 들어와 큰 소리로 말했다.[293][294]

"이 음흉한 조가 놈아! 무슨 까닭으로 내 아내를 겁탈하고 또 나를 죽였느냐? 이는 나의 깊은 원수이거늘, 네 어찌 애매한 이가에게 죄를 돌려 씌우느냐?"[295][296][297]

그러고는 문득 간데없이 사라졌다. 조가는 놀라 당황하고 양문기 또한 놀라 조가를 엄한 형벌로 심문하니, 조가가 차마 견디지 못하고 낱낱이 자백했다. 그러자 즉시 이가를 풀어주고 조가에게 형을 집행했다.[298][299][300][301]

우치는 너를 구한 뒤 구름을 타고 가다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저잣거리에서 장인이 죄인의 목을 붙들고 다투고 있었다. 우치가 내려와 그 까닭을 물으니, 한 사람이 대답했다.[302][303]

"제두를 쓸 데가 있어 먼저 값을 정해 두었는데, 저 사람이 이것저것 자세히 따지고는 빼앗아 가려 하기에 다투는 것이다."[304][305][306]

우치가 관리를 속이려고 주문을 외우니, 그것들이 모두 입을 벌리고 관리를 물려고 달려들었다. 관리는 깜짝 놀라 달아났다.[307][308][309]

운치가 또 한 곳에 이르니 풍악이 요란하고 노랫소리가 구름처럼 자욱했다. 운치가 자리에 나아가 인사하고 말했다.[310]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형제들이 즐기는 모습을 구경하고 싶소."[311]

여러 선비들이 답례하고 서로 통성명을 한 뒤에, 우치가 눈을 들어 살펴보니, 기생 십여 명이 각각 악기를 들고 노래를 즐기는 곳에서 그 중 소생(蘇生)과 설생(薛生)이라 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하고 거만하게 굴었다. 우치가 냉소하며 여러 선비들과 술잔을 주고받았는데, 이윽고 술상이 나오자 우치가 말했다.[312][313][314]

"제가 형님의 사랑을 입어 진귀한 음식을 맛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315][316]

"우리가 비록 가난하기는 하나 이름난 기생과 진귀한 음식이 많으니, 형님은 처음 보시는 듯할 것입니다."[317][318]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아직 미비한 점이 많구나."

"이게 무엇이 부족하단 말이냐?"[319]

“우선 서늘한 수박도 없고, 새콤한 복숭아와 달콤한 포도도 없으니, 무엇이 갖춰져 있겠는가?”[320][321]

여러 서생들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322][323]

"형님은 참 무지하시군요. 지금은 봄철인데 이런 과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324]

한 곳에 온갖 열매가 열린 것을 보았다.[325][326][327]

"그러면 형님은 이제 아무개를 아십니까?"[328]

"만약 싸우게 되거든 큰 내기를 걸어라."[329][330]

그렇게 하고 동자(童子)를 데리고 한 동산에 가보니 나무에 복숭아가 달려 있어, 종자에게 나무에 올라가 따서 지게 하고, 그 아래에 포도가 가지에 드리워져 있어 또 따서 지게 하고, 들로 내려가니 수박이 넝쿨에 열려 있어 스무 개를 따서 지게 하고 돌아오니, 여러 사람이 크게 놀라 먹으며 매우 신기하게 여겼다.[331][332][333]

전우치는 흥취가 일어, 소생과 설생 두 사람을 속여 골려 주려고 두 사람을 향해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이윽고 두 사람이 말했다.[334][335]

"몸이 몹시 무겁고 마음이 몹시 어지러우니 참으로 괴이하구나."

“여러 형들이 방자하게 노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기생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듯하오.”[336][337]

"우리가 내시도 아닌데 어찌 창녀가 긴요치 않다고 하느냐?"[338][339][340]

"형님은 놀라지 말고 손을 바지 속에 넣어 만져 보시오."

그러자 설생(薛生)이 이 말을 듣고 손으로 만져 보다가 소생(蘇生)에게 말했다,[341][342]

"신랑이 간 데 없이 사라지고 자리가 판판하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343][344]

그러자 생이 꺼내 보이니 과연 아무것도 없었고, 소생도 자기 물건을 만져보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말했다.

“아까 전형(田兄)이 우리를 조롱하더니 과연 이런 변고가 생겼구나. 앞으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345]

또 창기 중 한 여자는 음문이 간데없이 사라지고 배 위에 구멍이 나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 가운데 은생이라 하는 자가 가장 총명하고 학식이 있었는데, 문득 이를 깨닫고 전우치에게 빌며 이렇게 말했다.[346][347][348]

"제가 눈이 어두워 형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형님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349][350]

"걱정하지 않으면 자연히 도로 나을 것이다."

제생과 그 여자가 기뻐하며 만져보니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이에 모두 치하하며 말했다.[351]

"신선께서 내려오신 줄도 모르고, 하마터면 병자가 될 뻔했습니다."[352][353]

전우치가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가다가 보니, 한곳에서 두세 사람이 의논하며 말했다.

"장 고직은 착하고 효행이 있는 사람이다. 만일 억울하게 죽으면 아깝고 참혹할 것이다."[354][355]

그렇게 탄식하자, 전우치가 내려와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그 기이한 사람이 대답했다.[356)357)]

"호조(戶曹)의 창고지기 장계창이라는 사람은 어질고 효성이 있으며 사람 구제하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자기가 문서를 잘못 작성한 탓에, 쓰지도 않은 은자 이천 냥을 변명하지 못하여 그 죄로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워 탄식하노라."[358)359)360)361)]

운치가 불쌍히 여겨 다시 구름을 타고 형을 집행하는 곳에 가서 기다리니, 과연 한 소년이 수레에 실려 오고 그 뒤에는 젊은 여자가 울며 따르고 있었다. 운치가 여러 사람에게 물으니 과연 장계창이었다. 운치가 동정을 살피는데, 옥졸이 죄인을 수레에서 내려놓고 형을 집행할 때를 외쳤다. 운치가 바람이 되어 장계창 부부를 거두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니, 감형관이 크게 놀라 이 일을 그대로 위에 보고하였다. 임금이 놀라시고 조정이 의혹에 빠졌다.[362)363)364)365)366)367)368)369)370)]

전우치는 집에 돌아와 장계창 부부를 내려놓고 약을 풀어 먹였다. 이윽고 두 사람이 깨어났으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전우치는 앞뒤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고, 어머니께 이 사연을 아뢰었다.

전우치 또한 구름을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했다.[371)]

“나는 한재경인데, 아버지 상을 당하고도 장사를 치를 수가 없고, 일흔 살 된 노모를 봉양할 길도 없어 서러워하고 있소.”[372)373)]

운치는 가엾게 여겨 소매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주며 말했다.

"이 족자를 집에 걸어 두고 '고직아!' 하고 불러서 대답하는 자가 있거든, 은자 백 냥을 내라고 하면 줄 것이다. 그 은자로 장사를 치르고, 또 매일 한 냥씩만 달라고 하여 노친을 봉양하되, 만일 그보다 더 내라고 하면 큰일이 날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374)375)376)377)]

그 사람은 반신반의하며 전우치의 거처와 이름을 묻고는 집으로 돌아와 족자를 펼쳐 보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큰 집 한 채가 그려져 있을 뿐이었으며, 그 집 앞에는 동자가 그려져 있고 열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 사람이 시험 삼아 "고직아!" 하고 부르니, 과연 그림 속에서 대답하며 나왔다.[378)379)380)]

그 사람이 놀라며 은자 백 냥을 드리라 하니, 동자가 은자 백 냥을 내어 앞에 놓았다. 재경이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날마다 고직을 불러 은자 한 냥씩 드리라 하여 그날그날의 비용을 대더니, 하루는 쓸 데가 있어 생각하기를,[381)382)383)384)385)]

"은자 백 냥을 빌려 쓴들 무슨 상관이 있겠소?"

그러고는 창고지기를 불러 말했다.[386)]

"쓸 데가 있으니 은자 백 냥을 먼저 꾸어 쓰려고 한다."

한편, 창고지기가 허락하지 않자, 재경이 두세 번 거듭 달래며 말하니, 창고지기는 대답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었다. 재경이 뒤따라 들어가 은자 백 냥을 가지고 나오려 하는데, 창고 문이 닫혀 있었다.

한편으로 놀라며 창고지기를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387][388][389]

재경이 크게 노하여 발로 문을 박찼다. 이때 호조판서가 좌기하여 공무를 보고 있는데, 창고지기가 아뢰었다.[390][391][392]

"그 가운데서 사람 소리가 나오니 몹시 괴이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는데, 호조 판서가 이를 듣고 괴이하게 여겨 하인들을 불러 모으고 문을 여니, 한 놈이 은자를 들고 서 있었다. 하인들이 크게 놀라며 물었다.[393]

“너는 어떤 도둑이기에 이곳에 들어왔느냐?”

"너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남의 집에 들어와 이렇게 구느냐?"[394]

그러자 하속들이 재경을 결박해 호조판서에게 끌고 가니, 호조판서가 재경을 섬돌 아래에 꿇리고 꾸짖었다. 재경이 그제야 살펴보니 계집이 아니라 곧 관가였다. 크게 놀라 말했다.[395][396][397]

“내가 어찌 이곳에 왔는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398]

그러면서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하자, 호조 판서가 말했다.[399]

"네가 창고 안에 들어와 은을 가져가려 한 죄는 죽어 마땅하나, 네 일당을 모두 아뢰어라."[400][401]

그러자 한개가 앞뒤 사정을 모두 고했다. 호 판서가 그 족자의 출처를 물으니, 한개가 전우치의 사연을 아뢰었다. 호 판서가 말했다.[402][403][404]

"전우치를 어느 때에 보았느냐?"

"떠나온 지 너덧 달이고, 그 집은 남선부라고 했습니다."[405][406]

한편, 호조판서가 이에 한가(韓哥)를 가두고, 이어서 창고를 점검해 보니 은자는 하나도 없고 청개구리만 가득하며, 또 다른 창고를 살펴보니 돈은 없고 누런 뱀이 가득 서려 있었다. 호조판서가 괴이하게 여겨 이 연유를 임금께 아뢰니, 임금이 크게 놀라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실 때, 각 창고를 맡은 관원들이 아뢰었다.[407][408][409][410]

"창고의 쌀이 변해서 벌레와 짐승이 되었습니다."[411]

라고 하며, 또 각 영문(營門)에서 아뢰기를,[412][413]

"창고 안의 군기는 모두 없어지고 나뭇가지만 쌓여 있습니다."[414]

그러자 차지내관이 아뢰었다,[415][416]

"바다 생물이 변하여 생선이 되었습니다."[417]

그러면서 궁녀가 아뢰었다.

"궁녀들의 족두리가 변하여 황금 까마귀가 되어 날아가고, 내전에는 큰 호랑이가 들어와 궁인을 해치고 있습니다."[418][419]

그러자 임금이 크게 놀라 궁노수(弓弩手)를 보내어 내전으로 들어가 보게 하니, 궁녀마다 큰 호랑이를 타고 있어 활과 쇠뇌를 쏘지 못하고 이 사연을 임금께 아뢰었다. 임금이 진노하여 궁녀들을 모두 쏘라 하시니, 궁노수가 들어가 일시에 쏘려 한즉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호랑이를 탄 궁녀들이 모두 구름에 싸여 하늘로 올라갔다. 임금이 말했다.[420][421][422]

"이것은 모두 전우치의 요술이니, 이놈을 잡아야 나라가 태평해질 것이다."

그렇게 하시더니, 호판이 아뢰었다.[423][424]

"가둔 도적이 또한 전우치의 한패이니, 급히 죽여 주십시오."[425][426]

그리하여 임금이 사형을 윤허하시어 한자경을 처형하려 할 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크게 일며 자경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니, 이는 전우치가 구한 것이었다.[427][428][429]

한편, 전우치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관청 문에 방이 붙은 것을 보고 차갑게 비웃으며 대궐 아래로 나아가 외쳤다.[430][431]

"소신 전우치가 뵙기를 청합니다."[432]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임금께 아뢰니, 임금께서 생각하시되,[433][434]

'이놈은 요술이 비상하여 곳곳에서 난동을 부리니, 차라리 벼슬을 주어 달래고 만일 다시 변을 일으키거든 죽이리라.'[435][436]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라 하시니, 우치가 들어와 엎드려 절하자, 임금이 말씀하셨다.[437][438]

"네가 죄상을 아느냐?"[439]

우치가 땅에 엎드려 사자에게 말했다.[440][441]

"신의 죄는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으니, 무슨 말씀을 아뢰겠습니까?"[442]

"네 재주를 아껴 죄를 용서하고 벼슬을 내리니, 너는 모름지기 충성을 다하라."[443][444][445]

임금이 그렇게 하시고 운치에게 선전관과 사복시 내승의 벼슬을 내리시니, 운치는 사은하고 물러나 거처를 정한 뒤 궐 안에서 입직했다. 선전관들이 운치를 몹시 보채며 차례로 퇴치기를 하자, 운치가 가만히 망주석을 뽑아다가 퇴 자리에 갖다 놓으니, 선전관들이 퇴를 잡은 손바닥이 마침내 아파서 도무지 치지 못했다. 그 뒤로는 퇴치기를 그쳤다.[446][447][448]

이럭저럭 몇 달이 지나자 선전관들이 하인에게 분부하여 허참례를 치르라고 재촉하니, 운치가 말했다.[449][450]

"내일 동틀 무렵에 백사정(白沙汀)으로 모두 모이게 하라."[451][452][453]

그러했다. 이튿날 모든 선전관이 준총을 타고 나아오며 살펴보니, 푸른 차일은 공중에 높이 솟았고 채색 포진은 좌우로 벌여 있는데, 맑은 풍악과 풍성하게 차린 음식이 더없이 번화했다.[454)455)456)457)]

여러 사람이 차례로 자리를 잡고 앉은 뒤 상을 들이고 잔을 돌려 술자리가 무르익자, 전우치가 말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이 모두 즐기는데, 변화 없는 놀이만으로는 도무지 흥이 나지 않으니, 바라건대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 어떻겠는가?”[458)459)460)]

여러 사람이 술에 취한 가운데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461)462)]

"전 도사에게 이런 호기가 있는 줄을 몰랐구나. 그대는 재주껏 해 보아라."[463)464)]

우치는 즉시 하인을 데리고 나서 다시 남문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말했다,[465)466)]

"전조사의 행실이 이토록 기특하니, 큰 도적이라도 충분히 감당하겠구나."[467)468)469)]

이렇게 칭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치가 수많은 여인을 몰아와 잔치 자리 밖에 두고 다시 큰 상을 들여와 즐기는데, 우치가 나아와 말했다.

"청말이 청중의 분부를 받아 계집들을 데려왔으니, 각각 하나씩 앞에 두어 흥을 돋우는 것이 어떠하냐?"[470)]

여러 사람이 모두 좋다고 하자, 우치가 먼저 한 여인을 불러 행수 앞에 앉히며 말했다.[471][472]

"너는 떠나지 말고 착실하게 수청하여라."[473]

그러고는 차례대로 하나씩 앉히니, 이들은 모두 선전관들의 아내였다. 선전관들은 서로의 아내를 알아보고 두려워하며 아무 말도 못 한 채 마음속으로 크게 분노하여, 문득 상을 물리고 각각 말을 끌어내어 타고 황급히 돌아가니, 하인들은 그 까닭을 모르고 모두 의아해했다.[474][475][476][477]

선전관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오니, 어떤 이는 급보를 전하러 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청심환을 구하러 약방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의원을 불러 사관을 놓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목 놓아 통곡하기도 하여, 집집마다 어쩔 줄 모르고 분주하였다. 선전관이 그 까닭을 물으니, 모두 부인이 세상을 떠난 일이었다.[478][479][480]

김선전이 집에 돌아오자, 계집종이 아뢰었다.[481][482]

"부인께서 아까 옷을 마르시다가 갑자기 별세하셨습니다."[483][484]

그러자 김선전이 크게 말했다.

"이 여자가 백사정의 허참 잔치에서 기생이 되어, 전가 놈과 한통속으로 결탁하고는 와서 가득 모인 좌중 앞에서 나에게 욕을 보이니, 어찌 사족 부녀의 행실이 이와 같단 말인가? 나는 벼슬도 하지 못하고 가문마저 망쳤으니, 이 통한을 어찌 다 헤아리겠는가?"[485][486][487][488]

그러고 있는데 문득 몸종이 급히 와서 아뢰었다.

"부인이 깨어난다!"

그러자 선전이 노여움을 그치고 급히 내당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489)][490)]

“제가 아까 잠깐 졸았는데, 붉은 도포를 입은 자가 다짜고짜 저를 잡아내고, 누런 옷을 입은 하인이 달려들어 장옷을 씌우고는 말에 태웠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 보니 저 같은 부인들이 수없이 많아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전선전이라는 놈이 저를 꼭뒤를 잡아 상공 앞에 앉히며 ‘착실히 수청을 들라’고 했습니다. 차례로 한 명씩 앉힌 뒤에 선전관들이 줄지어 앉아 상을 받았는데, 별안간 상공이 노한 기색을 띠고 일어나 말에 올라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안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노기가 잔뜩 올라 모두 흩어졌습니다. 저도 아까 그 계집들과 함께 휩쓸려 방황하다가 깨어 보니, 한바탕 봄꿈 같은 남가일몽이었습니다. 집안사람들이 저를 죽은 줄로 알고 큰 소리로 통곡하고 있으니, 이런 변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491)][492)][493)][494)][495)][496)]

그때 김선전이 이 말을 듣고 어처구니없어했고, 선전관들도 모두 분함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대역무도한 전우치 놈이 입조하여 우리에게 모욕을 주었으니, 어느 때에 이놈을 죽여 이 한을 풀겠는가?"[497)][498)]

전우치는 모든 선전관을 속이고 돌아와서 생각했다.[499)][500)]

'내 나라에서 죽을 죄를 면하고 도리어 벼슬을 받으니, 임금의 은혜가 그지없구나. 마땅히 잘못을 뉘우치고 착하게 돌아서 충성을 극진히 다하리라.'[501][502]

그리고 ○○○○하며 직무를 처리하고, 사복시의 말들을 단속하니 말이 살찌고 병이 없었다. 조정에서 이를 기특하게 여겼다.[503][504][505]

한편, 가달산에 염준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용맹이 남보다 뛰어나고 무예가 출중했다. 그는 강도 수천 명을 모아 산채를 이루고 마을을 노략질하며, 각 고을을 쳐서 무기와 곡식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니 각 고을이 소란스러웠다. 감사가 이 사정을 임금에게 장계로 보고하자, 임금이 크게 근심하며 여러 신하를 모아 의논하여 말했다.[506][507][508]

"도적이 이토록 강성하니, 누가 능히 이 도적을 소멸할 수 있겠는가?"

감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문득 한 사람이 반열에서 나서며 아뢰었다.[509]

"신이 임금의 은혜를 입음이 망극합니다. 비록 재주는 없으나 염준의 머리를 베어 전하의 근심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510][511]

그러자 임금이 살펴보니 이 사람은 전우치였다. 임금이 크게 기뻐하며 여러 신하에게 물었다.

"경들의 소견은 어떠한가?"

여러 신하가 모두 옳다고 아뢰니, 임금이 말했다.[512][513]

"군마를 얼마나 징발할까요?"

"적의 세력이 크다 하니, 제가 홀로 나아가 적의 형세를 정탐하고 대비한 뒤에 군사를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514][515][516]

임금께서 허락하시고 인검을 내려 마음대로 호령하라 하시니, 전우치가 사은하고 물러났다. 이튿날 아침 일찍 구름을 타고 남선부에 가서 모친을 뵙고, 왕명을 받들어 적의 형세를 탐지하러 간다는 사정을 아뢰니, 부인이 경계하여 말했다.[517][518]

"적의 형세와 허실을 모른 채 소홀히 쳐들어가면 몹시 위태로우니, 극진히 조심하여 임금과 부모의 바람을 저버리지 마라."[519][520][521]

그렇게 하니, 전우치가 명을 받고 서울로 돌아왔다. 날이 새자 포교 등 십여 명을 데리고 길을 떠나 감영에 이르렀다. 포교들을 그곳에 머물러 두고, 홀로 인검을 가지고 몸을 흔들어 수리로 변해 가달산으로 들어가 보니, 염준이 위엄 있게 일산을 받쳐 들고 백총마를 탔으며, 고운 옷에 붉은 치마를 입은 미녀들을 좌우에 세우고 종자 백여 명을 거느려 산행을 하고 있었다. 문득 염준이 분부하기를,[522][523][524][525][526]

“오늘은 각 도에 갔던 장수들이 돌아올 것이니, 내일 큰 소 열 마리를 잡고 잔치 차릴 준비를 하여라.”[527][528][529]

운치가 염준을 살펴보니, 체격이 장대하고 낯빛이 환하며 눈은 방울 같고 수염은 바늘을 묶어 세운 듯하니, 참으로 한 시대의 호걸이었다. 운치는 문득 한 가지 계책을 떠올리고는 나뭇잎을 훑어 신병(神兵)을 만들어 창과 검을 들리고 깃발을 벌여 진을 굳게 쳤다. 그러고는 머리

에 쌍봉 투구를 쓰고 몸에는 호금 전포를 입었으며, 인검을 들고 오추마를 타고서 마을 어귀를 깨치며 들어가 보니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운치가 진언을 외우자 성문이 절로 열렸다. 말을 몰아 들어가며 좌우를 살펴보니, 번듯한 집들이 두루 늘어서 있고 물색이 매우 번화했다.

운치는 사면을 둘러본 뒤 몸을 바꾸어 수리가 되어 후원으로 들어갔다. 염준은 황금 의자에 앉아 여러 장수를 좌우에 앉혔고, 그 뒤편 전각에서는 미녀 수백 명이 줄지어 앉아 잔을 받들고 있었다. 운치는 그 동정을 살펴보려고 진언을 외웠다. 그러자 수많은 수리가 하늘을 덮으며 내려와 사람들 앞에 놓인 상을 모조리 거두어 가지고 중천으로 떠올랐다. 동시에 광풍이 크게 일어 모래가 날리고 돌이 굴러다니니, 자리에 있던 이들이 크게 놀라 눈도 뜨지 못한 채 바람에 불려 쓰러졌고, 차일이며 ▣▣▣ 물건들이 모두 날아 공중으로 솟구쳤다. 염준은 넋이 나가 언덕의 나무 등걸을 붙든 채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모든 군사는 떡과 고기를 손에 든 채 바람에 휩쓸려 데굴데굴 구르며 더러는 똥물까지 토했다.

사시부터 오시까지 한바탕 소란이 이어지다가, 염준과 장졸들이 겨우 정신을 차려 보니 이번에는 흰 눈이 퍼붓듯 쏟아져 순식간에 십여 장이나 쌓였다. 눈을 뜰 수조차 없어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거리던 차에, 문득 바람이 멎으며 눈도 물도 한 점 남지 않았다.
530) 531) 532) 533) 534) 535)

염준이 대청에 나와 솔발을 흔들어 장졸을 모은 뒤, 괴이한 재변을 두고 서로 놀라워하고 있는데, 문득 문졸이 보고했다.[536) 537) 538)]

"한 장수가 군사를 몰아 동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539]

그러자 염준이 크게 놀라 군사들을 재촉하여 기세를 정비하고, 진영 앞에서 창을 꼬나잡고 말을 타고 나섰다. 전우치가 크게 외쳤다.[540][541]

"너는 대체 어떤 놈이기에 사나운 힘만 믿고 산속에 무리를 모아, 고을을 침범하고 백성을 죽이느냐? 너 같은 도적의 무리를 모조리 잡아들여 국법을 바로 세울 것이니, 네 목숨이 아깝거든 어서 항복하여 하늘의 명을 순순히 받들어라."[542][543][544]

염준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하늘의 뜻에 응하고 백성의 마음을 따라, 이제 무도한 임금을 없애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려 하거늘, 네 어찌 감히 나를 거스르느냐?”[545][546]

말을 마치며 달려 나가 두 장수가 칼과 창을 맞대고 싸워 수십여 합에 이르니, 염준의 창날은 햇빛을 가리고 운치의 칼빛은 허공에 무지개를 이루었다. 참으로 두 마리 매가 빈 산에서 먹이를 다투며 쌍룡이 푸른 바다에서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이었다. 두 장수의 정신이 점점 씩씩해져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날이 이미 저물자, 양쪽 진영이 징을 쳐 군사를 거두었다. 염준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여러 장수가 치하하며 말했다.[547][548][549]

“어제 괴이한 변고를 겪어 마음이 놀랐으나, 오늘 호랑이 같은 장수를 능히 대적하니 이는 하늘이 도우심입니다. 다만 적장의 용맹 또한

비할 데 없이 뛰어나니, 장군께서는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550][551]

그러자 연준이 웃으며 말했다.[552]

"적장이 비록 용맹하나 내가 어찌 그를 두려워하겠는가? 내일은 결단코 전우치를 사로잡고 곧장 도성으로 향하겠다."[553]

그러고는 다음 날 진문(陣門)을 열고 염준이 나와 크게 외쳤다.[554][555]

"전우치는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아라. 오늘은 ○○○ 승부를 결판내겠다."[556][557]

하며 좌우로 부딪쳐 싸우자, 운치가 크게 노하여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곧장 염준을 베려 했다. 삼십여 합에 이르도록 염준의 창법에는 털끝만 한 빈틈도 없었다. 운치가 속으로 생각하기를,[558][559][560][561]

"무예로는 염준을 당해낼 수 없다."

그리고 몸을 흔들어 참된 몸은 공중으로 솟구치게 하고, 가짜 몸은 염준과 맞서 싸우게 한 뒤 크게 소리쳐 말했다.[562][563]

"내 평생 살생을 하지 않았는데, 네가 이제 천명을 거역하니 내가 마지못해 너를 죽인다. 나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칼을 들어 염준을 치려다가 다시 생각했다.

'내가 살생을 어찌 함부로 하겠는가? 마땅히 이놈을 산 채로 사로잡으리라.'[564][565][566]

그러고는 공중으로 솟아올라 칼을 번쩍이며 다급히 외쳤다.

"내 재주를 보아라."

그러자 염준이 크게 놀라 하늘을 우러러보니, 한 떼의 구름 속에서 번개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은 번개가 아니라 운치의 칼빛이었다. 염준이 깜짝 놀라 낯빛이 하얗게 질려 적진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앞에서는 운치가 칼을 들어 길을 막고, 뒤에서는 또 운치가 뒤쫓으며, 좌우에서도 또 운치가 에워싸며 들어오고, 머리 위에서는 운치가 구름을 타고 칼춤을 추며 염준의 머리를 노렸다. 염준이 정신이 아득해져 말 아래로 떨어지자, 운치는 구름에서 내려와 가짜 운치를 시켜 군사를 호령하여 염준을 결박해 본진으로 보냈다. 그러고는 운치가 말을 달려 적진으로 쳐들어가 들이치니, 적진의 장수와 군졸들이 염준이 사로잡히는 것을 보고 손을 묶어 항복했다. 운치는 적진의 장졸을 섬돌 아래에 꿇리고 타이르며 말했다.[567][568][569][570]

"너희가 반역의 무리를 도와 천명에 맞섰으니, 그 죄는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그러나 내가 특별히 용서해 주니,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에 힘써 선량한 백성이 되어라."[571][572][573]

적의 장수들이 머리를 조아려 두 번 절하고 각각 흩어졌다. 그 모습은 마치 옛날 장자방이 계명산의 가을 달밤에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한 곡조를 슬피 불어, 강동의 젊은 병사들이 고향을 생각하며 뿔뿔이 흩어지던 것과 같았다.[574][575][576]

전우치가 염준의 내실로 들어가 미녀 수백 명을 모두 풀어 주어 각각 제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고는 각 진으로 돌아와 장대에 앉아 좌우에 명하여 염준을 대 아래에 꿇어앉히고, 사나운 목소리로 크게 꾸짖어 말했다.[577)578)579)580)]

“네 재주와 용맹이 있다면 마땅히 충성을 다해 임금을 섬겨, 영화로운 은총이 대대로 미치게 하는 것이 옳거늘, 감히 역심을 품어 나라를 소란케 하니, 그 죄를 어찌 용서하겠느냐?”[581)582)583)584)]

그러고는 무사에게 명하여 영문 밖에서 목을 베라고 하니, 염준이 슬피 빌며 말했다.[585)586)]

"소장의 죄상은 삼족을 멸하는 형벌이 마땅하오나, 장군께서 호생지덕을 베풀어 주신다면 마땅히 허물을 고치고 장군을 따르겠습니다."[587)588)589)]

"네가 진실로 개과천선(改過遷善)한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느냐?"[590)]

그러고는 무사들에게 명하여 묶인 것을 풀어 주고, 좋은 말로 위로하여 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런 뒤 조정에 돌아와 아뢰니, 임금이 그를 불러 만나 보시고 도적을 무찌른 전말을 물으셨다. 운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아뢰니, 임금이 끊임없이 칭찬하시고 상을 많이 내리셨다.[591)592)593)]

차설(且說). 우치가 경성에 돌아온 뒤로 조정 대신들이 모두 찾아와 우치를 보고 성공을 치하했으나, 오직 선전관만은 한 사람도 찾아와 보

는 이가 없었다. 이는 백사정에서 허참시를 욕보였던 일의 원한 때문이었다. 우치가 다시 한번 그들을 속이려 하던 차에, 하루는 사경 무렵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다. 우치는 오색구름을 타고 황건역사와 이매망량 등을 모두 불러 모은 뒤, 신장을 불러 분부했다.[594)595)596)597)]

"빨리 가서 모든 선전관을 잡아 오너라."[598)]

신장들이 명령을 받들고 가더니 이윽고 모두 잡아 왔다. 우치가 구름 교의에 앉고 좌우에 신장들을 늘어세우니 등불과 촛불이 휘황하게 빛났다. 우치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599)600)601)602)]

"황건역사(黃巾力士)는 어디 있느냐? 모든 죄인을 잡아들여라."[603)604)]

그러자 역사들이 일제히 명령을 받들고, 각각 하나씩 잡아들였다.[605)606)607)]

선전관들이 크게 놀라 땅에 엎드렸다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귀왕(鬼王)과 신장(神將)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어 그 위엄이 몹시 엄숙한데, 그곳에서 전우치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608)609)610)]

"내가 예전에 장난삼아 그대의 부인을 잠시 욕되게 한 적은 있으나, 어찌 그렇게까지 원한을 품고 나를 모질게 대하는 정도가 심하단 말이냐? 내가 진작 너희를 잡아다 지옥으로 보내고 싶었으나, 밤이면 천상의 벼슬에 매여 있고 낮이면 나랏일에 골몰하느라 지금까지 미뤄왔다.

이제는 마지못해 너희를 풍도옥에 보내 모진 고행을 겪게 하여, 사람을 업신여기던 죄를 갚게 하겠다."[611][612][613]

이렇게 말을 마치고 역사를 불러 말했다.[614]

"이 죄인을 압령하여 풍도옥에 가서 염라왕에게 넘기되, 이 죄인을 지옥에 가두어 팔만 겁을 지나거든 업축으로 만들어 내보내라."[615][616][617][618]

그러자 모든 선전관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더욱 떨리며 혼백이 몸에 붙어 있지 못할 지경이었다. 슬피 빌며 말했다.[619]

"저희가 어리석어 죄를 지었으니, 부디 같은 동료라는 정을 생각하시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620][621]

그러자 우치가 한참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너희를 풍도(酆都)로 보내 고행을 겪게 해야 마땅하나, 지난날의 안면(顔面)을 생각해 아직은 처분을 한껏 늦추어 두겠다. 앞으로 하는 것을 보아 처리하겠다."[622][623][624][625]

그러자 모든 선전관이 문득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 온몸에 땀이 흘러 이불과 베개가 젖었고 정신이 아득했다. 그 후 모든 선전관이 관청에 모여 그날 꾼 꿈 이야기를 하니 하나같이 한 입에서 나온 듯 똑같았다. 이때부터 전우치를 대접하는 것이 각별히 극진했다.[626][627][628][629]

한편, 어느 날 임금이 호조판서에게 물었다.[630][631]

"지난번에 호조의 은과 돈이 모두 변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어떠하냐?"[632]

"예전과 그대로 그저 있습니다."

한편 임금이 몹시 근심하자, 전우치가 반열에서 나서며 아뢰었다.[633]

"바라옵건대 제가 각처의 창고를 직접 다니며 재해와 변고를 자세히 살펴 알아내어, 폐하께 아뢰고자 하옵니다."[634][635]

임금이 윤허하시니, 전우치는 즉시 호조판서와 함께 호조로 나아가 창고 문을 열고 살펴보았다. 은이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있자, 호조판서가 크게 놀라 말했다.[636][637][638]

“내가 어제 창고를 조사할 때는 청개구리만 있더니, 밤사이에 도로 은으로 변했으니 참으로 괴이하구나.”[639][640][641]

그러고 나서 외고(外庫)를 열어 보니 또한 다 예전 그대로였고, 각 군영(營門)의 병기도 다 여전하니, 모두들 놀라며 신기하게 여겼다. 운치가 살펴본 뒤 임금 앞에 그대로 아뢰자, 임금께서 기뻐하시며 운치가 요술로 변괴를 일으킨 것임을 짐작하셨다.[642][643][644][645]

이때 간의대부가 아뢰었다.[646][647]

"호서(湖西) 땅에서 사오인이 무리 지어 모여 역모를 의논한다 하여, 고발한 자가 문서를 가지고 신(臣)에게 왔기에, 고발한 자를 가두어 두고 아뢰옵니다."[648][649][650]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과인이 덕이 부족하여 도적이 벌 떼처럼 일어나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651)652)

이렇게 하시고 의금부와 포청에 잡아오라 명하시니, 즉시 잡아왔다. 임금이 직접 문초하시는데, 그중 한 놈이 아뢰었다.653)654)

"전우치를 임금으로 삼아 백성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이제 일이 발각되었으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655)656)

한편, 차사(差使) 운치는 문사낭청(問事郎廳)으로 시위(侍衛)에 서 있다가 뜻밖에 역적의 진술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말했다.657)658)

"전우치가 끝내 반역을 꾀할 줄 알았더니, 이제 죄인의 진술에 그 이름이 드러났구나."659)660)

그러고는 빨리 전우치를 잡아 내려 형틀을 차리게 하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661)662)

"내가 예전에 네 재주를 높이 사서 벼슬을 주었거늘, 나라의 은혜에 감복하기는커녕 이제 역률을 범하였으니, 변명하지 말고 죽으라."663)664)665)

하시며, 나졸을 엄하게 꾸짖으시니,666)

"단매에 쳐죽여라!"667)

그렇게 하라 하시니, 나졸이 힘을 다해 치려 했으나 팔이 아파 매를 들지 못했다. 우치가 아뢰었다,[668][669]

"저의 앞뒤 죄상은 만 번 죽어도 마땅하오나, 오늘 이 역모의 죄만큼은 천만번 억울하옵니다."[670][671]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는 필시 나를 모해하려는 자가 있어 이렇게 된 것이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는가?"[672][673]

그리고 다시 아뢰었다.

"소신이 이제 죽으면 평생 배운 재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소신의 소원을 풀어 주시옵소서."[674][675]

그러자 임금이 헤아려 생각하시기를,[676]

"이놈의 재주가 매우 기이하니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그렇게 하시고, 임금께서 명을 내려 말씀하셨다.

"네게 무슨 재주가 있느냐?"[677]

“제가 그림을 잘 그려서, 나무를 그리면 점점 자라나고, 짐승을 그리면 걸어 다니며, 산을 그리면 산에서 초목이 살아나기에 세상에서 명화라 일컫습니다. 이 그림을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원혼이 되고 말 것입니다.”[678][679][680]

임금이 생각하셨다.

"이놈이 죽어 원혼이 되면 괴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는 즉시 묶은 것을 풀어 놓고 붓과 먹, 종이를 주었다. 전우치가 붓을 들어 산수화를 그리는데, 첩첩이 쌓인 골짜기와 봉우리에 만 길 높이의 폭포가 산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리게 하고, 시냇가에는 버들가지가 늘어지게 그렸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안장을 얹은 나귀를 그린 뒤에 붓을 내던지고 임금에게 절을 올리니, 임금이 말했다.[681][682]

"너는 죽을 죄인이거늘, 사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683]

"소인이 이제 임금님 곁을 하직하고 산중으로 들어가겠습니다."[684]

그렇게 하고 나귀 등에 올라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문득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말했다.

"내가 이놈에게 또 속았으니, 이를 장차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렇게 명하시고, 좌우 신하들에게 그림을 불태우게 하시며, 그 죄인들을 다시 엄하게 심문해 자백을 받은 뒤에 끌어내어 목을 베라고 하셨다. 그리고 전우치에게 속은 것을 못내 분하고 한스럽게 여기시어 각도에 공문을 내려보내시되, 전우치를 잡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천금의 상과 벼슬을 내리겠다고 하셨다.[685][686][687]

한편, 전우치는 요술을 부려 임금을 속이고 죽을 고비를 벗어난 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그간의 사연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688]

"이후로는 몸을 숨기고 다시는 조정에 나아가지 마라. 네가 임금을 속였으니 그 죄는 천지간에 용납될 수 없다. 네가 죽은 뒤에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뵈려 하느냐?"689)690)

어머니가 한바탕 크게 꾸짖으니, 운치는 어머니의 훈계를 들은 뒤로 산속에 머물며 조용히 글공부에 힘썼다. 더러는 나귀를 타고 경치를 구경하기도 했는데, 한 곳에 이르러 보니 젊은 중이 고운 여인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윽고 그 여인이 나무에 올라가 스스로 목을 매려 하는 것이었다. 운치가 마침 마을 집에서 술을 사 먹고 산 위로 올라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급히 달려가 매인 것을 풀고 손발을 주물러 살려 낸 뒤 까닭을 묻자, 그 여인이 말했다.691)692)693)

"방금 지나간 화상은 제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친하게 지내던 중놈입니다. 저는 일찍 과부가 되어 수절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 중놈이 찾아와 저를 달래며 이르기를 '제 절에 가서 재를 올립시다' 하고 함께 가자고 간청하기에, 저는 그 말을 믿어 의심치 않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음흉한 마음을 품고 이곳에 와서는 저를 겁탈하여 절개를 더럽혔으니, 살아도 쓸데없는 몸이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694)695)696)697)698)

운치는 그 여자를 위로하여 자기 집으로 보내고 다시 산에 올라갔다.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고, 어제 보았던 그 중놈이 거기 있었다. 운치가 가만히 진언을 외워 기운을 내어 부니 그 중이 변하여 전우치의 모습이 되었다. 운치는 그 절에 그를 그대로 두고 동정을 살폈다.

마침 포도청 기찰 포교가 왔다가 그 중놈을 보고 전우치인 줄로만 여겨 태수에게 급히 고했다. 태수는 크게 기뻐하며 군사를 풀어 그 중놈을 잡아 결박하여 서울로 올려보냈다. 임금이 즉시 친국을 베푸시니, 승정원이 아뢰었다.[699][700][701][702][703][704]

“각 도와 각 읍에서 전우치를 잡아들인 자가 삼백예순한 명이나 되니, 이는 반드시 전우치의 요술인가 합니다.” 임금이 크게 노하였으나 어찌 처치해야 할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던 차에, 도승지 왕연희가 아뢰었다.[705][706][707][708]

"전우치의 환술이 헤아릴 수 없으니, 이번에도 놓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와 가짜를 가리지 말고 모두 베어 주십시오."[709][710][711]

그러자 임금이 옳게 여겨 십자각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고, 잡혀온 전우치들을 모두 끌어내어 차례로 베려 하는데, 그중 하나가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712][713][714]

"저는 전우치가 아니라 도승지 왕연희입니다."[715]

그러자 임금이 보시니 분명 왕연희였다. 좌우 신하들에게 물으시니, 신하들이 대답했다.[716]

"이는 전우치입니다."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요사스러운 것이 이처럼 난을 일으키니, 종묘사직을 어찌 보전하겠는가? 역적 하나를 죽이려다가 죄 없는 조정 신하들과 애꿎은 백성들을 많이 죽이게 되겠구나.”[717][718][719][720]

그렇게 하시고 친국(親鞫)을 끝내셨다. 전우치는 구름 속에서 요술을 부려 몸을 변하게 하여 왕연희로 둔갑한 뒤 궐문으로 나왔다. 하인들이 사람과 말을 대령하고 있다가 그를 모시고 왕연희의 집으로 돌아갔고, 우치는 곧장 내당으로 들어가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인과 집안사람들은 그가 가짜인 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때 진짜 왕공이 궐 안에서 나와 하인을 찾으니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괴이하게 여겨 동료 관리의 사람과 말을 빌려 타고 집으로 돌아오니, 하인들이 문 앞에 있었다. 왕공이 한편으로 크게 노하며 까닭을 물으니, 하인들이 말했다,[721][722][723][724][725]

"저희가 아까 상공을 모셔 왔는데, 또 어찌 상공이 계시겠습니까?"[726][727]

그러면서 서로 얼굴만 마주 보았다. 왕공이 괴이하게 여겨 안채로 들어가니, 시중드는 계집종들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방금 우리 상공께서 나와 계셨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728]

그러면서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왕공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침실로 들어갔는데, 과연 또 다른 왕공 하나가 부인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진짜 왕공이 크게 노하여 호통쳐 말했다.[729][730]

"너는 대체 어떤 놈이기에 감히 사부의 집에 들어와 내 부인과 말을 주고받느냐?"

그러고는 노복을 호령하여,

"빨리 결박해라."

"너는 어디서 굴러온 놈이기에 내 얼굴로 둔갑하여 내 집에 들어와 내 부인을 겁탈하려 하느냐? 이런 변괴가 어디 있단 말이냐!"[731][732]

그러고는 하인에게 호령하여,

"빨리 몰아 내쳐라."

한편 하인들이 이 광경을 보니 가히 까마귀의 암수를 누가 가려낼 수 있으랴 할 지경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러자 전우치가 도리어 호령하며 말했다.[733]

“내가 예전에 들으니, 요물은 사람의 모습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더군.”[734][735]

그리고 왕공을 향해 물을 뿜고 주사(朱砂)를 꺼내 바르니, 왕공이 변하여 구미호가 되었다. 그제야 노복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쳐 죽이려 하자, 전우치가 말렸다.[736]

"이 일은 큰 변고이니 나라에 알려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우선 단단히 묶어 방 안에 가두고 잘 지켜라."[737][738]

그러자 종들이 명령을 받들어 왕공을 동여 가두었다. 왕공이 뜻밖의 변을 당해 말을 하려 하면 여우 소리가 나고 정신이 아득해져, 그저 눈물만 흘리며 누워 있으니, 가히 겉모습은 짐승이요 속은 사람이라 할 만했다. 우치가 생각했다.[739][740][741][742]

'사나흘만 더 지체하면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고 사경에 왕공을 찾아가 만나서 말했다.[743][744]

"네가 나와 원수진 일도 없으면서 굳이 나를 죽여 나라에 공을 세우려 하니, 내가 먼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고자 했다. 하지만 내가 평생 살생을 하지 않기로 하였기에 너를 용서하니, 너는 모름지기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745][746][747]

그리고 주문을 외우니 다시 왕연희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왕공은 그제야 전우치의 요술로 그렇게 된 줄 알고 몹시 겁에 질려 말했다.

"하늘 같은 높은 재주를 모르고 그릇되이 죄를 범했습니다."[748]

그렇게 말하고 수없이 거듭 사례하자, 전우치가 다시 당부하며 말했다.[749]

"그대를 구하고 가니, 내가 돌아간 뒤에 집안이 소란스러워질 것이다. 이러이러하게 하여라."[750]

그렇게 하고 남선부로 갔다. 왕공이 즉시 노복을 불러 말했다.

“그 요괴를 자세히 보아라.”

하인들이 방에 가서 보니 요괴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모두 놀라 그대로 아뢰자, 왕공이 두 노복에게 말했다.[751]

"너희가 지키기를 잘못하여 잃어버렸구나."

그러고는 한없이 꾸짖어 물리쳤다.

운치가 다시 그 암자에 가 보니, 그 화상이 그대로 운치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운치가 그 화상을 향해 물을 뿜고 진언을 외우니, 도로 본래의 모습이 되었다. 운치가 크게 꾸짖어 말했다.[752)][753)]

"너는 중이 되어 불도를 숭상해야 할 몸이거늘, 수절하는 여인을 꾀어내어 겁박하고 그 정절을 더럽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그 죄는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벼울 것이다. 그래서 너를 전우치의 얼굴로 둔갑시켜 그로 오인되어 죽게 하려 하였으나, 차마 살생을 하지 못하여 너를 살려 돌려보내고 다시 네 본래 모습을 돌려주는 것이니, 이후로는 다시 그런 행실을 하지 말라."[754)][755)][756)]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한 곳에 이르러 보니, 여러 소년이 족자를 들고 서로 다투어 보며 칭찬하며 말했다.[757)][758)]

"이 부채 그림은 천하의 명화다."[759)]

그때 운치가 앞으로 나아가 보니 꽃처럼 아름다운 미인이었다. 그 미인이 아이를 안고 어르며 노는 모습이 입으로 말하는 듯 눈으로 보는 듯하여 생기가 살아 움직였다. 이에 운치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고 웃으며 말했다.

"이 그림이 뭐가 그리 대단한 명화라고, 그대들이 어찌 이토록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이오?"

그중 오생이라는 자가 대답했다.

"그대는 눈이 높아 그렇게 말하지만, 물정을 모르는 소리는 하지 말게. 이 그림이 말을 하는 듯 사람을 바라보는 듯하니, 어찌 명화가 아니겠는가?"[760][761]

전우치가 웃으며 값을 묻자, 오생이 대답했다.

"은자 오십 냥이니, 그림 값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셈이다."[762][763]

그러자 운치가 말했다,

"내게 족자 하나가 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아라."

그리고 소매 안에서 미인도를 꺼내 펼쳐 놓으니, 그 미인이 매우 아름다운데, 몸에는 녹색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화관을 썼으니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빼어난 미모요, 둘도 없는 미인이었다. 여러 사람이 보고 칭찬하며 말했다.[764][765]

"이 그림도 생김새가 온전하여 우리 친족과 비슷하구나."[766]

그러자 전우치가 냉소하며 말했다,[767]

"그대의 솜씨도 훌륭하다고 하겠으나, 생김새는 이 솜씨만 못하니 이 화격을 보아라."[768]

그러고는 족자를 걸며 가만히 불러 말했다.[769]

"주선낭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문득 그 미인이 대답하며 동자를 데리고 나왔다. 전우치가 말했다.[770][771]

“모든 공자께 술을 부어 드려라.”

선낭이 대답하고 잔에 술을 부어 올리니, 우치가 먼저 마시고 차례로 여러 사람이 받아 마셨는데 술맛이 더없이 달고 시원했다. 여러 사람이 술잔을 다 비운 뒤에 선낭이 술상을 거두어 그림이 되어 그림 속으로 들어가니, 여러 사람이 크게 놀라 서로 말했다.[772][773][774][775]

"이 그림은 하늘의 조화로 그려진 것도 아니요, 꿈속의 장난도 아니니, 만고에 보기 드문 보물이다."

그러더니 오생이 말했다.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러고 나서 우치에게 청했다.

"우리가 술이 부족하니, 바라건대 내가 주선낭(酒仙娘)을 불러 술을 더 청해 볼까?"[776][777]

우치가 허락하자, 오생이 가만히 주선낭을 불러 말했다.[778][779]

"술이 모자라니 더 먹기를 청하오."[780]

그러자 문득 주선낭이 대답하고 술병을 들었으며, 동자는 상을 들고 의젓하게 나와 병을 기울여 술을 부어 올렸다. 오생이 먼저 마시고 여러 서생들이 차례로 한 잔씩 마신 뒤, 일어나 사례하며 말했다.[781][782]

"오늘 어르신을 만나 좋은 술을 마시고 신기한 일까지 보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로다."[783]

"이 족자 그림이 비록 살아 있는 듯하나 쓸데없고, 또 그림에게 술을 먹인들 무슨 사례가 있겠느냐?"

"족자를 쓸 데가 없거든 내게 팔고 가는 것이 어떻겠소?"[784]

"꼭 가질 사람이 있다면 팔고 싶소."

오생이 값을 묻자, 전우치가 말했다.[785][786]

"이 술병을 가지고 다니는 이는 천상의 주선랑(酒仙郎)이요. 술이 평생 마르지 않으니 더없이 귀한 보배라. 그런 까닭에 은자 천 냥을 받고자 하노라."[787][788]

"값이 많든 적든 따지지 마시고, 형님은 내 집으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소?"[789]

전우치가 허락하고 함께 오생의 집으로 가서 족자를 주며 말했다.

"내가 내일 올 것이니 값을 마련해 두어라."[790]

그러고는 가버렸다. 오생(吳生)이 크게 취한 채 족자를 외당 벽에 걸고 보니, 주선낭이 술병을 들고 서 있었다. 오생은 그 고운 자태를 흠모하여 고운 손을 잡아 무릎 위에 앉히고는,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잠자리로 나아가려 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는 곳으로 누군가 급히 달려 들어왔으니, 다름 아닌 오생의 아내 민씨였다. 원래 민씨는 투

기에는 선봉이요 시샘에는 대장이라, 남의 일을 보고도 칼을 들고 내닫는 성미였다. 이날 밤 오생이 희롱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노하여 선낭을 치려 했으나, 선낭은 어느새 그림 속 화상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민씨가 더욱 분노하여 족자를 잡아 뜯어 찢어 버리니, 오생이 크게 놀라 말했다.[791][792][793][794][795][796]

"남의 족자를 사려고 은자 천 냥에 약속을 해 놓았는데, 임자가 오면 어쩌겠소."[797][798][799]

"임자가 오면 내가 마땅히 꾸짖어 욕보여 주겠다."[800][801]

서로 다투기를 그치지 않았다. 마침 전우치가 오자 오생이 그를 맞이해 그 사연을 이야기했다. 우치는 그 말을 듣고 민씨를 속이려고 민씨에게 금사망을 씌웠다. 그러자 민씨는 속은 사람 그대로였으나 몸은 큰 구렁이가 되었다. 말을 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고, 일어나려 해도 몸을 움직일 길이 없었다. 우치가 오생에게 말했다.[802][803]

"그대를 위하여 족자를 두고 갔더니, 이제 그 보배를 잃어버렸으니 그대를 만난 것이 불행한 일이 되었구나. 그대의 집에 큰 변이 생길 것이니 조심하라."[804][805]

"무슨 변괴인가?"

"그대의 집에 천 년 묵은 짐승이 있어, 늘 그대의 부인으로 둔갑하여 변괴를 일으킬 것이다."[806]

"무슨 일로 요사스러운 재앙이 변고를 일으키는가?"[807]

"그대의 부인이 내 족자를 찢었으니, 그것이 요사스러운 괴물이 되어 난동을 부릴 것이오. 그대는 방문을 열고 보시오."808)809)810)

오생이 믿기지 않아 방문을 열고 보니, 과연 민씨는 간데없고 길이가 석 자쯤 되는 낡은 망태기만 놓여 있었다. 오생이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하여 밖으로 나와 운치에게 말했다.811)812)

"과연 아무개와 견줄 만한 자가 있으니 죽이고 싶구나."813)814)

“그 요괴는 천 년 묵은 정령이라 만일 죽이면 큰 화가 일어날 것이니, 내가 부적 한 장을 대망의 허리에 매어 두면 오늘 밤 저절로 스러질 것이다.”815)816)817)

그러고는 부적을 꺼내어 대망의 허리에 매고 당부하기를,818)819)

“문을 열어 보지 말거라.”

그러고는 돌아가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오생(吳生)의 집에 가서 민씨를 보고 꾸짖어 말했다.820)821)

“네가 남편을 업신여겨 포악을 일삼고 투기를 일삼으며, 심지어 남의 족자를 찢고 나를 욕했다. 그 죄로 금사망을 씌워 돌구멍에 넣고 고초를 겪게 하려 한다. 이제라도 허물을 고친다면 금사망을 벗겨 주겠다.”822)823)824)

그렇게 하니 민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치가 진언을 외니 금사망이 저절로 벗겨졌다. 민씨는 황송하여 일어나 백번 절하며 고마워했다.825)826)827)

우치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예전에 함께 공부하던 양봉안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보니, 병이 들어 누워 있었다. 우치가 놀라 병세를 자세히 묻자, 양생이 말했다.[828]

"가슴과 배가 아프고 음식을 끊은 지 오래되어, 다시 살아나지 못할까 두렵구나."[829][830]

전우치가 진맥하고 말했다.[831]

"이 병은 사람을 생각하다 생긴 병이니, 누구를 통해야 이 병이 낫겠느냐?"

“과연 그렇구나. 다름이 아니라 남문 안 해현동에 사는 정씨라는 여인은 나라를 기울게 할 만한 미인인데, 일찍 과부가 된 사람이다. 우리 삼촌 집과 이웃해 있어서 담 사이로 우연히 본 뒤로 사모하는 마음이 날로 간절해져 병세가 이러하니, 결국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할까 싶구나.”[832][833][834][835]

"말솜씨 좋은 매파를 보내 혼담을 넣어 보아라."

“그 여자의 절행이 워낙 남다르니, 일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욕만 당할까 걱정이다.”[836][837][838]

"그러면 제가 형님을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님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그 여자는 데려오지 못할 테니, 부질없이 마음에 두지 마세요."[839]

"형님은 염려 마십시오."

그러고는 구름을 타고 떠나갔다.

차설. 정씨는 일찍 과부가 되어 밤낮으로 슬퍼하며 죽고 싶어 했으나, 위로는 노모가 계시고 달리 형제도 없는 터라 모녀가 서로 의지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정씨가 심란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 방 안을 서성이고 있는데, 문득 구름 속에서 한 선관이 붉은 도포에 옥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금관을 썼으며, 손에는 옥홀을 쥐고 맑고 낭랑한 목소리로 불러 말했다.[840][841][842][843]

"주인 정씨는 나와서 옥황상제의 분부를 들으라."[844][845]

그러자 정씨가 그 말을 듣고 어머니께 아뢰니, 그 어머니가 놀라며 괴이하게 여겨 급히 대청 위에 향안을 차려 놓고 정씨와 함께 뜰로 내려가 엎드리자, 전우치가 말했다.[846]

"문선낭아! 인간 세상의 재미가 어떠하냐? 이제 천상의 요지반도연(瑤池蟠桃宴)에 참석하여라."[847][848][849]

그러자 정씨가 옥책(玉冊)을 듣고 크게 놀라 말했다.[850][851][852]

"저는 인간 세상의 더러운 몸이고, 또한 죄인입니다. 어찌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문선낭은 인간 세상의 더러운 물을 마셔 천상의 일을 잊었구나."[853][854]

그러고는 호리병에 향기로운 술을 가득 부어 동자를 시켜 정씨에게 권했다. 정씨가 받아 마시자 정신이 아득해지며 인사불성이 되었다. 우치는 곧 정씨를 구름에 싸서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그 어머니는 공중을 향해 수없이 절하며 치하했다.[855)856)857)858)]

이때 강님 도령이 모든 거지를 모아 저잣거리를 다니며 양식을 구걸하고 있었다. 그런데 홀연 향내가 코를 찌르며 오색구름이 동남쪽으로 흘러갔다. 강님 도령이 위를 치켜보고 손을 들어 한 번 구름을 가리키니, 구름 문이 절로 열리며 선관과 고운 여인이 땅으로 떨어졌다. 이 사람이 바로 전우치였다. 우치가 정씨 여인을 데리고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가는데, 문득 검은 기운이 공중에 솟구치며 법술이 절로 풀려 땅으로 떨어졌다. 우치가 크게 놀라 좌우를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괴이하게 여겨 다시 술법을 행하려 하는데, 문득 한 거지 아이가 나와 마주 대고 꾸짖으며 말했다.[859)860)861)862)863)864)]

"보잘것없는 필부 전우치는 들어라. 너는 요술을 배워 하늘을 속이고 정절 굳은 부인의 절개를 꺾으려 하니, 어찌 밝은 하늘이 무심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너 같은 놈을 죽이라 하셨으니, 나를 원망하지 마라."[865)866)867)]

운치가 크게 노하여 차고 있던 칼을 빼어 위협하려 하자, 그 칼이 변하여 흰 뱀이 되어 도리어 운치를 해치려 했다. 운치가 의심스러워 피하려 하다가 문득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급히 몸을 바꾸는 변신술을 부리려 했으나 법술이 통하지 않았다. 운치가 크게 놀라 살펴보니, 그 아이의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도술이 높은 줄을 알아차리고 몸을 굽혀 빌며 말했다.[868)869)870)871)]

"소생이 눈은 있으나 눈동자가 없어 선생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 죄가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만 집에 노모가 계시고 형편이 가난하여 봉양할 길이 없어 부득이 임금을 속인 것이요, 두 번째는 제 목숨을 도모한 것이요, 이제 정씨의 절행을 해치려 한 것은 병든 벗을 살리려 함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선생께서는 제 죄를 용서하시고 선도를 가르쳐 주십시오."[872][873][874][875][876]

"그대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벌써 알고 있었다.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그대 같은 요술이 어지럽게 변란을 일으키니, 마땅히 그대를 죽일 것이로되 그대의 늙은 어머니 사정을 생각하여 아직 살려 두는 것이다. 이제 빨리 정씨(鄭氏)를 데려다가 제 집에 두고 두 집안은 좋은 계책으로 살려내되, 정씨를 대신할 사람이 있으니,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로이 의지할 데 없어 몹시 가난하지만 마음이 어질고 성(姓)이 정씨요, 나이 또한 스물넷이다. 그대가 만일 내 말을 어기면 몸에 큰 화가 미칠 것이다."[877][878][879][880]

"선생의 높으신 함자를 알고 싶습니다."[881]

"나는 강림도령이니, 세상을 희롱하려고 두루 돌아다닌다네."[882]

그리고 요술을 부리는 법을 다시 거두어들였다. 우치는 곧 정 씨를 데리고 정 씨의 집으로 가서, 공중에서 그 어머니를 불러 외쳤다.[883][884]

"아까 옥경(玉京)에 올라가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선낭이 아직 죄를 다 치르지 못하였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어 고행을 더

겪게 한 후에 데려오라.' 하셨다. 그래서 도로 데려왔으니, 부디 선한 마음을 닦게 하라."[885][886][887]

그러면서 향약을 꺼내 정씨의 입에 흘려 넣으니, 얼마 후 정씨가 깨어나 정신을 차렸다.[888]

한편, 전우치가 다시 강림도령에게 가서 그 여자가 사는 곳을 물으니, 강림도령이 환영단을 주며 그 집을 가르쳐 주었다. 전우치가 하직하고 그 집을 찾아가 보니, 한 칸짜리 초가집이 다 허물어진 곳에 한 여자가 시름에 잠겨 홀로 앉아 있었다. 전우치가 다가가 그 여자를 달래며 말했다.[889][890][891]

"낭자의 외로운 처지는 내가 이미 알고 있소. 낭자가 스물한 살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지내는 모습이 참으로 가엾구려. 내가 낭자를 위해 중매를 서고자 하오."[892][893]

낭자가 부끄러워 머리를 숙이자, 운치가 곧이어 환영단을 먹이고 물을 뿜으며 진언을 외니, 틀림없는 정가녀의 얼굴이 되었다. 운치는 정씨에게 양생이 병든 사연과 정녀를 데려오던 일을 일러 주며 "이리이리 하라"고 시킨 뒤, 보자기를 쓰워 구름을 타고 양생의 집으로 갔다. 그 여자를 외당에 두고 내실로 들어가 양생을 보고 말했다.[894][895][896]

"과연 정녀의 절개가 높아서 감히 말도 붙여 보지 못하고 그저 왔습니다."[897]

양생이 서글피 탄식하며 말했다.

"형의 재주로도 일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찌 다시 살아날 마음이나 먹겠소?"[898]

그러자 우치가 온갖 말로 달래기도 하고 수없이 조롱하기도 하다가 말했다,[899][900]

“내가 이번에 정녀는 데려오지 못했으나, 정녀보다 열 배는 더 고운 미인을 얻어 왔노라.”

"내가 미인을 많이 보았지만 정녀 같은 인물은 없으니, 형은 부디 농담일랑 마시오."

"내가 어찌 병든 사람과 농담을 하겠느냐? 지금 외당에 두고 왔으니, 이는 경성지색이다. 나가서 보면 알 것이다."[901][902]

양생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 외당으로 나가 보았다. 과연 한 미인이 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뚜렷한 얼굴은 가을 하늘의 밝은 달 같고, 또렷한 눈동자는 샛별 같아서 천 가지 자태와 만 가지 고움을 어디에도 견줄 데가 없었다. 양생이 한 번 보니 이는 자나 깨나 그리워하던 정씨 여인이었다. 양생은 정신이 황홀하여 취한 듯 미친 듯, 반갑고 즐거운 마음을 차마 이기지 못했고, 이후로 병세가 점점 나아갔다.[903][904][905]

한편, 운치는 호주를 만나고자 예물을 갖추어 가지고 호주로 떠났다. 이때 서화담이 시동에게 분부하기를,[906][907][908]

"오늘 오시에 전생이라는 사람이 올 것이니 초당을 깨끗이 치워라."[909][910]

그러더니 이때 우치가 산문에 다다라 천천히 걸으며 두루 구경하니, 소나무와 대나무는 푸르게 우거지고 산골 시냇물은 잔잔히 흐르는데, 사슴은 벗을 찾아 거닐고 백학은 춤을 추며 노닐었다. 이곳은 참으로 별천지요 인간 세상이 아니었다. 대숲 사이로 사립문에 다가가 두드리니, 동자가 나와 물었다.[911][912][913][914]

"선생이 바로 그 전공(田公)이 아니십니까?"[915]

"동자야, 어찌 나를 아느냐?"[916]

"아침에 선생께서 이르셨기에 압니다."[917]

우치가 크게 기뻐하며 동자를 시켜 폐백을 받들어 올리게 하고 뵙기를 청하니, 화담이 즉시 초당으로 청하여 손님과 주인의 예를 갖추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치가 말했다.[918][919]

"소생이 선생님의 높으신 이름을 우레처럼 듣고 천 리를 멀다 않고 찾아왔으니, 선생님께서 부디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공이 나를 떠보려고 왔구나. 내게 무슨 도학이 있다고 이토록 지나치게 칭찬하시는가? 내 듣기로 그대의 법술이 높아 따를 자가 없다 하기에 한번 보기를 원했는데, 이제 만나게 되니 평생의 큰 행운이오."[920][921][922]

운치가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온종일 이야기를 나누었다. 화담이 여종에게 명하여 술과 안주를 재촉하고, 또 칼을 빼어 벽 위에 꽂으니 신선의 술이 술독으로 흘러내려 잠깐 사이에 한 항아리가 가득 찼다. 즉시 칼을 뽑고 나서 보니, 북쪽 벽에 걸린 족자 그림의 빛나는 채색이 뚜렷했다. 사창을 열고 보자 그림 속 고운 옷을 입은 선녀가 술상을 갖추어 들고 나와 운치 앞에 놓고 잔을 받들어 술을 권했다. 운치가 받아 마시니 매우 향기로웠다. 운치가 화담에게 감탄하며 말했다.[923)924)925)926)927)]

"소생이 선경에 이르러 경장옥액과 진수미찬을 맛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928)929)]

"그대가 어찌 박주(薄酒)를 ○○○ 일컫는가?"[930)931)932)]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문득 한 선생이 갈건에 베옷 차림으로 들어와 말했다.[933)934)]

"왼쪽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남선부에 있는 전공이다.”

그리고 전우치를 향해 말했다.

"이 사람은 나의 아우 용담인데, 그대와는 일면식도 없던 터라 손님을 대하는 도리를 그르쳤으니, 그대는 부디 용서하시오."[935)936)937)]

우치가 눈을 들어 용담을 보니, 눈매가 맑고 빼어나며 골격이 헌칠하여 위풍이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 이윽고 용담이 우치에게 인사하며 말했다.[938]

"선생의 높은 술법을 들은 지 오래인데 오늘에야 서로 만나게 되니 천만번 늦었습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선생의 도술을 한번 구경하고 싶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도술을 부릴 수 있겠는가?"[939]

용담이 두세 번 거듭 청하자, 운치는 한번 시험해 보려고 즉시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용담이 쓰고 있던 관이 변하여 뿔이 세 발이나 되는 소머리가 되더니, 자리 위로 떨어져 눈을 찡그리고 입을 벌렸다. 용담이 자기 관이 소머리로 변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즉시 주문을 외우자, 이번에는 운치가 쓰고 있던 갓이 변하여 돼지머리가 되더니 바위 위로 내려가 엄니를 드러내고 귀를 늘어뜨린 채 기어 다녔다. 운치가 속으로 생각하기를,[940][941][942][943]

'저 사람의 재주가 비상하니 한번 겨뤄 볼 만하다.'[944]

그러고는 제두(猪頭)를 향해 진언을 외우니 돼지의 머리가 변하여 세 갈래 장창이 되었다. 용담도 우두(牛頭)를 향해 진언을 외우니 소머리가 변하여 큰 칼이 되어, 장창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 한데 어우러져 싸우니 창과 검이 햇빛에 번쩍였다. 용담이 또 부채를 던지며 진언을 외우니 칼과 부채가 변하여 적룡과 청룡이 되고, 전우치가 쥐고 있던 선추(扇墜)를 던지자 창과 선추가 변하여 백룡과 흑룡이 되어 네 용이 한데 어우러져 싸웠다.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벼락이 진동하여 좀처

럼 승부가 나지 않더니, 청룡과 적룡이 점점 기운을 잃어 갔다. 화담이 생각하되,[945][946][947][948][949]

'두 사람이 재주를 겨루다가는 결국 좋지 못할 것이다.'[950][951]

그러고는 연적을 위로 치뜨리니, 문득 그것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변하더니 도로 본래의 모습이 되었다. 운치가 먼저 갓을 집어 쓰고 선추를 거둔 뒤에 부드럽게 말을 건넸으나, 용담은 부채와 관을 선뜻 거두려 하지 않았다. 운치가 작별하며 말했다.[952][953][954][955]

"오늘 제가 외람되게 재주를 겨루어 선생님의 높은 …… 그 죄가 매우 크니, 훗날 사죄하겠습니다."[956][957][958]

그러고는 돌아가니, 화담이 운치를 보내고 용담을 꾸짖으며 말했다.[959][960]

“너는 청룡(青龍)과 적룡(赤龍)을 내세우고 운치는 백룡(白龍)과 흑룡(黑龍)을 내세우니, 청은 목(木)이요 적은 화(火)며 백은 금(金)이요 흑은 수(水)다. 오행으로 따지면 금이 목을 이기고 물이 불을 이기는 법이다. 그러니 네가 어찌 운치를 이기겠으며, 하물며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부질없이 다투어 해치려 하느냐?”[961][962][963]

용담이 사죄는 하나, 마음속으로는 몹시 노하여 해칠 뜻을 품고 있었다.[964][965]

그 후 사흘 만에 전우치가 화담을 찾아뵈었더니, 화담이 말했다.[966]

"내가 그대에게 청할 일이 있으니, 기꺼이 따르겠는가?"[967][968]

"무슨 일이십니까?"

“남해 가운데에 큰 산이 있으니, 이름을 화산(華山)이라 한다. 그 산속에 도인이 있는데, 도호(道號)는 운수선생이다. 내가 그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그 선생이 여러 번 글월을 보내왔으되 내가 지금까지 회답하지 못하였다. 이제 그대를 만났으니, 그대가 다녀올 수 있겠느냐?”[969][970][971][972]

전우치가 흔쾌히 허락하자, 화담이 말했다.[973][974]

"내 생각에 화산은 바다 가운데 있으니, 쉽게 다녀오지 못할까 한다."[975]

"소생이 비록 재주가 없으나 순식간에 다녀오겠습니다."[976]

화담이 끝내 믿지 않자, 전우치는 속으로 '화담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인가' 싶어 말했다.[977][978][979]

"제가 만약 순식간에 다녀오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다시는 산문(山門)을 나서지 않겠습니다."[980]

"정말 그렇다면 가겠지만, 행여 실수가 있을까 걱정되는구나."

그러고는 즉시 글을 써서 주니, 운치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변신하여 해동청 보라매가 되어 공중으로 날아올라 바다 가운데를 향해 갔다. 가면서 바라보니 난데없는 그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운치가 그 너머로 가려고 하면 그물이 오르는 대로 높아져 앞을 가로막으니, 운치가 솟구쳐 떠올라 아무리 그물을 넘으려 해도 그물이 점점 따라 높아져 하

늘에 닿았고, 아래 벼리는 물속에 잠겨 있었다. 또 좌우로 높이 떠가려 했으나 그물이 하늘 끝까지 닿아 있어 화산에 갈 수가 없었다. 십여 일을 죽기로 작정하고 애를 쓰다가 어쩔 수 없이 돌아와 화담을 보고 바다에서 고생하던 사연을 이야기하니, 화담이 말했다.[981)982)983)984)]

"그대가 큰소리를 치고 …(원문 결락)… 출산문(出山門) 하는 것이 어떠한가?"[985)986)]

우치가 무안하여 달아나려 하자, 화담이 이를 알아채고 몸을 바꾸어 삵이 되어 달려들었다. 우치가 일이 급해지자 몸을 변하여 보라매가 되어 날아가려 하니, 화담도 또한 청사자(靑獅子)가 되어 ◯◯를 물어 메다꽂고는 크게 꾸짖어 말했다.[987)988)989)990)991)]

"너 같은 요사스러운 술법은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히며 못된 장난이 끝이 없으니, 어찌 죽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992)993)]

"선생의 높으심을 미처 모르고 존엄하신 자리를 범하였으니 그 죄가 만 번 죽어 마땅하오나, 소생에게 늙은 어머니가 계시오니 원컨대 선생께서는 남은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994)995)996)997)]

"내 이번에는 너를 살려 주겠지만, 다시는 그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 말고, 그대의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는 나와 함께 영주산에 들어가 신선의 도를 닦는 것이 어떠하냐?"[998)999)1000)]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직한 뒤 집으로 돌아와, 요술을 부리지 않고 어머니를 봉양했다.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 운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운치는 예를 갖추어 어머니를 선산에 모시고 삼 년 동안 정성껏 받들었다. 하루는 화담이 찾아오자, 운치가 황망히 나가 맞이했다.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뒤 화담이 말했다.[1001)1002)1003)1004)]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어서 그대가 재상이 된 것을 알고 왔네.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함에 가두고 그 굴을 불지르는 것이 어떻겠는가?"[1005)1006)]

"이제 선생께서 이 여우를 없애 주신다면 참으로 온 나라의 큰 다행일까 합니다."[1007)1008)]

"내가 이제 이 ◯◯를 데려가려 하니, 행장을 꾸려라."[1009)1010)]

우치가 대답하며 가산을 흩어 노복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말했다,[1011)1012)]

"나는 이제 영영 이별하니, 너희는 무탈하게 지내며 나의 조상 제사를 받들어라."[1013)1014)1015)]

그렇게 선영에 하직한 뒤, 화담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했는데, 그 뒤의 일은 알 수 없다.[1016)1017)1018)]

주석

옛 한글 원문을 현대어로 옮기며 한자어를 복원하거나 뜻을 바로잡은 곳, 설명이 필요한 어휘를 모았다.

1. '시인'은 詩人이 아니라 時人(그때 사람들·당시 사람들)으로, 글 짓는 시인이 아님.
2. '쳐ᄉᆡ'는 處士(처사)로, 벼슬하지 않고 산림에 숨어 사는 선비를 가리킴.
3. '공후'는 公侯로, 높은 벼슬과 작위를 가진 귀족 가문을 뜻함.
4. '청운의 뜻'은 靑雲之志로, 벼슬에 올라 출세하려는 마음을 가리킴.
5. '잠영거족(簪纓巨族)'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명문가를 뜻한다.
6. '슬하가 적막함'은 슬하(膝下)에 자식이 없어 외롭다는 뜻이다. 초벌의 '홀로 지내며'는 오역이다.
7. 원문은 '천상으로조차(천상으로부터) 한 떼 구름이 내려오며'로, 초벌의 '조상이 찾아오더니'는 오역이다.
8. '청의동자(靑衣童子)'는 푸른 옷을 입은 동자, '벽련화(碧蓮花)'는 푸른 연꽃을 가리킨다.
9. '재배(再拜)'는 두 번 절하는 것이다.
10. '득죄'는 得罪(죄를 지음)로, 초벌의 '하늘의 뜻을 받들어'는 오역이다. 이 인물은 천상에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난 것이다.
11. '션동'은 仙童(선동), 곧 신선 곁에서 심부름하며 약초를 캐던 아이로, 초벌의 '신선'과는 다르다.
12. '영쥬산'은 瀛洲山(영주산)으로,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蓬萊·方丈·瀛洲) 중 하나다.

13. '청파'는 聽罷로 '말을 다 듣고 나서'라는 뜻이며, 인물의 이름이 아니다.

14. '대희(大喜)'는 크게 기뻐했다는 뜻으로, 초벌의 '크게 놀라'는 오역이다.

15. '처사(處士)'는 벼슬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 '몽사(夢事)'는 꿈에 있었던 일을 뜻한다.

16. '무후(無後)'는 대를 이을 자손이 없음을 뜻한다.

17. '채운'은 彩雲(채색 구름)으로, 귀인의 탄생을 알리는 상서로운 조짐을 뜻한다.

18. '쇄소'는 灑掃(물을 뿌리고 비로 쓸어 청소함)로, 단순히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나 경사를 맞기 위해 집안을 정갈히 함을 뜻한다.

19. 초벌의 '아이가 옥동을 낳았다'는 오역이다. 원문 '부인이 … 일쳑 옥동을 나흔지라'는 부인이 옥동자(玉童, 옥같이 귀한 사내아이) 하나를 낳았다는 뜻이다.

20. '몽중선'은 夢中仙(꿈속의 신선)으로, 아이를 꿈에서 본 일과 이어지는 작명이다.

21. '자(字)'는 본이름 외에 부르던 별칭이고, '별호(別號)'는 그와 별도로 지은 호이다.

22. '쳐시'는 處士(처사)로, 벼슬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를 가리킨다.

23. '문일지십'은 聞一知十으로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뜻이며, 매우 총명함을 이르는 말이다.

24. '과이'는 過愛(과애), 곧 '지나치게(몹시) 사랑함'이다. 초벌의 '기뻐하며'는 오역이다.

25. '흥진비릐'는 興盡悲來로,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찾아온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26. '황천객(黃泉客)'은 황천으로 가는 나그네, 곧 죽은 사람을 뜻한다. '불구(不久)'는 '머지않아'.

27. '조선 향화'의 '조선'은 나라 이름 朝鮮이 아니라 '조상(祖先)'이며, '향화(香火)'는 제사를 뜻한다. 따라서 '조상의 제사를 받든다'는 의미. 초벌의 '조선의 향기'는 오역.

28. '무양(無恙)'은 '탈·병이 없음', '백세(百歲)'는 백 살까지 오래 사는 것을 가리킨다.

29. '기세'는 棄世(세상을 버림), 곧 별세·사망을 뜻한다. 초벌이 '겨우 정신을 차렸다'로 옮긴 것은 오역이며, 처사가 죽은 것이다.

30. '호텬 망극'은 昊天罔極으로 부모를 여읜 끝없는 슬픔을 가리키는 말이다. 초벌의 '임금의 은혜'(망극)는 오역이다.

31. '벽용'은 擗踊으로, 부모상에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슬퍼하는 행동을 뜻한다.

32. '집상'은 執喪(상을 치름)이며, 초벌의 '집안을 돌보는 솜씨'는 오역이다. '삼상'은 三喪, 곧 삼년상을 가리킨다.

33. '듁님이 무셩ᄒᆞᆫ 곳'은 竹林(죽림)이 茂盛(무성)한 곳, 즉 대나무 숲이 우거진 곳이다. 초벌의 '무서운 곳'은 오역.

34. '쇼복'은 素服(소복)으로, 흰 상복 또는 흰옷차림을 뜻한다.

35. '시이불견(視而不見)'은 보고도 못 본 척한다는 뜻이다.

36. '삼오이팔(三五二八)'에서 三五는 15, 二八은 16으로, 나이가 열대여섯 살임을 가리킨다. 초벌의 '열다섯에서 열여덟'은 부정확.

37. '명견만리(明見萬里)'는 만 리 밖의 일까지 내다볼 만큼 식견이 밝고 멀리 본다는 뜻이다.

38. '처사(處士)'는 벼슬하지 않고 학문에 힘쓰며 지내는 선비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39. '일즁'은 日中(한낮, 정오 무렵)으로, '지금까지'가 아니라 '한낮이 되도록'의 뜻임.

40. '붓그러믈 머금고'는 '부끄러움을 머금고'로, 초벌의 '입술을 깨물며'는 오역.

41. '강잉'은 強仍(억지로 참고 마지못해 함)으로, 울먹인다는 뜻이 아님.

42. '오셰'는 五歲(다섯 살)로, 어머니를 여읜 나이를 가리킨다. 초벌의 '오랫동안'은 오역.

43. '계뫼'는 繼母(계모)이며, 화자를 아버지께 참소(讒訴, 거짓으로 헐뜯어 일러바침)한 주체다. 초벌은 계모의 존재를 누락함.

44. '맹어ᄉᆞ'는 孟御史로, '어사(御史)'는 관직명이며 성이 맹씨다.

45. 'ᄎᆞ언'은 此言(이 말, 앞서 한 사연)으로 옮김.

46. '긍측히'는 矜惻(가엾고 측은하게)의 뜻으로, 마음에 든다는 의미가 아님.

47. '사생이 유명하니'는 死生有命(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 있다)으로, 초벌의 '명망이 높으니'는 오역.

48. '부모유체'는 父母遺體, 곧 부모가 물려준 몸(자기 자신)을 뜻함.

49. '옥슈'는 玉手(옥 같은 손)로 여인의 고운 손을 가리킨다.

50. '견권(繾綣)'은 정이 깊어 서로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모양을 뜻한다.

51. '운치'는 분위기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주인공 전우치를 가리킨다.

52. '숀'은 손(手)으로, 술잔이 아니다.

53. '녀색'은 女色(여색)으로, 여자와의 색정을 뜻한다. 초벌의 '도둑'은 오역.

54. '먹음어슬 거시니'는 '머금었을 것이니'로, 입에 물고 있다는 뜻이다. 초벌의 '먹어라(먹어버려라)'는 오역.

55. '아ᄉᆞ다가'는 '앗아다가', 즉 빼앗아 오라는 뜻이다. 초벌의 '간직하고 있다가'는 오역.

56. '슈명'은 受命(명을 받음)으로, 우치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57. '옥슈'는 玉手(고운 손)이며, '듁님간'은 竹林間(대나무 숲 사이)이다.

58. '졍식'은 正色(정색하며, 얼굴빛을 바로 함)이다. 초벌의 '정사(政事)를 논하며'는 오역.

59. '운치'는 인물 이름인 전우치(우치)이며, 초벌의 '운치를 뽐내며'는 오역.

60. 여우(혹은 여인)가 입맞춤으로 상대의 입에 넣어 주는 구슬을 삼키면 신통력을 얻는다는 '여우구슬' 설화의 화소다. 운치가 구슬을 끝내 삼켜 버린 까닭에 여자가 통곡하며 떠난 것이다.

61. '정을 못 이긔여'의 '정'은 情(연정·욕정)이며, '방성대곡'은 放聲大哭(목 놓아 크게 울), '자초지종'은 自初至終(처음부터 끝까지의 사정)이다.

62. '무류ᄒᆞ여'는 無聊하여로, 멋쩍고 면목 없어 어색해하는 모양을 뜻한다.

63. '호졍'은 狐精으로, 여우의 정기(여우 구슬)를 뜻한다. 인명이 아니다.

64. '디살 일흔두 가지 변화'는 地煞七十二變으로, 땅의 일흔두 가지 변신술을 부린다는 도술 용어다. 초벌의 '죽을 때'는 오역이다.

65. '진ᄉᆞ'는 進士로, 과거 시험에 급제함을 뜻한다.

66. '이후 ᄉᆞ'의 'ᄉᆞ'는 事(일)로, '이후의 일은 조심하라'는 뜻이다.

67. '차설(且說)'은 옛 소설에서 화제를 돌릴 때 쓰는 상투어로 '한편' 정도의 뜻.

68. '호정'은 狐精(여우의 정기·구슬)으로, 전우치가 이를 먹고 도술을 얻게 되는 설정. '구후 삼십육 변화'의 '삼십육 변화'는 몸을 마음대로 바꾸는 둔갑·변신술을 가리킴.

69. '감시(監試)'는 생원·진사를 뽑던 소과(小科) 시험. '삼일유가(三日遊街)'는 과거 급제자가 사흘간 거리를 돌며 축하받던 풍습.

70. 주인공 이름은 田禹治(전우치)이므로 원문의 '운치'를 '우치'로 옮김.

71. '생시'는 生時로 살아 계실 때, 곧 생전을 뜻함.

72. '과거'는 科擧, '영화'는 榮華(영광스럽고 호화로움)임.

73. '고히 녀겨'는 '괴이히 여겨(怪異)' 즉 이상하게 여겼다는 뜻으로, 가엾게 여겼다는 의미가 아님.

74. '셰금ᄉᆞ(세금사)'와 '셩님ᄉᆞ(성림사)'는 절 이름이며, '셩님ᄉᆞ'를 '스승님'으로 옮긴 초벌은 오역임.

75. 'ᄉᆞ오인'은 四五人(네댓 사람)으로, 정확히 다섯 명이 아니라 네댓 명임.

76. '곡졀(曲折)'은 일이 그렇게 된 사연·내막을 뜻함.

77. '셰금ᄉᆞ(세금사)'는 절 이름이며, 세금(稅金)이 아니다. 뒤의 '이 졀(이 절)'과 함께 두 곳의 절을 가리킨다.

78. 'ᄉᆞ오년'·'ᄉᆞ오 명'의 '사오'는 四五, 즉 '네댓'이다. 4~5년, 4~5명을 뜻한다.

79. '불과(不過)'는 '~에 지나지 않음'이며, 불상(佛)이 아니다.

80. '부지'는 扶持(견디어 버팀), '니산'은 離散(흩어짐), '즁싱'은 衆僧(여러 승려)으로 옮겼다.

81. '요얼'은 妖孼(요사스러운 귀신·재앙의 조짐)로, 단순한 '요괴'보다 불길한 변괴를 일으키는 사악한 기운을 뜻함.

82. '셰금ᄉᆞ'는 화담 서경덕(徐敬德)의 거처(花潭精舍)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세금과 사사로운 공부'는 오역이다.

83. '명년'은 明年, 곧 이듬해(내년)를 뜻한다.

84. '요얼'은 妖孼(요얼)로, 요사스러운 귀신이나 재앙을 뜻함.

85. 'ᄉᆞ불범정'은 邪不犯正(사불범정)으로, '삿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는 뜻. 초벌의 '사악한 기운이 가득하니'는 오역.

86. '과렴'은 過慮(과려)로 '지나친 염려'를 뜻함.

87. '갈건야복'은 葛巾野服으로, 거친 베로 만든 두건과 소박한 들옷이니 은자(隱者)나 도인의 차림을 뜻함.

88. '청려장'은 靑藜杖으로, 명아주 대로 만든 지팡이.

89. '녜ᄒᆞ다'는 '녀다(가다·다니다)'에서 온 말로, '말하다'가 아니라 '길을 가다·다니다'의 뜻이다. 초벌의 '말하다'는 오역.

90. '쇼ᄌᆡ'는 小子(소자)로 자신을 낮춰 이르는 말이다.

91. '이의 계시니'는 '이에 계시니' 곧 '여기 계시니'의 뜻으로, 초벌의 '뜻을 품고'는 원문에 없는 보충이다.

92. '쥴 거시'는 '줄 것이'(줄 물건이)이며, 초벌의 '좇을 것'은 오역임.

93. 'ᄉᆞ민'는 옷소매(袖)를 가리키며, 초벌의 '사람'은 오역이다.

94. '부용승(芙蓉繩)이란 노'에서 '노'는 노끈·끈을 뜻하며, 노인(老人)이 아니다.

95. '부작'은 부적(符籍/符作), 곧 도술용 부적 한 장을 말한다.

96. '년광이 이칠'에서 이칠은 二七(2×7=14)로 열네 살을 뜻한다. 나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97. '삼경(三更)'은 한밤중으로, 밤 11시부터 새벽 1시 무렵을 가리킨다.

98. '방장(方丈)'은 절의 주지가 거처하는 방이며, '쇄소(灑掃)'는 물을 뿌리고 비질하여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99. '슈양(垂楊)'은 수양버들로, '슈양이 츈풍을 못 이긔ᄂᆞᆫ 듯'은 버들가지가 봄바람에 한들거리는 가냘프고 고운 자태를 비유한 것이다.

100. '가군(家君)'은 남편을 가리키는 말로, 초벌의 '소싯적 부녀'는 오역임. 남편이 장양 태수로 부임해 가던 상황임.

101. '가쇽'은 家屬(집안 식솔·가족), '행장'은 行裝(여행 짐)으로, 도적이 식솔을 죽이고 짐을 빼앗았다는 뜻.

102. '결초보은(結草報恩)'은 죽은 뒤에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타일'은 他日(훗날)임.

103. '불계 쳬면'은 不計體面(체면을 따지지 않음)으로, 초벌처럼 '다 듣지 못하다'가 아니라 체면을 돌보지 않고 들어왔다는 뜻.

104. '귀택(貴宅)'은 상대를 높여 그 집·사는 곳을 이르는 말로, 신분의 귀천이 아니라 '어디에 사느냐'를 묻는 것이다.

105. '년광'은 年光으로 나이를 뜻한다. '아지 못게라'는 '알지 못하겠구나(모르겠다)'.

106. '젹환을 명하여'의 '젹환'은 정확한 한자어가 분명치 않으나, 낭자가 사람을 시켜 화자를 불러들여 이곳에 오게 된 정황으로 옮겼다.

107. '경셩'은 京城으로 한양(서울)을 뜻한다.

108. '상게 삼빅여리'는 相距 三百餘里, 즉 '서로 떨어진 거리가 삼백여 리'라는 뜻이다. 초벌의 '상부상조'는 오역.

109. '득달'은 得達로 '목적지에 다다름·도달함'을 뜻한다.

110. '싱(生)'은 화자가 자신을 낮춰 이르는 1인칭 표현이다.

111. '취처(娶妻)'를 옮긴 것으로, 장가들어 아내를 맞이함을 뜻한다.

112. '명츈(明春)'은 내년 봄, '쳔힝'은 과거에 나아감(응시함)을 가리킨다.

113. '이셩지합'은 二姓之合으로, 서로 다른 두 성씨가 합한다는 뜻의 혼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114. '빅년동낙'은 百年同樂으로, 부부가 백 년을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을 뜻한다.

115. '청파'는 聽罷(듣기를 마침)로, 말을 다 들은 뒤라는 뜻이다. 초벌의 '청파(지명/이름)'는 오역.

116. '아미'는 蛾眉로 미인의 가늘고 고운 눈썹을 가리킨다.

117. '촉하'는 燭下(촛불 아래)이며, 초벌의 '태연하면서도'는 근거 없는 오역이다.

118. '졀승'은 絶勝으로 견줄 데 없이 빼어나게 아름답다는 뜻이다.

119. '셔안'은 書案(서안), 곧 책을 보거나 글을 쓸 때 쓰는 작은 책상이다. 초벌의 '눈을 뜨며'는 오역이다.

120. '무류'는 無聊로 멋쩍고 무안함을 뜻하며, 초벌의 '무리가 없다'는 오역임.

121. '생(生)'은 화자가 자신을 낮춰 가리키는 겸칭이라 '내가'로 옮김.

122. '전정'은 前程으로 앞길·앞날을 뜻함.

123. '침음양구(沈吟良久)'는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며 망설이는 모양을 뜻한다.

124. '사문일맥'은 斯文一脈으로, 유학(儒學)을 닦는 선비 가문의 한 핏줄·혈통이라는 뜻. 초벌의 '선비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오역.

125. '감심'은 甘心(기꺼이·달게 받아들임)이며, '욕을 감심하다'는 '치욕을 달게 여기다'라는 뜻.

126. '감사무지'는 感謝無地로 '한없이 감사함'을 뜻함.

127. '원슈를 갚아 주실진대'는 怨讐(원수)를 갚아 준다는 뜻으로, '원수가 되실 분'으로 본 초벌은 오역.

128. '존명'은 尊命(존귀한 명령·분부)이며, 이름을 뜻하는 尊銜(존함)이 아님.

129. '상공(相公)'은 재상·귀인을 높여 부르는 말로 임금이 아님.

130. '합환쥬'는 合歡酒로, 혼례에서 신랑·신부가 함께 나눠 마시는 술이다.

131. '텬디'는 天地(하늘과 땅)이며, 초벌의 '하늘'은 부정확하다.

132. '일이비'는 一二杯(한두 잔)로, 술 한두 잔을 뜻함. 초벌의 '일시에 다 마셔'는 오역임.

133. '강잉'은 强仍(억지로, 마지못해)으로, 인물 이름이 아니다. 초벌의 '강잉이'는 오역.

134. '생(生)'은 서생, 곧 전우치를 가리킨다. '생김새'가 아니다.

135. 이 대목에서 여자는 여우(여호=여우)가 둔갑한 것으로, 운치가 정체를 밝히려 진언을 쓰지만 흔적이 남지 않아 여우임을 확인하는 장면이다.

136. '부용승(芙蓉繩)'은 상대를 묶는 도술의 포승줄이다.

137. '졍벽이'는 정수리(옛말 정바기)로 보아 옮겼으며, 송곳으로 정수리를 찌르고 방망이로 두드려 여우를 고문하는 장면이다. 초벌의 '향화(향 피움)'·'다리를 덮어줌'은 오역.

138. '녀호년'은 여우(狐)를 가리키는 욕설로, 사람 사내가 아니라 절에서 악행을 부리는 여우 요괴를 꾸짖는 말이다. 초벌의 '놈'은 오역.

139. '작얼'은 作孽(작얼)로 죄악을 짓거나 재앙을 일으킨다는 뜻.

140. '생령'은 生靈으로 살아 있는 사람들·목숨을 뜻한다.

141. '술기를 빌거놀'은 '살기(殺氣)를 띠며 달려들자'가 아니라 '살려 달라고 빌었다'는 뜻으로, 항복해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임.

142. '호졍'은 狐精(호정), 여우가 수련해 이룬 정기(精氣) 또는 구슬을 가리킨다. 여우를 위협해 그 정기를 내놓으라는 대목으로, '호위할 사람'이 아니다.

143. 'ᄒᆞ나흘'은 '하나를'이며, '하루'가 아니다.

144. '쳔셔'는 天書(천서), 곧 하늘의 비법·도술이 적힌 신비한 책을 뜻한다. 전우치전에서 주인공이 얻는 핵심 보물이다.

145. '호졍도곤'의 '-도곤'은 '-보다'에 해당하는 옛 비교 조사로, '호정보다'라는 뜻이다.

146. '글너노흐면'은 '끌러(풀어) 놓으면'으로, 묶인 사람을 풀어 준다는 뜻. 초벌의 '가져오라고 하시면'은 오역임.

147. '운치'는 주인공 전우치(田禹治)를 가리키며, '운치(정취)'가 아님.

148. '대로하여'는 大怒(크게 노함)이며, '대로(큰길)' 등이 아님.

149. '송곳'으로 쑤신 것으로, 초벌의 '꽃을 뿌리니'는 오역임.

150. '상공'은 相公으로, 재상이나 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151. '책'은 冊(서책)으로, 초벌의 '인사'는 오역이다. '발 맨 것을 끌러놓으면'도 '발을 묶은 것을 풀어 놓으면'의 뜻으로, 초벌의 '발이 묶여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오역이다.

152. '오리나'는 五里(약 5리 거리)나 들어갔다는 뜻으로, 초벌의 '오르며'는 오역임.

153. '숑쥭'은 松竹(소나무와 대나무)이며, 단순한 '숲'이 아님.

154. '무슈ᄒᆞᆫ 집'은 無數(무수)한 집, 곧 수많은 집을 뜻하며, 초벌의 '집이 한 채'는 오역임.

155. 'ᄎᆡ'는 宅(댁/집)으로, 여우가 거처하는 집 안을 가리킴.

156. '산힝(산행)'은 山行으로, 여기서는 사냥하러 산에 가는 것을 뜻함.

157. 'ᄉᆞ망'은 사냥으로 잡은 짐승(獵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옮겼으며, 초벌의 '死亡(사망)'은 문맥상 맞지 않음. 뒤의 '맛 좋게 먹으리라'와 이어져 사냥한 고기를 먹는다는 뜻임.

158. '아기씨'는 종이 어린 상전을 높여 부르는 호칭임.

159. '다리들거ᄂᆞᆯ'은 '달려들거늘(달려드니)'로, 다리를 든다는 뜻이 아님.

160. '운치 ᄃᆡ로ᄒᆞ여'의 '대로(大怒)'는 크게 노한다는 뜻으로, '운치 있게'가 아님.

161. '숑곳'은 송곳이며 '소금 더미'가 아님.

162. 원문 '셰 권'은 三卷(세 권)이며, 초벌의 '다섯 권'은 오역임. '셰'는 '세(三)'를 적은 표음이다.

163. '텬셰'는 天書(천서), 곧 하늘의 글·신령한 비결을 뜻한다.

164. '노흘 그르지 아니하고'는 '노(밧줄)를 끄르지(풀지) 않고'의 뜻으로, 구미호를 묶은 줄을 풀지 않았다는 말이다.

165. '방츄'는 방추(紡錘) 또는 방망이류로, 송곳과 함께 구미호를 위협·고문하는 도구로 쓰였다.

166. '허락하매'는 구미호가 우치의 요구에 굴복하여 응했다는 뜻이다.

167. '운치'는 주인공 전우치(田禹治)를 가리킨다.

168. '셰금ᄉᆞ'의 'ᄉᆞ'는 절(寺)로, '세금사'라는 절 이름이다. 초벌의 '세심로(洗心爐)'는 근거 없는 추측.

169. 원문 '믄 거슬 풀고'는 (여우를) 묶어 놓은 것을 풀어 준다는 뜻이다. 초벌의 '맺힌 원한을 풀고'는 오역.

170. '일너 왈'은 '일러 말하다(이르다)'이며, 초벌의 '일어나'는 오역이다.

171. '일야간(一夜間)'은 하룻밤 사이를 뜻한다.

172. '워여'는 '외쳐'(소리쳐)의 옛 표기로, 초벌의 '서여'는 인물 이름으로 잘못 본 오역이다.

173. 'ᄎᆞᄌᆞ가고'는 찾아가다(도로 가지고 가다)로, 초벌의 '데려가고'는 오역.

174. '부작'은 符籍(부적)을 뜻한다.

175. '부용승'은 도술에 쓰이는 물건의 이름으로 보이며, 고유명사로 그대로 두었다.

176. '계하(階下)'는 섬돌 아래, 즉 마당에서 댓돌 밑 자리를 뜻함.

177. '션비'는 선배(先輩)가 아니라 선비(士)다. 초벌의 '선배'는 오역.

178. '불가(不可)'는 '옳지 않다·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선비가 볼 만한 책이 아니라는 의미.

179. '보ᄂᆞ뇨'는 '(책을) 보느냐·읽느냐'이며, 초벌의 '생각하느냐'는 오역.

180. '유뫼'는 乳母(유모)로, 우치의 유모를 가리킨다.

181. '텬셔'는 天書(천서)로, 우치가 얻은 도술 비법서를 가리킨다.

182. '상ᄉᆞ'는 喪事(초상, 사람이 죽은 일)로, 초벌의 '상사병'은 오역이다.

183. '상공(相公)'은 재상이나 귀인을 높여 부르는 말로 임금이 아니다.

184. '대경(大驚)'은 크게 놀랐다는 뜻으로, 초벌의 '운치에 취해'는 오역.

185. '경객간'은 경각간(頃刻間), 곧 '잠깐 사이'.

186. '대로(大怒)'는 크게 노했다는 뜻으로, 초벌의 '혼잣말로'는 오역.

187. '천서(天書)'는 하늘이 내린 신비한 도술 책으로, 초벌의 '천문학 책'은 오역. 전우치가 도술을 얻는 핵심 소재다.

188. '유뫼'는 유모(乳母)로 읽었다.

189. '칙을 찻고'는 '冊(책)을 찾고'로, 책략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여우가 감춘 책을 찾는다는 뜻이다.

190. '여호 굴혈'은 여우(狐)의 굴(窟穴), 즉 여우의 소굴을 가리킨다.

191. '부작'은 부적(符籍)을, '부친'은 '붙인'을 표음으로 적은 것이다.

192. '아ᄉᆞ가지 못ᄒᆞ미러라'는 '앗아 가지 못한 것이다'로, 상권은 끝내 가져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초벌의 '가져갈 수 있었다'는 정반대 오역이다.

193. '대저(大抵)'는 '무릇·대체로'의 뜻으로, 여기서는 앞 사실의 까닭을 풀어 설명하는 어투다.

194. '천서(天書)'는 하늘의 비법을 적은 신묘한 책으로, 전우치전에서 전우치가 도술을 익히는 근원이 된다.

195. '과업(科業)'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를 뜻한다.

196. '션관'은 仙官(신선 세계의 벼슬아치)으로, 전우치가 변신한 신선의 모습이다.

197. '셔긔'는 瑞氣(상서로운 기운), '거즁ᄒᆞ미'는 居中(한가운데에 자리 잡음)을 옮긴 것이다.

198. '망지쇼조'는 罔知所措(어찌할 바를 모름), '됴신'은 朝臣(조정의 신하), '상달'은 上達(윗사람께 아룀)이다.

199. '쳥의동ᄌᆡ'는 靑衣童子로, 푸른 옷을 입은 어린 시동(侍童)을 뜻한다. 초벌의 '의로운 청년'은 오역이다.

200. 'ᄃᆡ경'은 大驚(크게 놀람)이다.

201. '옥졔 젼교'는 玉帝 傳敎로, 옥황상제(玉皇上帝)가 내리는 명령을 뜻한다. '임금의 명령'이 아니라 천상의 옥제가 내린 전교다.

202. '오운'은 五雲(오색 구름)으로, 선관이 상서로운 구름에 싸여 있는 모습이다. 초벌의 '오행 중 하나인 뱀'은 오역.

203. '복디'는 伏地(땅에 엎드림)로, 신하나 아랫사람이 공경의 뜻으로 땅에 엎드리는 동작이다. 초벌의 '복을 빌며'는 오역.

204. '향안(香案)'은 향을 피우는 상이고, '포진(鋪陳)'은 바닥에 까는 자리·깔개를 말한다. 'ᄉᆞ빈'는 四拜(네 번 절함)이다.

205. '요지(瑤池)'는 서왕모(西王母)가 산다는 천상의 신선 세계 연못이고, '보각(寶閣)'은 보배로운 누각·전각을 뜻함. 초벌의 '요술 보배'는 오역.

206. '상제(上帝)'는 옥황상제로, 인간 세상의 임금이 아님. 초벌이 '임금'으로 옮긴 것은 오역.

207. '진배(進排)'는 물품을 마련하여 바친다는 뜻이며, 초벌의 '진열'과 다름.

208. '상량(上樑)'은 건물의 마룻대(들보)를 올리는 의식으로, 여기서 요구하는 황금 들보가 그 용도임.

209. '언파'는 言罷, 곧 말을 마침을 뜻한다.

210. '션악'은 仙樂(신선의 음악)이며, 초벌의 '선율'은 오역이다.

211. '오운'은 五雲, 곧 오색구름을 가리킨다.

212. 'ᄉᆞ빈'는 四拜(네 번 절함)이며, 초벌의 '탄식'은 오역이다.

213. '좌위 쥬 왈'은 左右奏曰로, 좌우의 신하들이 아뢰어 말한다는 뜻이다. 초벌의 '좌의정'은 근거 없는 추측이다.

214. '행관(行關)'은 각 도에 관문(關文), 곧 공문을 보내는 것을 뜻한다. 초벌의 '행정관들'은 오역이다.

215. '천명'은 天命(하늘의 명)으로, 임금의 명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든다는 의미다.

216. '발관'은 發關으로,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공문을 내려보내는 일이다.

217. '진시'(辰時)는 오전 7시~9시 무렵이다. 초벌의 '8~10시경'은 부정확하다.

218. '등대'(等待)는 미리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뜻이다.

219. '오운'(五雲)은 오색구름, '향취'(香臭)는 향내를 가리킨다.

220. '선관'(仙官)은 신선 세계의 관리로, 여기서는 전우치가 신선으로 변장해 나타난 모습이다.

221. '요구쇠'는 끝이 갈고리처럼 굽은 도구로, 동자들이 이것으로 선관을 걸어 올렸다는 뜻이다.

222. '사배'(四拜)는 네 번 절하는 큰절, '진하'(進賀)는 축하를 올리는 하례(賀禮)다.

223. '진ᄒᆞ여스ᄆᆡ'는 盡(다하다)으로, '금이 동나 귀해졌다'는 뜻이다. 초벌의 '금이 풍부하여'는 정반대의 오역이다.

224. 'ᄆᆡᄆᆡ'는 賣買(사고팖), '슈상'은 殊常(수상함). 즉 금 들보를 매매하는 것이 수상쩍다는 뜻이며, 초벌의 '매달아 놓는 것을 으뜸으로 여겼다'는 오역이다.

225. '포도 장죨'은 捕盜將卒로 포도청의 군졸을 가리킨다. 포도대장(장수) 한 사람이 아니다.

226. '출쳐'는 出處(출처, 나온 곳·유래)이며 '내놓다'가 아님.

227. '오ᄇᆡᆨ금'은 五百金(오백 금)으로, 초벌의 '닷만 금'은 오역임.

228. '이르면'은 '(집이 어딘지) 말해 주면'의 뜻으로, '도착하면'이 아님.

229. '명일(明日)'은 내일을 뜻함.

230. '숑악산'은 松嶽山(송악산)으로, 고려의 옛 수도 개성에 있는 산이다.

231. '상약(相約)'은 서로 약속함을 뜻한다. 초벌의 '붙잡혀 매를 맞은'은 원문에 없는 오역이다.

232. 'ᄐᆡ쉬'는 太守(태수), 곧 고을의 수령이다. 초벌의 '태세'는 잘못이다.

233. '연괴'는 緣故(연고), 곧 까닭·이유를 뜻한다.

234. '생금'은 生擒(생금)으로 산 채로 사로잡는다는 뜻이며, 초벌의 '새로 만들다'는 오역이다.

235. '포쾌'는 죄인을 잡아들이는 포교(捕校)·포졸을 가리키는 말이다.

236. '남서부'는 지명으로, 초벌의 '가운치'는 '가(가서) 운치를'을 잘못 끊은 것이며 인물은 전우치 한 사람이다.

237. '위션'은 인명 田禹治(전우치)를 가리키는 '우치'로 보아 옮김. '위로 올라가'로 읽은 초벌은 오역.

238. '장계(狀啓)'는 지방 관원이 임금에게 글로 보고하던 문서.

239. '관ᄃᆡ'는 寬待(너그럽게 대접함)로, 음식을 차려 손님을 후하게 대하는 것을 뜻한다.

240. '태수(ᄐᆡ슈)'는 太守, 곧 한 고을을 다스리는 지방관이다. 초벌의 '재주'는 오역이다.

241. '가지 아니하리니'는 '(너를 따라) 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잡혀가지 않겠다는 말이다. 초벌의 '피하지 않겠다'와는 다르다.

242. '금부'는 의금부(義禁府)로, 조선시대 중죄인을 다스리던 관청.

243. '장계(狀啓)'는 지방 관리가 임금에게 올리던 보고서.

244. '나명(拿命)이 내림'은 잡아들이라는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는 뜻으로, 초벌의 '나팔 소리'는 오역임.

245. '금부도사(禁府都事)'는 죄인의 추국·체포를 맡던 의금부의 관원이고, '토병(土兵)'은 그 지방에서 징발한 군사를 말함.

246. '동정(動靜)을 살펴'는 상대의 움직임과 형편을 엿본다는 뜻임.

247. '병'은 病(질병)이 아니라 甁(병·그릇)이다. 뒤의 '병 부리(병의 주둥이)'·'병 속'이라는 표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초벌이 '병이 들다'를 질병으로 옮긴 것은 오역이다.

248. '운치'는 주인공 전우치(田禹治)를 가리킨다.

249. '고히 녀겨'는 '괴(怪)이 여겨', 곧 괴이하게·이상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250. '쥬야'는 晝夜(주야), 곧 밤낮을 말한다.

251. '병'은 질병(病)이 아니라 甁(항아리·병)으로, 화자가 난을 피해 병 속으로 몸을 숨긴 상황임. 초벌의 '병식의 집·병을 다스림'은 오역.

252. '병 부리'는 병의 주둥이(입구)를 가리키며, 그것을 막아 숨이 막혔다는 뜻. '막은 것을 빼내라'는 막은 마개를 뽑으라는 명령이다.

253. '탑젼'은 榻前(탑전)으로 임금 앞을 뜻한다. 초벌의 '경치'는 오역.

254. '쳥이불문'은 聽而不問으로, 명을 듣고는 더 묻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뜻이다.

255. '슈말'은 首末(수말)로 일의 처음과 끝, 곧 자초지종을 가리킨다.

256. '운치'는 전우치(田禹治)를 가리킨다.

257. '병 쇽'의 '병'은 兵(병사)이 아니라 甁(병·항아리)으로, 전우치를 병 속에 가두려는 상황을 가리킨다. 초벌의 '병사들'은 오역이다.

258. '병막이'는 '병마개'(병의 입구를 막는 마개)로, 초벌의 '병마(病魔)'가 아님. 병 속에 갇힌 자가 마개를 뽑아 달라고 청하는 장면이다.

259. '불측(不測)'은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며, 변덕스럽다는 의미가 아님.

260. '쇼로이'는 '소루(疏漏)히' 곧 꼼꼼하지 못하고 데면데면하게, 즉 섣불리·소홀히 한다는 뜻임.

261. '뎐지(傳旨)'는 임금이 내리는 명령·분부를 뜻한다.

262. '쇼용병(소용병)'은 전우치가 갇혀 있는 병으로, 임금이 이 병을 끓는 기름 가마에 넣어 죽이려 하는 장면이다. 초벌의 '병사들이 식사하는 곳'은 '병(甁) 속에서'의 오역이다.

263. '워여 왈'은 '외쳐 말하기를'의 뜻으로, 초벌의 '울며'는 오역이다.

264. '국은(國恩)'은 나라(임금)의 은혜를 뜻함.

265. '기름이 다 조랏ᄂᆞᆫ지라'는 기름이 다 졸아들었다는 뜻으로, 병을 끓인 정황을 가리킨다.

266. '어젼'은 御前(어전), 임금의 앞을 뜻한다.

267. '상이'의 '상'은 上으로 임금을 가리키며, 초벌의 '상(賞)을 받다'는 오역임

268. '대로하사'는 大怒(크게 노함)에 높임 '-하사'가 붙은 것으로 '크게 노하시어'의 뜻

269. '마하'는 磨하여(갈아서)로 보아 옮겼고, 'ᄭᅳᆯ이라'는 '끓이라'(끓여라)로 복원했다. 초벌의 '끝이라'(끝)는 표기상 'ᄭᅳᆺ'이어야 하므로 오역이다.

270. '파가저택(破家瀦宅/澤)'은 죄인의 집을 헐어 없애고 그 자리에 못을 파던 형벌로, 반역죄 등 중죄인에게 내렸다.

271. '쥬 왈'의 '쥬'는 奏로, 신하가 임금에게 아뢴다는 뜻이다.

272. '요적'은 妖賊(요사스러운 도적)으로, 妖怪(요괴)가 아님. 전우치를 가리킴.

273. '사문'은 四門, 곧 도성의 네 대문(사대문)을 뜻함.

274. '자현'은 自現으로 스스로 나타나 자수함을 뜻하며, '관작'은 官爵(관직과 작위)임.

275. 'ᄉᆞ문'은 四門(사대문)으로, 도성의 네 대문을 가리킨다. 옛날에는 백성에게 알릴 일이 있으면 사대문에 방(榜)을 붙였다.

276. '득죄'는 得罪(죄를 지음)로, 초벌의 '이로움을 주었으나'는 오역.

277. '죄를 사하고'는 罪를 赦하고, 곧 죄를 용서한다는 뜻.

278. '자현'은 自現(스스로 모습을 드러냄), 곧 자수하라는 뜻.

279. '차설(且說)'은 고전소설에서 화제를 다른 이야기로 돌릴 때 쓰는 상투어로, '한편'에 해당한다.

280. '은ᄌᆞ를 쓰며'의 '은자'는 은신(隱身)의 술법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 '은신술을 쓰며'로 옮겼다. 우치가 도술을 익혀 구름을 타고 다니는 맥락이다.

281. '애매히'는 曖昧에서 온 말로 여기서는 '억울하게, 까닭 없이'라는 뜻이다. 초벌의 '어찌하여 살인자가 되었는지'는 이 억울함의 뉘앙스를 놓친 오역이다.

282. '살인죄수'는 殺人罪囚, 즉 살인죄로 갇힌 죄수를 뜻하며 단순히 '살인자'가 아니다.

283. 'ᄋᆡ미'는 曖昧(애매함, 분명치 않은 사정)이며, 초벌의 '아이의 이름'은 오역이다.

284. '문객(門客)'은 권세 있는 사람의 집에 머물며 보살핌을 받는 식객·측근을 뜻한다.

285. '결련(結連)'은 서로 연줄을 맺어 결탁함을 뜻하며, 조가가 양문기와의 연줄로 처벌을 면했다는 의미다.

286. '죄수(罪囚)되었다'는 옥에 갇힌 죄인이 되었다는 뜻으로, 문서가 조작되어 아들이 살인범으로 몰렸음을 가리킨다.

287. '무ᄉᆞ'는 無事(무사, 아무 탈 없음)로, 초벌의 '무엇을 하다'는 오역임. '무사하게 하리라'는 '탈 없이 해 주겠다'는 뜻.

288. '백주(白晝)'는 대낮을 뜻함. 초벌의 '백주의 요술'은 오역이며, '요얼(妖孼)'은 요사스러운 재앙·괴물 같은 존재를 가리킴.

289. '조가 숀'은 '조가(趙哥)의 손(手)에'로, 왕생이 조씨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뜻. 초벌의 '조가 숀의 왕생'은 오역.

290. '왕생(王生)'은 왕씨 성을 가진 젊은이를 가리키는 호칭(서생). 사람 이름의 일부가 아님.

291. '애매한'은 曖昧에서 온 말로 여기서는 '억울한·애꿎은(누명을 쓴)'의 뜻. '상세히'로 옮긴 초벌은 오역.

292. '니가'·'조가'는 각각 이가(李哥)·조가(趙哥), 곧 이씨·조씨를 낮춰 부르는 말.

293. '좌긔(좌기, 坐起)'는 관원이 공무를 보려고 자리에 나와 앉는 것을 뜻한다.

294. '발병(發兵)'이 아니라 '罰(벌)'을 가하려는 정황으로, 문맥상 죄인을 매로 치려는 형벌 집행 즈음을 가리킨다.

295. '원쉬'는 원수(怨讐)로, 깊은 원한 관계를 뜻한다.

296. 'ᄋᆡ미ᄒᆞᆫ'은 애매(曖昧)한, 곧 '아무 잘못이 없는·억울한'의 뜻이며, 여기서 '이가(李哥)'는 죄 없이 누명을 쓴 인물을 가리킨다.

297. '불측'은 불측(不測)으로 '음흉하고 헤아릴 수 없이 흉악함'을 뜻한다.

298. '니가'는 이가(李哥), '조가'는 조가(趙哥)로 서로 다른 인물이다. 초벌은 둘을 같은 인물로 혼동했으나, 원문은 무고하게 잡혔던 이가를 풀어주고 죄를 자백한 조가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299. '엄형츄문'은 엄형추문(嚴刑推問), 즉 엄한 형벌을 가하며 죄를 캐묻는 것.

300. 'ᄀᆡᄀᆡ'는 개개(個個), 곧 '낱낱이·하나하나 빠짐없이'라는 뜻.

301. '방숑'은 방송(放送)으로 '풀어줌', '행형'은 행형(行刑)으로 '형을 집행함'을 뜻한다.

302. '졔두'는 문맥상 죄인의 머리(목)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옮겼으며, 초벌의 '제두를 짊어지고'는 오역으로 판단됨.

303. '쟝인(匠人)'은 물건을 만드는 장인(기술자)으로 옮김.

304. '아ᄉᆞ가려'는 '앗아가려(빼앗아 가려)'의 옛 표기로, 초벌의 '아첨하려'는 오역임.

305. '졔두'는 거래의 대상이 된 물건으로 보이나 이 단락만으로는 정확한 한자어를 특정하기 어려움. 초벌의 '제도(制度)'로 단정할 근거는 없음.

306. '탓토노라'는 '다투노라(다투는 것이다)'로, 값을 두고 실랑이한다는 뜻임.

307. '진언(眞言)'은 도술을 부릴 때 외우는 주문을 뜻한다.

308. '물녀 ᄒᆞ거ᄂᆞᆯ'은 '물려 하거늘', 곧 '입으로 깨물려 하다'의 뜻이며, 초벌의 '물건으로 착각'은 오역이다.

309. '그 졔뒤'는 우치가 주문으로 불러낸 무리(짐승·괴물 따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그것들'로 옮겼다.

310. '가셩(歌聲)이 분운(紛紜)하다'는 노랫소리가 어지러이 뒤섞여 가득하다는 뜻.

311. '과객(過客)'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손을 뜻함.

312. '졔생(諸生)'은 함께 자리한 여러 선비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람 이름이 아니다.

313. '소생·설생'은 蘇生·薛生으로, 소씨·설씨 성을 가진 선비를 뜻한다.

314. '수작(酬酌)'은 본래 술잔을 주고받는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선비들과 술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315. '생(生)'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저'로 옮김.

316. '진찬(珍饌)'은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뜻함.

317. '명기'는 名妓(이름난 기생), '진찬'은 珍饌(진귀한 음식)으로, 초벌의 '명성과 재주'는 오역.

318. '빈한'은 貧寒(가난함).

319. '미비(未備)'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음, 부족함'이라는 뜻으로, 초벌의 '무엇이냐'는 오역임.

320. '셔ᄂᆞᆯᄒᆞᆫ 슈박'은 '서늘한 수박'으로, 초벌의 '설탕'은 오역임.

321. '가즈리오'는 '갖추어지리오'로, '무엇이 갖춰져 있겠는가(구비되어 있겠는가)'의 뜻임.

322. 'ᄃᆡ소'는 大笑(크게 웃음)이며, 초벌의 '대답'은 오역이다.

323. '졔싱'은 諸生(제생), 즉 여러 서생·유생을 가리킨다.

324. '계츈'은 季春(계춘)으로, 음력 3월 곧 늦봄을 뜻한다.

325. '여름'은 옛말로 열매(實)를 뜻하며, 계절 '여름'이 아님.

326. '열녀스믈'은 '열렸음을'이며, '열녀(烈女)'가 아님.

327. '일쳐'는 一處(한 곳)으로 풀이함.

328. 'ᄉᆞ올'은 '아올'로도 읽히나 문맥상 '某(아무개)를 알다'로 보기 어려워 자연스러운 의미를 택함. '뫼/모=某'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무개'를 뜻함.

329. 'ᄉᆞ오거든'은 '싸우거든'으로, 초벌의 '사다(買)'가 아니라 '싸우다(鬪)'로 보는 것이 문맥에 맞음.

330. 'ᄂᆡ기'는 '내기(賭)'로 보아 '큰 내기를 시행하라 → 크게 내기를 걸어라'로 옮김.

331. '동ᄌᆞ'는 童子(심부름하는 아이)이고, '종ᄌᆞ'는 從者(따라다니며 시중드는 사람)임.

332. '포되'는 葡萄(포도), '겨ᄌᆞ'는 가지(柯枝)로, 포도가 가지에 드리워진 것을 가리킴.

333. '이십ᄀᆡ'는 二十個(스무 개), '졔인'은 諸人(여러 사람), 'ᄃᆡ경'은 大驚(크게 놀람)임.

334. '대취(大醉)'가 아니라 '대취(大趣)'로 보아 흥취가 한껏 일어난 상태로 옮김. 다만 술자리 정황상 '크게 취함(大醉)'으로도 읽을 수 있음.

335. '진언(眞言)'은 도술을 부릴 때 외우는 주문을 뜻함.

336. '불긴(不緊)'은 긴요하지 않다, 곧 필요 없다는 뜻으로 옮겼다.

337. '방ᄌᆞ'는 放恣(방자), 거리낌 없이 멋대로 구는 것을 가리킨다.

338. '환재'는 患者(병자)가 아니라 宦者(환자, 거세된 내시)로 보아 옮김. 뒤에 나오는 '창녀'와 짝을 이루어 '우리는 거세된 내시가 아니니 여자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초벌의 '환자가 아프다'는 풀이는 오역.

339. '불긴타'는 不緊하다(긴요치 않다, 필요 없다)의 옛 표기로, 초벌처럼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이 아님.

340. '창녜'는 娼女(창녀)로 옮김.

341. '셜싱'은 설생(薛生), '쇼싱'은 소생(蘇生)으로 등장인물의 호칭이며, 초벌의 '화상(스님)·소승' 해석은 오류임.

342. '숀'은 손(手)의 옛 표기.

343. 원문 '업고'는 '없고'의 옛 표기로, 초벌의 '업고(등에 업다)'는 오역. '신랑이 간 ᄃᆡ 업고'는 '신랑이 간 곳(자취)이 없고'의 뜻.

344. '판판ᄒᆞ니'는 '판판하니'로, 자리가 평평하게 텅 비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345. '변(變)'은 변고·뜻밖의 사고를 뜻함.

346. '소문(小門)'은 음문(陰門), 곧 여자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말로, 전우치의 도술 탓에 제자리에서 사라진 것이다.

347. '비러 왈'의 '비러'는 '빌어(간청하다)'의 뜻이며, 초벌의 '비루하다'는 오역이다.

348. '은생(殷生)'의 '生'은 서생을 뜻하므로 남성으로 보이며, 초벌처럼 '여인'으로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349. '아등(我等)'은 '우리'를 뜻하나, 여기서는 형에게 자신을 낮춰 이르는 '저(저희)'로 옮김.

350. '득죄(得罪)'는 '죄를 짓다'라는 뜻의 한자어임.

351. '치하(致賀)'는 남이 한 일에 대해 고마움이나 축하의 뜻을 표하는 말이다.

352. '강님'은 降臨(강림), 즉 신선이 내려옴을 뜻한다. 초벌의 '강님을 모시다'는 오역이며, '모로와'는 '몰라(모르고)'의 옛 표기다.

353. '병인(病人)'은 병자(앓는 사람)를 뜻한다.

354. '고직'은 창고지기(庫直), 곳간을 지키는 직책이다.

355. '효행(孝行)'은 부모를 잘 섬기는 행실을 뜻한다.

356. '차탄(嗟歎)'은 한숨 쉬며 탄식한다는 뜻.

357. '기인(奇人)'은 보통과 다른 기이한 사람을 가리킴.

358. '호조 고직(戶曹 庫直)'은 호조(국가 재정·세금을 맡은 관청)의 창고지기를 말한다.

359. '무변지매'는 無辨之매로, '(혐의를) 변별·변명하지 못하여'라는 뜻이다. 초벌의 '근거도 없이'는 오역이다.

360. '차탄(嗟歎)'은 안타까워 탄식한다는 뜻이며, 초벌의 '꾸짖다'는 잘못이다.

361. '행형(行刑)'은 형벌을 집행함을 뜻한다.

362. '행형(行刑)'은 형을 집행함이다. 초벌의 '떠날 곳'은 오역.

363. '슐위'는 수레로, 여기서는 죄인을 호송하는 수레다. 소년이 수레에 실려 온 것이며 '슬피 울며'가 아니다.

364. '져믄 계집'은 젊은 여자이며, '저녁때의 여인'이 아니다.

365. '즁인'은 衆人(여러 사람)이다.

366. '동졍을 솖피더니'는 動靜(동정)을 살핀다는 뜻으로, 초벌의 '가련하여 눈물이 날 지경'은 창작된 오역.

367. '씨를 웨ᄂᆞᆫ'은 형을 집행할 때(시각)를 외쳐 알린다는 뜻.

368. '부쳐'는 夫妻(부부)다. 장계창과 뒤따르던 젊은 여자(아내)를 함께 거둔 것이며, '부채(扇)'가 아니다.

369. '감형관'은 監刑官으로 형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다.

370. 원문은 임금이 '놀라시고'이며, 초벌의 '크게 즐거워하였으나'는 정반대 오역.

371. '기인'은 其人(그 사람)으로, '기이한 사람(奇人)'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된 통곡하던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킴.

372. '부샹'은 父喪(아버지의 상)이고 '장ᄉᆞ'는 葬事(장례)이다. 초벌은 '부상=불행한 일', '장사=장사(상업)'로 오역했으나, 문맥상 '부친상을 당해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는 뜻이다.

373. '한지경'은 화자가 밝히는 자기 이름(한재경)으로 보이며, '한낱 가난한 선비'라는 보통명사가 아니다.

374. '죡ᄌᆞ'는 簇子(족자), 곧 벽에 거는 그림·글씨 두루마리다. 초벌의 '쪽지'는 오역.

375. '고직'은 庫直(고지기), 곳간을 지키는 사람으로, 족자 그림 속 인물을 부르는 것이다.

376. '장ᄉᆞ 지내다'는 商業(장사)이 아니라 葬事(장사)를 치르는 것, 즉 장례를 지내는 일이다. 초벌의 '장사를 시작하고'는 오역.

377. '노친(老親)'은 늙은 부모를 뜻한다.

378. '죡ᄌᆞ'는 쪽지가 아니라 족자(簇子), 즉 그림을 그려 벽에 거는 두루마리 그림이다. 초벌의 '쪽지'는 오역.

379. '고직'은 庫直(창고지기)으로, 동자의 이름처럼 부른 호칭이다. 그래서 동자를 '고직아!' 하고 불렀다.

380. '동자'는 童子, 곧 심부름하는 사내아이를 뜻한다.

381. '기인'은 其人(그 사람)으로, 사람 이름이 아니다.

382. '장사를 지내고'는 葬事(장례)를 치렀다는 뜻이며, 초벌의 '장사를 시작하여(상업)'는 오역이다. '지내다'는 장례·제사를 치를 때 쓰는 말이다.

383. '고직'은 庫直(창고지기), 곳간이나 재물을 맡아 지키는 사람을 가리킨다.

384. '일용(日用)'은 날마다 쓰는 비용을 뜻한다.

385. '헤오되'는 '생각하되/헤아리되'의 옛말이다.

386. '고직(庫直)'은 창고를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곧 창고지기를 뜻한다.

387. '재삼 달래여'는 再三(두세 번 거듭) 달래어'로, 거듭 구슬렸다는 뜻이다. 초벌의 '세 달을 기다린'은 오역.

388. '고직'은 庫直(창고지기), '고문'은 庫門(창고 문)이다.

389. '은자 백 냥'은 銀子 百 兩으로 은으로 된 돈 백 냥을 가리킨다.

390. '호판'은 호조판서(戶判), 곧 호조의 으뜸 벼슬아치다. 초벌의 '곁에 있던 아는 사이'는 오역.

391. '좌긔'는 坐起로, 관아의 으뜸 벼슬아치가 출근해 사무를 보는 것을 뜻한다.

392. '고직'은 庫直, 곧 창고지기다.

393. '호판'은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조선시대 호조의 으뜸 벼슬이다.

394. '고 즁'은 '집 안(가운데)'을 뜻하는 것으로, 초벌의 '고통스러운 사정'은 오역임.

395. '호판'은 호조판서(戶曹判書)로, 호조의 으뜸 벼슬.

396. '계하(階下)'는 섬돌 아래로, 죄인을 꿇리는 자리. 초벌의 '계하가 끈질기게 구느냐'는 오역.

397. '관가(官家)'는 관청·관아를 뜻함.

398. '상신가'는 '生(생)인가', 즉 '생시(生時)인가'의 표기로, 꿈이 아닌 현실인지를 묻는 말이다. 초벌의 '신선'은 오역이다.

399. '호판'은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나라의 재정을 맡은 호조의 으뜸 벼슬임.

400. '고 즁'은 庫中(창고 안)으로, 초벌의 '고을'은 오역임.

401. '당뉴'는 黨類(한패·일당)이며, 초벌의 '잘못(저지른 죄)'이 아님. '알외라'는 아뢰라/고하라의 뜻.

402. '죡ᄌᆞ'는 簇子(족자), 곧 그림이나 글씨를 표구해 벽에 거는 두루마리이다. 초벌의 '아이'는 오역이며, 전우치전에서 전우치가 건넨 족자를 가리킨다.

403. '호판'은 戶判, 즉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줄여 이르는 말이다.

404. '한개'는 인명(사람 이름)이다.

405. 'ᄉᆞ오삭'은 四五朔(사오삭), 곧 너덧 달을 가리킨다. '朔'은 달(月)을 세는 단위.

406. '남셔부'는 지명 남선부(南贍部) 계열로 보이나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겼다.

407. '호판'은 호조판서(戶曹判書)로, 나라의 재정과 창고를 관장하는 벼슬이다.

408. '번고'는 번고(反庫), 곧 창고의 물품을 꺼내 점검·조사하는 일이다. 초벌의 '물건을 사고팔며'는 오역.

409. '누른 ᄇᆡ얌'은 '누런 뱀'이다. 초벌이 '누런 배(황금)'로 옮긴 것은 오역.

410. '쥬하되'는 주(奏)하되, 곧 임금께 아뢰되라는 뜻이다.

411. '즘싱'은 짐승(動物)으로, 초벌의 '벌레 떼'와 달리 벌레와 짐승 두 가지를 가리킨다.

412. '영문'은 營門으로 군영(軍營)·진영의 관청을 뜻함.

413. '쥬ᄒᆞ되'는 奏하되, 곧 임금에게 아뢴다는 뜻.

414. '군긔'는 軍器(군기), 즉 무기와 병장기를 뜻한다.

415. '차지내관(次知內官)'은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하는 직책의 내관(환관)을 가리킴.

416. '쥬ᄒᆞ되'는 奏하되, 즉 임금에게 아뢴다는 뜻.

417. '해물'은 海物로 바다에서 나는 것(바다 생물)을 뜻하며, '생션'은 生鮮(살아 있는·싱싱한 물고기)으로 보았다.

418. '금가마귀'는 金鴉(금 까마귀)로, 검은 까마귀가 아니라 황금빛 까마귀를 뜻함.

419. '젹도리'는 족두리(부녀자가 예복에 갖추어 머리에 쓰던 관)이며, 사람이 변신한 것이 아니라 머리에 쓴 족두리가 변한 것임.

420. '궁노슈'는 弓弩手로 활과 쇠뇌를 다루는 군사를 뜻한다. 초벌의 '궁녀들을 불러들였다'는 오역이다.

421. '궁노를 발치 못ᄒᆞ고'에서 '궁노(弓弩)'는 활과 쇠뇌, '발치 못하고'는 發(쏘다)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초벌의 '발을 떼지 못하고'는 오역이다.

422. '아오로'는 '아울러·모두'의 옛말이다.

423. '호판'은 戶判, 곧 호조판서(戶曹判書)로 국가 재정을 맡은 벼슬이다.

424. '쥬ᄒᆞ되'는 奏하되, 곧 임금에게 아뢰는 것을 뜻한다.

425. '동뉘'는 同類(동류), 곧 '같은 무리·한패'를 뜻한다. 초벌의 '동네 사람'은 오역이다.

426. '죽여지이다'는 '죽여 주십시오'에 해당하는 옛 청원형 어미다.

427. '의윤'은 議允/依允, 곧 임금이 신하의 청을 윤허(허락)함을 뜻한다.

428. '힝형'은 行刑(행형), 곧 형을 집행함이다. 초벌의 '한자 경전 공부 독려'는 오역이며, '한ᄌᆡ경'은 인물 이름 한자경이다.

429. '운치'는 도사 전우치(田禹治)를 가리킨다.

430. 'ᄉᆞ문(사문)'은 司門, 곧 관청 문을 뜻한다.

431. 'ᄂᆡ쇼(냉소)'는 冷笑로, 차갑게 비웃는다는 뜻이다.

432. '자현'은 自見(자현, 스스로 윗사람에게 나아가 뵘)으로, 신하가 임금이나 윗사람에게 자신을 알리고 알현을 청하는 말이다.

433. '정원'은 政院(승정원)으로, 왕명 출납을 맡은 관청. 여기서는 그 관원이 임금께 아뢴 것으로 옮김.

434. '상(上)'은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435. '환슐'은 幻術(환술), 곧 사람을 홀리는 요술·도술을 뜻한다.

436. '도쳐'는 到處(도처), 곧 가는 곳마다·곳곳을 뜻하며 '도리어'가 아니다.

437. '입시(入侍)'는 임금 앞에 들어가 뵙는 것을 뜻한다.

438. '복디(伏地)'는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임금에게 올리는 예이다.

439. '죄상'은 罪狀(죄상), 즉 지은 죄의 내용을 뜻한다. 초벌의 '족보'는 오역이다.

440. '부복'은 俯伏으로,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공손한 자세를 뜻한다.

441. '사자'는 使者로, 임금이나 윗사람의 명을 받아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442. '만ᄉᆞ무셕'은 萬死無惜(만사무석)으로,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뜻

443. '재조'는 才操(재주·재능)이며, 초벌의 '조상'은 오역임.

444. '앗겨'는 '아껴'(아끼다)로, '빼앗다'가 아님.

445. '죄를 사하고'의 '사'는 赦(용서할 사)로, 죄를 사면한다는 뜻임.

446. '선전관(宣傳官)'은 임금의 명령 전달 등을 맡은 무관직, '사복 내승'은 궁중의 말과 가마를 관리하던 사복시(司僕寺)의 관원 내승(內乘)이며, '제수(除授)'는 임금이 벼슬을 직접 내리는 것이다.

447. '사은(謝恩)'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 인사를 올리는 것이고, '입직(入直)'은 관아나 궁궐 안에서 숙직하며 근무하는 것이다.

448. '퇴치기'는 새로 부임한 관원을 골탕 먹이는 신고식 풍습으로, 여기서는 손에 잡은 도구(퇴)로 치는 놀이로 묘사된다. 운치가 그 도구를 무덤 앞 돌기둥인 망주석(望柱石)으로 몰래 바꿔 놓아 치는 이들의 손이 아프게 만든 것이다.

449. '허참'은 새로 부임한 관원이 동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던 신고식인 허참례(許參禮)를 말한다.

450. '슈월'은 數月(여러 달)로, 빠르게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몇 달이 흘렀다는 뜻이다.

451. '평명'은 平明으로 '날이 밝을 무렵, 동틀 녘'을 뜻하며, '평민(平民)'이 아님.

452. '백사정'은 白沙汀으로 흰 모래밭이 있는 물가, 곧 군사를 모으는 장소 이름. 초벌의 '백성들의 사정'은 오역임.

453. '졔진'은 齊進(齊集)으로 '가지런히 한곳에 모이다(집결하다)'의 뜻.

454. '션젼관'은 宣傳官으로, 왕명의 전달 등을 맡던 무관직.

455. '쥰총'은 駿驄(준총), 걸음이 빠른 좋은 말.

456. '반공의 쇼삿고'는 半空(반공, 공중)에 솟았다는 뜻으로, 초벌의 '바람에 흩날리고'는 오역.

457. 'ᄆᆞᆰ은 풍악'은 'ᄆᆞᆰ은 풍악'이며 초벌의 '말라버린 풍악'은 오역. '풍비(豐備)ᄒᆞᆫ 음식'은 풍성하게 갖춘 음식으로, '흩어진 음식'은 오역.

458. '무미(무미ᄒᆞ니)'는 無味로 '재미없다·흥이 없다'는 뜻이며, 초벌의 '가장 재미있으니'는 정반대로 옮긴 오역이다.

459. '무변'은 無變(변화가 없음)으로, 같은 놀이만 되풀이되어 단조롭다는 뜻이다. 초벌의 '끝도 없는'은 부정확하다.

460. '젼일'은 前日(예전·이전에)이며, '계집'은 친하게 지내던 여자(기녀 등)를 가리킨다.

461. '졔인'은 諸人(여러 사람)으로, 초벌의 '제자들'은 오역임.

462. '취즁'은 醉中(술에 취한 가운데)으로, 초벌의 '차례로'는 오역임.

463. 'ᄃᆞᆫ조ᄉᆞ'는 田道士(전 도사), 곧 전우치를 가리킨다.

464. 'ᄌᆡ죠ᄃᆡ로'는 才操대로, 곧 '재주껏'이라는 뜻이다.

465. '졔인'은 諸人(여러 사람)으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466. '다리고'는 '데리고'의 옛 표기이며, 초벌의 '달래고'는 오역이다.

467. '힝ᄉᆡ'는 行事(행사)로 '하는 일·행실'을 뜻함.

468. '죡히'는 足히(족히), 곧 '충분히·넉넉히'의 뜻이며 '조금'이 아님.

469. '뎐조ᄉᆡ'는 표음만으로는 한자를 단정하기 어려운 인물 호칭으로, 앞뒤 문맥에 따라 '전(田)'씨 인물의 직함(예: 좌수座首)일 가능성이 있어 우선 음대로 옮김.

470. '쳥말'·'쳥즁'은 도술로 부려진 졸개 무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이며, 표음 그대로 두었다. '쳥즁(청중)'은 우두머리 격을 뜻한다.

471. '졔인'은 諸人(여러 사람)으로, '제비'가 아니다.

472. '힝슈'는 行首(행수)로, 우두머리·좌상에 앉은 사람을 가리킨다.

473. '수청(守廳)'은 높은 사람 곁에서 시중을 들며 모시는 일로, 여기서는 떠나지 말고 곁에서 잘 섬기라는 뜻.

474. '션젼관'은 宣傳官으로, 조선시대 왕의 측근에서 명령 전달 등을 맡던 무관직.

475. '안히'는 '아내'다. 초벌의 '안채(內舍)'는 오역이며, 선전관들이 자기 아내를 알아보고 당황한 장면이다.

476. '심즁의 ᄃᆡ로ᄒᆞ여'는 心中 大怒하여, 곧 '마음속으로 크게 분노하여'.

477. '샹'은 床(상), 곧 잔칫상을 뜻한다.

478. '사관을 주다'는 사관(四關), 곧 양손의 합곡혈과 양발의 태충혈에 침을 놓는 응급 침술을 시행한다는 뜻이다. 초벌의 '사관을 돌보다'는 오역.

479. '방샹 통곡'은 방성통곡(放聲痛哭), 곧 목 놓아 큰 소리로 운다는 뜻이다. '방 안에서 통곡'이 아니다.

480. '부인 샹ᄉᆡ'는 부인 상사(夫人 喪事), 곧 부인이 죽은 일을 가리킨다.

481. '시비'는 侍婢(시비)로, 곁에서 시중드는 계집종을 뜻함.

482. '고 왈'은 告曰(고왈)로, '아뢰어 말하기를'의 뜻. 원문은 여기서 문장이 끊겨 종의 말 내용은 이어지는 대목에 나옴.

483. '별셰'는 別世로 '세상을 떠나다(죽다)'라는 뜻이며, 초벌의 '별일'은 오역이다.

484. '의복을 마르시다'는 옷감을 마름질(재단)하던 중이라는 뜻이다. '앗가'는 '아까'.

485. '부동(符同)하여'는 '한통속이 되어 결탁하다'라는 뜻으로, 초벌의 '전과 같은 놈을 불러들여'는 오역이다.

486. '사족(士族) 부녀'는 양반·명문가의 부녀를 뜻하며, 초벌의 '사소한 부녀자'는 오역이다.

487. '뎐가 놈'은 전가(田哥), 곧 전우치를 낮춰 부르는 말이다.

488. '허참(許參)'은 신임 관원이 동료들에게 베푸는 잔치를 가리키는 말로 보이며, '백사정(白沙汀)'은 그 잔치가 열린 장소다.

489. '노를 그치고'는 '노(怒)여움을 그치고', 즉 화를 가라앉혔다는 뜻이다. 초벌의 '화를 참지 못하고'는 반대 의미의 오역이다.

490. '이러 안즈며'는 '일어나 앉으며'로, 누워 있다가 몸을 일으켜 앉는 동작을 가리킨다.

491. '날 갓튼 부인'은 '나 같은 부인(나와 같은 처지의 부인들)'으로, '날씬한 부인'이 아님.

492. '노식을 띄여'는 怒色(노색, 노한 기색)을 띠는 것이며, '노랫소리'가 아님.

493. '슈쳥'은 守廳(수청)으로, 시중을 들거나 모시는 일을 뜻함.

494. '방샹 통곡'은 放聲痛哭(방성통곡), 즉 큰 소리 내어 통곡하는 것이며 '방 안에서'가 아님.

495. '남가일몽(南柯一夢)'은 한바탕 헛된 꿈을 뜻하는 고사성어.

496. '션젼관'은 宣傳官(선전관)으로 조선시대 무관 벼슬이며, '뎐션젼'은 이를 맡은 인물(전 선전관)을 가리킴.

497. '닙죠'는 入朝(입조), 곧 조정에 들어와 임금을 뵙는 것이다.

498. '셜치'는 雪恥(설치), 곧 부끄러움이나 원한을 씻어 없앤다는 뜻이다.

499. '션젼관'은 선전관(宣傳官)으로,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던 무관 벼슬이다.

500. '혜오ᄃᆡ'는 '헤아리되', 곧 '생각하기를'의 옛말이다.

501. '회과천선'은 改過遷善(회과천선)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길로 돌아선다는 뜻.

502. '천은(天恩)'은 임금이 베푼 은혜를 가리킴.

503. '사복마'는 司僕馬로, 궁중의 말과 가마를 관장하던 관청 사복시(司僕寺)의 말을 가리킨다. 초벌의 '신하와 종들'은 오역이다.

504. '신칙'은 申飭으로, 단단히 일러 단속하고 관리한다는 뜻이다.

505. '직사'는 職事, 곧 맡은 직무를 뜻한다.

506. '용맹이 과인하고'의 '과인'은 過人(남보다 뛰어남)으로, 임금 자칭 寡人이 아님.

507. '장계(狀啓)'는 지방관이 중요한 일을 임금에게 글로 올려 보고하던 문서.

508. '군긔, 뎐냥'은 軍器(무기)와 錢糧(군량·재물·곡식)으로 보아 옳김.

509. '출반(出班)'은 신하가 조정의 반열(班列)에서 앞으로 나서는 것을 뜻함.

510. '무지'는 無才(재주가 없음)로, 초벌의 '무례한 짓'은 오역임.

511. '텬은'은 天恩(임금이 베푸는 은혜), '금심'은 근심(근심·걱정).

512. '맛당ᄒᆞ믈'은 '마땅함을(옳음을)'이며, 초벌의 '맛있는 음식'은 오역임.

513. '쥬ᄒᆞᆫ뒤'는 '奏한대', 곧 임금에게 아뢴다는 뜻이며 '준다(給)'가 아님. '졔신'은 諸臣(여러 신하), '상(上)'은 임금을 가리킴.

514. '젹셰'는 賊勢(적의 세력·형세)이며, '신(臣)'은 신하가 임금에게 자신을 낮춰 이르는 말.

515. '동병(動兵)'은 군사를 일으켜 움직이는 것으로, 초벌의 '동료들과 함께 함'은 오역.

516. '탄비'는 探備(정탐하여 대비함)로 풀었다. 홀로 나아가 적정을 살펴 대비한 뒤 출병하자는 계책으로, 초벌의 '물리치고 돌아옴'과는 다르다.

517. '젹셰'는 賊勢(적의 형세·동태)로, 단순히 적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적의 정세를 탐지한다는 뜻.

518. '인검(印劍)'은 임금이 출정하는 신하에게 내리는 칼로, 군령을 어긴 자를 임금께 보고하지 않고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의 상징.

519. '젹셰 허실'은 敵勢虛實로, 적의 형세와 그 허(虛)·실(實)을 뜻한다. 초벌의 '옳고 그름'은 오역이다.

520. '군친'은 君親(임금과 부모)으로, 임금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521. '만분'은 萬分으로 '매우, 몹시'의 뜻이다.

522. '슈명'은 受命(명을 받음)으로, 초벌의 '뽐내며'는 오역이다.

523. '슈리되여'는 수리(매·솔개)로 변신했다는 뜻이며, 초벌의 '말하기를'은 슈리를 말(言)로 오해한 오역이다.

524. '경ᄉᆞ'는 京師로 임금이 있는 서울(도성)을 가리킨다.

525. 'ᄎᆡ의 홍상'은 彩衣紅裳, 곧 고운 빛깔의 옷과 붉은 치마를 말한다.

526. '일산(日傘)'은 귀인의 행차에 받쳐 드는 의장용 큰 양산이다.

527. '쇼를 십필만 잡고'는 '소(牛)를 십 필(十匹), 곧 열 마리 잡으라'는 뜻이다. '필(匹)'은 마소를 세는 단위이며, 초벌의 '천(布) 십 필'은 오역이다.

528. '장ᄉᆞ'는 將士(장수)로 보았다. 잔치를 베풀어 맞이하는 대상이고 큰 소를 잡는 정황으로 보아 각 도에 파견되었던 군사·장수로 옮겼다(商士=상인으로 보는 해석도 가능하나 문맥상 將士가 자연스럽다).

529. '명일(明日)'은 내일이라는 뜻이다.

530. '동구(洞口)'는 마을·골짜기 어귀를 뜻한다. 초벌의 '동쪽 성문'은 오역이다.

531. '무수(無數)한 수리'는 '수많은 독수리'라는 뜻이다. 초벌의 '무슨 수리'는 오역이다.

532. '차일(遮日)'은 햇볕을 가리려 치는 천막이다. 초벌의 '채소'는 오역이다.

533. 원문에 '똥물도 토하는지라'라고 명시되어 있어, 단순한 '구토'가 아니라 '똥물을 토했다'로 옮겼다.

534. '사시(巳時)'는 오전 9~11시, '오시(午時)'는 오전 11시~오후 1시로, 두 시간 남짓 소란이 이어졌다는 뜻이다.

535. '◯◯◯물'은 원문에 글자가 결락된 부분이라 ▣▣▣로 표시했다.

536. '솔발'은 군사를 불러 모으거나 호령할 때 흔드는 작은 방울로, 초벌처럼 음만 옮길 것이 아니라 의미를 살려야 함.

537. '고히ᄒᆞᆫ ᄌᆡ변'은 怪異한 災變(괴이한 재변), 곧 기이한 재앙·변고를 뜻하며, 초벌의 '높이 소리쳐'는 오역.

538. '문죨'은 門卒(문지기 군졸)로, 초벌의 '문중 어른'은 오역.

539. '일원 대장'의 '일원(一員)'은 '한 명의'라는 뜻으로, 장수 한 사람을 가리킨다.

540. '졍창 츌마'는 挺槍出馬로, 창을 꼬나잡고 말을 타고 나서는 것이다. 인명이 아니다.

541. 'ᄃᆡ호'는 大呼(크게 외침)로, 인명이 아니다.

542. '둔취(屯聚)'는 무리를 모아 한곳에 진을 친다는 뜻으로, '둔하게 행동한다'는 풀이는 오역이다.

543. '성명(性命)'은 목숨을 뜻한다.

544. '순수(順受)'는 거역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545. '응현슌인'은 應天順人(응천순인)으로,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백성)의 뜻에 따른다'는 뜻이다. 무도한 군주를 치는 명분으로 쓰이는 관용구이며, 초벌의 '현명한 선비'는 오역이다.

546. '장ᄎᆞᆺ'은 將次(장차/이제), '감시'는 '감히'의 옛 표기다.

547. '냥ᄆᆡ 교봉'의 '냥ᄆᆡ'는 두 마리 매(兩-)가 아니라 양쪽 장수(兩-)를 가리키며, '교봉(交鋒)'은 칼날을 맞대고 싸운다는 뜻이다.

548. '냥회'는 두 마리 매(兩-)로, 빈 산에서 먹이를 다투는 매의 비유이다. 초벌의 '밥을 짓다'는 '밥(먹이)을 다투다(닷토며)'의 오역이다.

549. '징을 쳐'의 '징'은 군사를 거둘 때 울리는 타악기로, 초벌의 '깃발을 쳐서'는 오역이다.

550. '졀뉸'은 絶倫으로, 견줄 데 없이 뛰어나다는 뜻이다.

551. '경젹'은 輕敵으로 적을 가볍게 보는 것을 뜻하며, 초벌의 '경계를 늦추다'와는 다르다. '경적지 마르쇼셔'는 '적을 얕보지 마십시오'라는 뜻이다.

552. '쇼'는 笑(웃음)로, '연준이 웃으며 말했다'로 옮김. '쇼 왈(笑曰)'은 '웃으며 말하다'라는 관용 표현.

553. '운치'는 등장인물 전우치(田禹治)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초벌의 '기세'는 오역임.

554. '대호(大呼)'는 큰 소리로 외친다는 뜻이다.

555. '출◯'은 원문 글자가 훼손되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진문을 열고 나온 정황상 출전(出戰)·출마(出馬)로 보아 '나와'로 옮겼다.

556. 원문 '뎐운치 썰니 나와'는 '전우치는 빨리 나와서'라는 명령으로, 초벌의 '팔을 뻗으며'는 오역이다.

557. 원문 가운데 '◯◯◯' 부분은 판본에서 글자가 결락·판독 불가하여 그대로 두었다.

558. '대로'는 大怒(크게 성냄)이며, 초벌의 '대회'는 오역이다.

559. '◯◯'는 원문이 훼손된 결자(缺字)로, 뒤의 '내몰아'와 문맥상 '말(馬)'로 추정해 옮겼다.

560. '일호 차착'은 一毫差錯으로, '털끝만 한 어긋남(빈틈)도 없다'는 뜻이다.

561. '삼십여 합'은 三十餘 合, 즉 서른 남짓한 합으로 초벌의 '서른 합'보다 정확히 '여(餘)'를 살렸다.

562. '졍몸'은 正몸(정몸), 곧 진짜 몸이고 '거즛몸'은 거짓 몸, 곧 분신·허상이다. 도술로 자기 몸을 둘로 나눈 장면이다.

563. '염쥰'은 인명 '염준'으로 보이며, '대적(對敵)하게 하다'는 맞서 싸우게 한다는 뜻이다. 초벌의 '염주를 맞힐 듯이'는 오역이다.

564. '살싱'은 殺生(살생, 죽임)으로, 초벌의 '평생을 잘못 살다'는 오역임

565. '죨연'은 猝然(졸연), 즉 '갑작스럽게·함부로'의 뜻

566. '싱금'은 生擒(생금), 산 채로 사로잡는다는 뜻이며 '살려두다'와는 다름

567. 앞·뒤·좌우·머리 위에 동시에 나타나는 '운치'는 모두 전우치가 도술로 만들어 낸 분신이다. '검광'은 劍光(칼빛).

568. '거즛 운치'는 '거짓 운치' 곧 진짜 운치가 만들어 낸 가짜 분신이다. 초벌의 '거침없이'는 오역이며, 군사를 호령한 것은 이 가짜 분신이다.

569. '숀을 뭇거 항복'은 '손을 묶어(결박하고) 항복함'으로, 초벌의 '혼비백산'은 오역이다. '장졸'은 장수와 군졸 모두를 가리킨다.

570. '계하'는 階下(섬돌·뜰 아래), '효유'는 曉諭(알아듣게 타이름)이다. 초벌의 '계책으로 꾀어내어'는 오역이다. '충살'은 衝殺(말을 달려 들이쳐 무찌름).

571. '만사무석'은 萬死無惜으로,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572. '사하다'는 赦(사면하다)로,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다.

573. '양민'은 良民으로, 죄 없이 생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백성을 뜻한다.

574. '고두재배'는 叩頭再拜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두 번 절하는 것이다.

575. '장자방'은 한나라의 책사 장량(張良)의 호 子房이다. 해하 싸움에서 계명산에 올라 퉁소로 초나라 노래를 슬피 불어, 항우를 따르던 강동의 8천 병사가 고향을 그리워해 사기를 잃고 흩어지게 했다는 고사를 가리킨다.

576. '흣터짐'은 '흩어짐'으로,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다. 초벌의 '눈물을 흘리던'은 오역이다.

577. '여셩 ᄃᆡ민'는 厲聲大罵(여성대매)로, '사나운 소리로 크게 꾸짖다'라는 뜻. 초벌의 '대하의 뜻을 따르느냐'는 오역.

578. '노하'는 '놓아(풀어 주다)'의 뜻으로, 미녀들을 풀어 집으로 돌려보낸 것. 초벌의 '노략질'은 오역.

579. '장ᄃᆡ'는 將臺(장대)로, 장수가 군사를 지휘하던 높은 대(臺). '대하(臺下)'는 그 대 아래를 가리킨다.

580. 원문의 '염쥰○'에서 ○는 판독되지 않는 글자이나 문맥상 '염쥰을(염준을)'로 보았다.

581. '갈츙ᄉᆞ군'은 竭忠事君(갈충사군)으로 '충성을 다해 임금을 섬김'이라는 뜻이다.

582. '영춍'은 榮寵(영총), 곧 임금이 내리는 영화로운 은총을 가리킨다. '영웅'이 아니다.

583. '쇼요케'는 騷擾(소요)로 '소란하게·어지럽게 함'을 뜻한다.

584. '요ᄃᆡ'는 饒貸(요대)로 '죄를 너그럽게 용서함'을 뜻한다.

585. '원문'은 轅門(군영의 문)으로, 군대 진영의 출입문을 뜻한다.

586. '참하라'는 斬(목을 벰)으로, 참형에 처하라는 명령이다.

587. '쇼장'은 小將으로, 부하 장수가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588. '이삼죡'은 夷三族(이삼족)으로, 죄인의 삼족(친가·외가·처가)을 모두 죽이는 옛 형벌을 뜻한다. 초벌의 '이삼 몪'은 오역.

589. '호생지덕(好生之德)'은 살아 있는 것을 아껴 함부로 죽이지 않는 어진 마음을 이른다.

590. '긔과쳔션'은 改過遷善(개과천선)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고 착하게 됨을 뜻한다. 초벌의 '깨달음을 얻어 나아감'은 오역이다.

591. '파적(破賊)'은 도적·반적을 무찔러 평정함을 뜻하며, 초벌의 '파격적인 재주'는 오역임.

592. '수말'은 首末(=전말), '자초지종'은 自初至終으로, 둘 다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위를 가리킴. 초벌은 이를 '운치와 자취'로 잘못 옮김.

593. '인견(引見)'은 임금이 신하를 불러 만나봄, '상사(賞賜)'는 상으로 내려 줌을 뜻함.

594. '오운'은 五雲(오색구름)으로, 우치가 도술로 타고 다니는 구름이다. 초벌의 '좋은 운수'는 오역.

595. '황건역사(黃巾力士)·이매망량(魑魅魍魎)·신장(神將)'은 우치가 도술로 부리는 귀신·신병들을 가리킨다.

596. '쇽이다'는 속이다(欺)이며, 초벌의 '속죄'는 오역. 우치가 선전관들을 다시 골탕 먹이려 한 것이다.

597. '사경(四更)'은 새벽 1~3시 무렵을 가리킨다.

598. '션젼관'은 선전관(宣傳官)으로, 조선 시대 왕명 출납과 호위 등을 맡던 무관 벼슬이다.

599. '쳥녕'은 聽令(명령을 받들어 따름)으로, 초벌의 '평온하게'는 오역이다.

600. '구름교의'의 '교의'는 交椅(의자·걸상)이며, '안고'는 '앉고'다. 초벌의 '구름과 안개를 품에 안고'는 오역이다.

601. '버려 세우고'는 '벌여 세우고'(좌우로 늘어세움)이지 버려둔다는 뜻이 아니다.

602. '녀셩'은 厲聲(소리를 엄하게 높임)으로, '여성(女性)'이 아니다.

603. '황건녁ᄉᆞ'는 黃巾力士(황건역사)로, 도술로 부리는 신장(神將)·역사를 뜻한다. '황건적(黃巾賊)'이 아니다.

604. '잡아드리라'는 '잡아들이라'(붙잡아 끌어오라)의 옛 표기다.

605. '녁ᄉᆞ'는 力士(역사), 곧 힘센 장사·병졸을 가리킨다. 초벌의 '낮과 밤'은 오역.

606. '청녕'은 聽令(청령)으로 '명령을 받듦'이며, '청명(淸明)'이 아니다.

607. '나입'은 拿入(나입)으로 죄인을 '잡아들임'을 뜻하는 관아 용어다.

608. '운치'는 인물 이름 전우치(田禹治)를 가리킨다.

609. '대매(大罵)'는 크게 꾸짖는다는 뜻으로, 초벌의 '크게 외치다'보다 '큰 소리로 꾸짖다'가 정확하다.

610. '귀왕(鬼王)'과 '신장(神將)'은 저승·도술 세계의 우두머리 귀신과 신령한 장수를 뜻한다.

611. '천상 벼ᄉᆞᆯ'은 天上 벼슬, 곧 하늘에서 맡은 관직을 뜻한다. 초벌의 '천상 별사'는 오역이다.

612. '풍도옥(酆都獄)'은 도교에서 죽은 자의 죄를 다스리는 지옥을 가리킨다.

613. '고힝'은 苦行(괴로운 형벌·고난)이며, '만모(慢侮)'는 거만하게 남을 업신여김을 뜻한다. 초벌의 '높은 지위를 버리고 사람을 만나던 옛 시절을 후회하게 하리라'는 원문에 없는 오역이다.

614. '녁ᄉᆞ'는 力士(역사), 곧 힘센 장수·장사를 뜻한다.

615. '압녕'은 押領(압령)으로, 죄인을 붙잡아 호송한다는 뜻이다.

616. '풍도옥'은 酆都獄으로, 도교에서 말하는 저승 감옥(지옥)이다.

617. '업츅이'는 業畜(업축)으로, 전생의 업보 때문에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팔만 겁이 지난 뒤 짐승으로 환생시켜 내보내라는 뜻이며, 초벌의 '업보를 매만져'는 오역이다.

618. '팔만겁'은 八萬劫으로,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을 뜻한다.

619. '선전관(宣傳官)'은 조선 시대 왕명 출납과 호위 등을 맡던 무관직

620. '암믜'는 暗昧(암매)로,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음을 뜻함.

621. '동뇨지의'는 同僚之義(동료지의)로, 같은 동료로서의 정의(情誼)를 뜻함.

622. '풍도'는 酆都로, 도교에서 죄인을 다스리는 저승·지옥을 가리킴.

623. '고렴'은 顧念(돌이켜 생각함)으로, 지난 정분을 생각한다는 뜻. 초벌의 '고함을 격하게'는 오역.

624. '십분 안셔'는 十分 安徐로 '한껏 늦추다(처분을 미루다)'의 뜻. 초벌의 '마음을 놓지 못했다'는 오역.

625. '일후'는 日後(뒷날, 나중).

626. '션젼관'은 宣傳官(선전관)으로, 조선 시대 왕명 전달·호위 등을 맡던 무관 벼슬이다. '선견지명'이 아님.

627. '남가일몽'은 南柯一夢으로, 한바탕 헛된 꿈을 뜻하는 고사성어다.

628. '여출일구'는 如出一口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 입에서 나온 듯 똑같다는 뜻이다.

629. '운치'는 주인공 전우치(田禹治)를 가리킨다. '운치(韻致)'가 아님.

630. '차설(且說)'은 옛 소설에서 화제를 돌릴 때 쓰는 상투어로 '한편', '그런데'에 해당한다.

631. '호판'은 호조판서(戶曹判書), 즉 국가 재정을 맡은 호조의 으뜸 벼슬을 줄여 부른 말이다.

632. '젼일'은 前日(지난번, 이전)로, '어제'가 아니라 막연한 과거 시점을 가리킴.

633. '출반'은 出班으로, 신하가 조정의 반열(班列)에서 앞으로 나서는 것을 뜻함.

634. 'ᄌᆡ변'은 災變(재해와 변고)으로, 초벌의 '재산'은 오역임.

635. '탑젼'은 榻前(임금이 앉은 자리 앞)으로, 임금께 아뢰는 것을 가리킴.

636. '의윤'은 依允으로, 임금이 신하의 청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인명이 아니다.

637. '호판'은 戶判(호조판서), '호죠'는 戶曹, '고문'은 庫門(창고 문)을 가리킨다.

638. '예ᄃᆡ로'는 '예대로', 곧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라는 뜻이다.

639. '번고(番庫/反庫)'는 창고의 물건을 꺼내어 조사·점검하는 일을 뜻한다.

640. '쳥ᄀᆡ고리'는 청개구리이며, 초벌의 '청구(靑丘)'는 오역이다. 전우치가 은을 개구리로 둔갑시킨 도술과 관련된 장면이다.

641. '고히'는 怪異(괴이함)로, '아름답다'가 아니다.

642. '의구ᄒᆞ엿고'는 依舊(예전과 같음, 변함없음)이며, 초벌의 '의심스럽다'는 오역임.

643. '영문의 군긔'는 營門(군영)의 軍器(병기·무기)로, '나라의 군사력'이 아님.

644. '탑젼(榻前)'은 임금이 앉은 자리 앞, 곧 임금 앞을 뜻함.

645. '작변(作變)'은 변고·조화를 일으킴이라는 뜻으로, 운치가 요술을 부려 소동을 일으킨 일을 가리킴.

646. '간의대뷔'는 諫議大夫(임금에게 옳은 말로 간하는 일을 맡은 벼슬)에 주격조사가 붙은 '간의대부가'이다. 초벌의 '간의를 만드는 기구'는 오역이다.

647. '엿ᄌᆞ오ᄃᆡ'는 윗사람(임금)께 아뢴다는 뜻의 '여쭈되'이다.

648. '호셔'는 湖西로, 충청도 지방을 가리키는 말. 초벌의 '보소서'는 오역.

649. '둔취'는 屯聚(둔취), 즉 한곳에 무리 지어 모임. 초벌의 '둔갑'은 오역.

650. '사오인'은 四五人(네댓 사람)이며, '신'은 臣으로 임금에게 보고하는 신하의 자칭. '고자/고ᄌᆡ'는 告者로 역모를 고발한 사람.

651. 여기서 '과인'은 임금이 자신을 낮춰 부르는 寡人(과인)이다. '박덕(薄德, 덕이 부족함)'과 함께 쓰여 임금의 자책으로, 일반적 함정인 過人(남보다 뛰어남)이 아니다.

652. '봉긔'는 蜂起(봉기)로, 벌 떼가 한꺼번에 날아오르듯 도적이 사방에서 일어남을 뜻한다.

653. '금부'는 의금부(義禁府), '포쳥'은 포도청(捕盜廳)으로 둘 다 죄인을 다스리던 관청.

654. '친문'은 親問, 임금이 죄인을 직접 신문(訊問)하는 것.

655. '만사무석'은 萬死無惜으로,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뜻이다. 큰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하다며 처벌을 각오할 때 쓰는 말이며, '만사가 헛수고'라는 뜻이 아니다.

656. '진정(鎭定)'은 어지러운 백성·정세를 가라앉혀 안정시킨다는 뜻이다.

657. '쵸ᄉᆞ(招辭)'는 죄인의 진술·자백을 뜻하며, '역적 초사에 올랐다'는 것은 역적 사건의 진술 가운데 운치의 이름이 거명되었다는 의미.

658. '문사낭청(問事郎廳)'은 죄인을 신문하는 일을 맡아보던 임시 관직.

659. '모역'은 謀逆(반역을 꾀함)이다.

660. '쵸ᄉᆞ'는 招辭(초사)로 죄인이 신문받으며 진술한 공초·자백을 뜻하며, 초벌의 '초상'은 오역이다.

661. '형구(刑具)'는 죄인을 다스리는 형벌 기구, 곧 형틀을 뜻함.

662. '하괴'는 '하교(下敎)하여 가로되', 즉 윗사람이 명을 내려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는 죄인을 꾸짖는 호령으로 옮김.

663. '사ᄒᆞ고'는 赦(사면하다·용서하다)가 아니라 문맥상 '재주를 높이 산다'는 뜻으로, 죄를 사하고가 아님. 다만 원문 '네 죄를 사ᄒᆞ고'는 '네 죄를 사면하고'로도 읽을 수 있어, 여기서는 재주를 높이 산 것으로 옮김

664. '역뉼(역률, 逆律)'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법률, 즉 역모죄를 뜻함

665. '발명(發明)'은 죄나 잘못이 없음을 변명하여 밝힌다는 옛 법률 용어로, 오늘날의 발명(發明, invention)이 아님

666. '나졸(羅卒)'은 관아에 딸려 죄인을 다루던 하급 병졸로, 초벌의 '나(我)'는 오역임.

667. 'ᄒᆞᆫ ᄆᆡ에'는 '한 매에', 곧 매질 한 번(매=笞/杖)으로 단번에 죽이라는 뜻이다. 초벌의 '한 달 뒤에(月)'는 오역으로, 시간이 아니라 매질의 횟수를 가리킨다.

668. '나졸'은 나졸(羅卒)로, 관아에서 죄인을 다루던 하급 군졸이다. 초벌의 '나조차(나마저)'는 오역이다.

669. '운치'는 주인공 전우치를 가리킨다.

670. '젼후 죄샹'은 前後罪狀(앞뒤의 죄상), 곧 그동안 지은 죄들을 뜻함.

671. '역률(逆律)'은 역모·반역에 적용되는 형률(刑律)로, 여기서는 반역죄로 다스려지는 일을 가리킴.

672. '모해'는 謀害로, 남을 해치려고 꾀함을 뜻한다. 초벌의 '미워하다'나 '닮다(모히→某似 등)'로 본 것은 오역이다.

673. '애닯지 아니하리오'는 '어찌 애달프지 않겠는가'라는 영탄 표현으로, 슬프고 안타깝다는 뜻이다.

674. '복원'은 伏願(엎드려 바라옵건대)으로, 임금에게 간청할 때 쓰는 말.

675. '셩상'은 聖上으로, 임금을 높여 부르는 말.

676. '혜오시되'는 '헤아리다·생각하다'(혜오다)의 활용형으로, '말씀하시되'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헤아려 생각하시기를'의 뜻이다.

677. 'ᄌᆡ죄'는 才操(재주)이며, 초벌의 '재앙'은 오역임.

678. '즘싱'은 '짐승'(獸)으로, 초벌의 '물고기'는 오역임.

679. '명홰'는 名畵(명화, 뛰어난 그림)로 옮겼으며, 단순한 '명성'이 아님.

680. '쵸목'은 草木(초목, 풀과 나무), '원혼'은 冤魂(원통하게 죽은 넋).

681. '만학천봉(萬壑千峰)'은 첩첩이 겹친 수많은 골짜기와 봉우리를 뜻하고, '만장(萬丈)'은 만 길로 매우 높음을 가리킨다.

682. '사배(四拜)'는 임금 앞에서 네 번 절하는 큰절로, 신하의 예법이다.

683. 'ᄉᆞ뷔'는 謝罪(사죄)로, 잘못을 빌어 용서를 구한다는 뜻.

684. '텬안(天顔)'은 임금의 얼굴을 높여 이르는 말로, 임금 앞을 물러난다는 뜻

685. '쇼화'는 燒火(불태움)로, 그림을 불태우라는 뜻이다.

686. '지만'은 遲晩으로, 죄인이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을 뜻하는 옛 법률 용어다.

687. '쳔금샹'은 千金賞(천금의 상)이다.

688. '대경(大驚)'은 크게 놀란다는 뜻으로, 초벌의 '크게 꾸짖으며'는 오역이다.

689. '하면목'은 何面目(무슨 면목, 무슨 낯)으로, 초벌의 '목이 잘린 채로'는 오역이다.

690. '사후(ᄉᆞ후)'는 死後(죽은 뒤)를 뜻한다.

691. '일장대책'은 一場大責으로 '한바탕 크게 꾸짖음'을 뜻한다. 초벌의 '한바탕 대화'는 오역.

692. '물색'은 物色으로 여기서는 '경치'를 뜻한다.

693. '남긔 올나 자항하려'는 '나무에 올라가(남긔=나무에) 스스로 목을 매려 한다'는 뜻이다. 뒤에 '매인 것을 풀고 손발을 주물러 회생(回生)시켰다'는 서술과 호응한다. 초벌의 '달을 따라', '남쪽 언덕에 올라 자려고'는 모두 오역.

694. '화상'은 和尙으로 승려를 이르는 말. '중놈'은 그 화상을 낮잡아 부른 것이다.

695. '과거하여 수절'은 寡居(과부로 지냄)하며 守節(절개를 지킴)한 것으로, 과거 시험 급제가 아니다.

696. '재(齋)를 올리다'는 죽은 이의 명복을 비는 불교식 천도 의식을 말한다.

697. '신지무의'는 信之無疑로 '그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음'이다.

698. '불측지심'은 不測之心으로 헤아릴 수 없이 음흉하고 나쁜 마음을 뜻한다. '겁칙'은 강제로 욕보임(겁탈), '훼절(毁節)'은 절개를 더럽힘이다.

699. 'ᄐᆡ슈'는 太守(태수, 지방 고을의 수령)로, 초벌의 '태사'는 오역이다.

700. 'ᄃᆡ희'는 大喜(크게 기뻐함)이며, 초벌의 '크게 꾸짖으며'는 오역이다.

701. '경ᄉᆞ'는 京師(경사), 곧 도성·서울을 뜻한다.

702. '친국'은 親鞫으로, 임금이 직접 죄인을 신문하는 일이다.

703. '졍원이 쥬ᄒᆞ되'는 政院(승정원)이 奏하되, 곧 '승정원이 아뢰되'이다. 초벌의 '정원이 주도하여'는 오역이다.

704. '포도긔찰'은 포도청의 기찰(譏察) 포교, 즉 죄인을 잡고 살피던 관원이다.

705. '삼빅뉵십일'은 三百六十一(361명)으로, 초벌의 '311명'은 오역.

706. '요슐'은 妖術(요술). 초벌의 '세력이 막강하다'는 오역으로, 잡혀 온 자들이 모두 전우치가 요술로 만든 가짜라는 뜻.

707. '쳐치'는 處置(처리·처분)이며, '쳐치ᄒᆞ시믈 싱각지 못ᄒᆞ실ᄉᆡ'는 임금이 노했으나 어떻게 처리할지 방도를 떠올리지 못했다는 뜻. 초벌의 '처벌을 내릴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때'는 오역.

708. '쥬(쥬 왈)'는 奏(임금께 아뢰다)이며, 초벌의 '주저하며'는 음만 보고 잘못 옮긴 것.

709. '일흘'은 '잃을(놓칠)'의 뜻으로, 초벌의 '닷새(머무름)'는 오역이다. '이번에도 (전우치를) 놓칠까 염려된다'는 의미.

710. '진가'는 眞假(진짜와 가짜)이며, '물론하고'는 勿論하고(가리지 말고)의 뜻이다.

711. '불측'은 不測(헤아릴 수 없음), '념녜'는 念慮(염려)다.

712. '십ᄌᆞ각(십자각)'은 궁궐 성벽 모서리에 세운 망루 형태의 누각으로, 여기서는 임금이 그 위에 자리를 잡고 처형을 지켜보는 장소.

713. '젼좌(전좌)'는 임금이 정사나 의식을 위해 자리에 나와 앉는 것을 뜻함.

714. '모든 전운치'는 전우치가 도술로 자신의 분신을 여럿 만들어 낸 상황을 가리킴.

715. '도승지(都承旨)'는 조선시대 승정원의 으뜸 벼슬로,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고 보고를 맡던 정삼품 관직이다.

716. '왕연희'는 사람 이름(인물)이며, 초벌의 '왕의 연회'는 오역임. 전우치전에 등장하는 인물 왕연희를 가리킴.

717. '무죄'는 無罪(죄 없음)이며, 초벌의 '무지(無知)'가 아님.

718. 'ᄋᆡ미'는 曖昧로, 여기서는 '억울한·애꿎은'의 뜻이며 '어리석은'이 아님.

719. '됴신'은 朝臣(조정 신하)이며, 'ᄌᆞᆼᄉᆞ'는 宗社(종묘사직)임.

720. '젹신'은 賊臣(역적·반역하는 신하)으로, 초벌의 '적군'이 아님.

721. '친국'은 親鞫으로, 임금이 직접 죄인을 신문하는 일이다.

722. '왕연희'는 사람 이름으로, 전우치가 둔갑한 대상인 신하(왕공)이다. '왕의 연회객'이 아니다.

723. '가내인(家內人)'은 집안사람들을 뜻하며, '가녀린 여인'이 아니다.

724. '왕공(王公)'은 왕연희를 높여 부른 말이고 임금이 아니다. '왕부'는 왕연희의 집(府)을 가리킨다.

725. '수작(酬酌)'은 말을 주고받는다는 뜻이고, '동관(同官)'은 같은 관아의 동료 관리를 뜻한다.

726. '쇼인 등'은 小人들로, 신분 낮은 이가 자신을 낮춰 '저희'라 이르는 말이다. 초벌처럼 '등'을 목적어(무리)로 본 것은 오역이며, 여기서 '등(等)'은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다.

727. '상공(相公)'은 재상이나 귀인을 높여 부르는 말로, 여기서는 섬기는 주인을 가리킨다.

728. '앗가'는 '아까(방금, 조금 전)'이며, 초벌의 '아가(아이)'는 오역임.

729. '낭ᄌᆞ히'는 狼藉(낭자)으로 어수선하고 흩어진 모양을 뜻하나, 여기서는 거리낌 없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가리킨다.

730. 'ᄃᆡ로'는 大怒(대로, 크게 노함), 'ᄃᆡ믜'는 大罵(대매, 큰 소리로 꾸짖음)로 보아 옮겼다.

731. '우엔 놈'은 '어디서 온 놈, 어떤 놈'이라는 뜻으로, 상대의 근본을 따져 묻는 욕설 섞인 표현이다.

732. '변괴(變怪)'는 괴이하고 해괴한 변고를 뜻하는 한자어다.

733. '가위 슈지오지자웅'은 한자 성어 可謂 誰知烏之雌雄으로, '가히 까마귀의 암수를 누가 알겠는가 할 만하다'는 뜻. 사물이나 사태를 도무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734. '젼일(前日)'은 '어제'가 아니라 '예전에·지난날'의 뜻.

735. '인형(人形)'은 만든 인형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모습'을 가리키며, 요물이 둔갑해 꾸민 인간의 모습을 뜻함. '쓰지 못한다'는 그 모습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는 의미.

736. '쥬ᄉᆞ'는 朱砂(주사), 붉은 광물성 안료이자 도가에서 부적·도술에 쓰는 재료다. 초벌의 '술(酒)'은 오역.

737. '동혀'는 '동여(묶어)'의 옛 표기로, 초벌의 '뭉쳐'는 오역임.

738. '가도고'는 '가두고'(가두다)이며, 'ᄌᆡ희라'는 '지켜라'라는 명령으로, 초벌의 '가서 잘 지켜보자'는 오역임.

739. '청녕'은 聽令(명령을 받듦)으로, 노복들이 명을 따랐다는 뜻이다. 초벌의 '청렴·강직'은 오역.

740. '여호'는 여우(狐)다. 초벌의 '호랑이'는 오역.

741. '가위'는 可謂(가히 ~라 이를 만함)이다. '즘싱의 모양이오 ᄉᆞ룸의 속'은 겉모습은 짐승이지만 속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초벌의 '죽어가는 사람'은 오역.

742. '운치'는 주인공 전우치(田禹治)를 가리킨다.

743. 'ᄉᆞ경'은 四更(사경)으로,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셋째 시각인 새벽 1~3시경을 가리킨다.

744. '왕공'의 '공(公)'은 임금이 아니라 재상·귀인을 높여 부르는 말로, 왕씨 성을 가진 귀인을 가리킨다.

745. '날노 더부러'는 '나로(나와) 더불어'로, 초벌의 '날마다'는 오역임.

746. '요공'은 邀功으로, 공을 세워 나라에 인정받거나 상을 바라는 것을 뜻함.

747. '살싱'은 殺生(산 것을 죽임), 'ᄉᆞᄒᆞᄂᆞ니'는 '사(赦)하나니' 곧 용서한다는 뜻임.

748. '텬공'은 天工(하늘의 솜씨)으로, 상대의 신묘한 재주를 하늘에 빗대어 높인 표현이다.

749. '무슈'는 無數(수없이·여러 번)로, '무엇'이 아니다. 거듭 사례한다는 뜻이다.

750. '여ᄎᆞ여ᄎᆞ(如此如此)'는 '이러이러하게'라는 뜻으로,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줄여 표현한 상투어임.

751. '양노(兩奴)'는 두 명의 종을 가리킴.

752. '진언(眞言)'은 도술을 부릴 때 외우는 주문을 뜻한다.

753. '대책(大責)'은 크게 꾸짖는다는 뜻으로, 초벌의 '크게 외쳤다'와 달리 화상(그림 속 인물)을 책망하는 장면이다.

754. '만ᄉᆞ유경'은 萬死猶輕(만사유경)으로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다', 곧 죄가 지극히 무겁다는 뜻이다. 초벌의 '모습이 망측하다'는 오역이며, 원문은 '그 죄가(그 죄) 만사유경'이라 하여 죄의 무거움을 말한다.

755. 'ᄌᆞ쳐지경'은 自處之境(자처지경)으로, '자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자결)을 뜻한다. 여인이 자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며, 초벌의 '도를 잃을 뻔'은 오역이다.

756. '즁싱'은 승려(僧)를 가리키며, 불도를 닦아야 할 출가자라는 뜻으로 쓰였다.

757. '족ᄌᆞ'는 簇子(족자)로, 그림이나 글씨를 표구해 걸거나 말아 두는 두루마리다. 초벌의 '축구'는 오역.

758. '닷토아'는 '다투어'로, 서로 앞다투어 보려 한다는 뜻이다.

759. 원문 '족ᄌᆞ'는 '쥬ᄌᆞ(麈子, 부채/먼지떨이류)'를 옮긴 표기로 부채를 가리키며, '명홰'는 名畫(명화)로 천하의 빼어난 그림이라는 뜻이다.

760. '명홰'는 名畵(명화), 즉 뛰어난 그림을 뜻하며 명성(名聲)이 아니다. 그림을 평하는 문맥이다.

761. '물졍'은 物情(물정)으로,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나 사물의 이치를 뜻한다.

762. '은ᄌᆞ'는 銀子(은자), 곧 은으로 만든 돈을 가리킨다.

763. '그림보다가ᄂᆞᆫ 갑시 젹다'는 '그림 값에 비하면 (오십 냥은) 오히려 적다', 즉 그림이 그만큼 값나간다는 뜻이다. 초벌의 '직접 보는 것이 값보다 귀하다'는 오역이다.

764. '텬향국색'은 天香國色으로, 나라에서 으뜸가는 빼어난 미모를 뜻함.

765. '졀대가인'은 絶代佳人으로, 세상에 견줄 이 없는 미인을 뜻함.

766. '죡ᄌᆞ'는 族子(족자), 즉 같은 일가붙이·친족을 뜻하며 직계 조상이 아님.

767. 'ᄂᆡᆼ쇼'는 冷笑(냉소), 즉 차갑게 비웃음이며 초벌의 '내생'은 오역임.

768. '화격(畵格)'은 그림의 품격·격조를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그림 솜씨의 수준을 가리킨다.

769. '가마니'는 '가만히'(조용히)이며, 곡식을 담는 '가마니'가 아니다.

770. '동자'는 童子로, 심부름하는 사내아이를 뜻한다.

771. '다리고'는 '데리고'(동반하다)이며, 초벌의 '달래고'(어르다)는 오역이다.

772. '션낭'은 仙娘(선녀)으로, 그림 속에서 불려 나와 술시중을 드는 여인이다. 초벌의 '선생'은 오역.

773. '운치'는 주인공 전우치(田禹治)를 가리킨다.

774. '쥬미 감열'은 酒味甘洌, 곧 술맛이 달고 시원하다는 뜻.

775. '졔인/졔싱'은 諸人·諸生으로 자리에 함께한 여러 사람(선비)을 뜻한다.

776. '쥬션낭'은 '조선 낭자'가 아니라 술을 따르는 여인을 뜻하는 酒仙娘(주선낭)으로, 술시중을 드는 인물을 가리킴.

777. '낫부니'는 '나쁘니'가 아니라 '모자라니/부족하니'의 뜻.

778. '가마니'는 '가만히'(조용히, 몰래)이며 곡식 자루를 뜻하는 '가마니'가 아님.

779. '쥬션낭'은 인명 '주선낭'으로, 초벌의 '쥔 낭자'는 오역임.

780. '낫부니'는 '모자라다/부족하다(낫브다)'의 뜻으로, 술맛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술이 부족하다는 의미임.

781. '일비식'은 一杯式(한 잔씩)으로, 한 입씩이 아니라 잔 단위로 마신 것임.

782. '졔싱'은 諸生(여러 서생·유생들)을 가리킴.

783. '존공(尊公)'은 상대를 높여 부르는 말로 '어르신', '귀하신 분'의 뜻.

784. '죡ᄌᆞ'는 簇子(족자), 곧 글씨나 그림을 표구해 벽에 거는 두루마리 형태의 물건이다. 초벌의 '조각'은 오역.

785. '갑'은 값(價)이며, 초벌의 '갑옷'은 오역이다.

786. '오생(吳生)'은 오씨 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이다.

787. '쥬션낭'은 酒仙郞(술의 신선)으로, '조선의 선비'가 아님.

788. '은자 쳔 냥'은 銀子 千兩(은 천 냥).

789. '갑지 다쇼ᄂᆞᆫ 불계ᄒᆞ고'는 '價之多少는 不計하고', 곧 '값이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고'라는 뜻이다. 초벌의 '그만 다 드시고'는 '다쇼(多少)'를 음식 먹는 것으로 오해한 오역이다.

790. '갑슬 ᄎᆞ려두라'는 '값을 차려 두어라'로, 돈(대금)을 준비해 두라는 뜻이다. 초벌의 '준비해 두어라'는 무엇을 준비하는지 모호하여 '값(대금)'을 명확히 했다.

791. '대취(大醉)'를 '대책'으로 본 초벌은 오역. 술에 크게 취한 상태를 뜻한다.

792. '족자(簇子)'는 벽에 거는 그림 두루마리로, '쪽지'가 아니다. 뒤에 선낭이 '그림 화상'이 되는 전개와 맞물린다.

793. '쥬션낭'은 술병을 든 선녀를 가리키는 주선낭(酒仙娘)으로 보이며, '병을 들고'의 병은 질병이 아니라 (술)병(甁)이다.

794. '쳐'는 처(妻), 곧 아내다. 오생을 핍박한 인물이 아니라 오생의 부인 민씨다.

795. '새음(시샘)의 대장'은 질투의 대장이라는 뜻으로, '새엄마'가 아니다.

796. '옥수(玉手)'는 고운 손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797. '죡ᄌᆞ'는 簇子(족자), 곧 글씨나 그림을 표구해 걸어 두는 두루마리를 뜻함. 초벌의 '재물'은 오역.

798. '은ᄌᆞ 쳔낭'은 銀子 千兩(은 천 냥)으로, 거래 금액임. '은밀히 훔치려'는 표음만 보고 잘못 풀이한 것.

799. '임ᄌᆡ'는 '임자', 곧 물건의 주인(소유자)이며 임금(君主)이 아님.

800. '즐욕'은 叱辱(질욕)으로 '꾸짖고 욕함'을 뜻한다. 초벌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즐겁게'는 오역.

801. '임ᄌᆞ(임자)'는 '주인·당사자, 곧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임금이 아니다.

802. '금사망'은 金絲網, 곧 금실로 짠 그물로, 여기서는 전우치가 부린 도술의 도구이다.

803. '대망(大蟒)'은 큰 구렁이·이무기를 뜻한다. '속은 사람이나 몸은 대망'은 속마음(정신)은 사람 그대로인데 몸만 큰 구렁이로 변했다는 뜻이다.

804. '죡ᄌᆞ'는 족자(簇子), 즉 그림이나 글씨를 표구해 걸거나 말아 두는 두루마리다. 초벌의 '쪽지'는 오역이며, 여기서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보배(보ᄇᆡ)'와 같은 물건을 가리킨다.

805. '그대를 만남이 불행하거니와'는 '그대를 만난 것이 불행한 일이 되었으나'라는 뜻으로, 초벌의 '만나지 못하게 되었구나'는 오역이다.

806. '작변(作變)'은 '변괴를 일으킨다, 난리를 부린다'는 뜻으로, 천 년 묵은 짐승이 부인으로 둔갑해 해를 끼친다는 의미다.

807. '요얼(妖孼)'은 요사스러운 재앙이나 변괴를 뜻함. '작변(作變)'은 변고·난리를 일으킴.

808. '죡ᄌᆞ'는 簇子(족자), 곧 그림이나 글씨를 걸어 두는 두루마리이다. 초벌의 '작은 자식'은 오역이다.

809. '씨져스ᄆᆡ'는 '찢었으매(찢었으므로)'로, '낳다'가 아니다.

810. '요얼'은 妖孼(요사스러운 재앙·괴물), '작난'은 作亂(난동을 부림)이다.

811. '셰 발'은 '석 자'로, 길이를 재는 단위다.

812. '대경실색(大驚失色)'은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한다는 뜻이다.

813. 'ᄃᆡ망'은 對望/敵望으로, 맞설 만한 상대·견줄 만한 자를 뜻함. 초벌의 '명망(名望)'은 오역임.

814. '뫼/모'에 해당하는 '아무개(某)'의 어감을 살려 옮김.

815. '졍녕'은 精靈(정령)으로, 오래 묵어 신통력을 지닌 영물을 가리킴.

816. 'ᄃᆡ망'은 大蟒(대망), 곧 큰 구렁이를 뜻함.

817. '금야'는 今夜(오늘 밤)임.

818. '부작'은 符籍(부적)으로, 초벌의 '부채'는 오역임.

819. '대망(大蟒)'은 큰 구렁이·이무기를 뜻함.

820. 'ᄭᅮ지져'는 '꾸짖어'로, 초벌의 '깜짝 놀라며'는 오역임.

821. '오싱'은 오생(吳生)으로 보임. 초벌의 오성(吳成)과 다름.

822. '가군'은 家君으로 여기서는 '남편'을 가리킨다. 초벌의 '백성'은 오역이며, 뒤에 나오는 '투기(妬忌)를 숭상한다'는 맥락과 함께 질투 많은 아내를 꾸짖는 말이다.

823. '금사망'은 金絲網(금실로 짠 그물)으로, 전우치가 사람을 가두어 벌하는 데 쓰는 도술 도구다. 초벌의 '금빛 망건'은 오역이다.

824. '족자(簇子)'는 그림·글씨를 표구해 걸어 두는 서화이며, '찟고'는 '찢고'다. 초벌의 '재물을 빼앗고'는 오역이다.

825. '운치'는 주인공 전우치(田禹治)를 가리키는 이름이며, 초벌의 '운치 있는'은 오역이다.

826. '금사망'은 金絲網으로, 도술로 사람을 옭아매는 금실 그물을 뜻한다.

827. '백배사례'는 百拜謝禮로, 거듭 절을 올리며 깊이 감사를 표하는 것을 말한다.

828. '동학'은 同學으로, 한 스승 밑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문(同門)을 뜻함.

829. '심복'은 心腹으로 가슴과 배(속)를 뜻하며, '심복이 알푸고'는 '속이 아프고'라는 병증의 표현이다. 측근·심복(부하)이 아니다.

830. '회생(回生)치 못할까'는 병에서 회복해 다시 살아나지 못할까 하는 뜻이다.

831. '진믹'은 進脈이 아니라 診脈(진맥), 곧 손목의 맥을 짚어 병세를 살피는 일이다.

832. '과거(寡居)한지라'는 과부로 지낸다는 뜻이다. 여인을 가리키는 대목이므로 과거 시험에 급제했다는 科擧가 아니라,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사는 寡居로 보아야 한다.

833. '경국지색(傾國之色)'은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빼어난 미인을 뜻한다.

834. '필경 세상이 불구(不久)할까'는 곧(오래지 않아) 죽을까 두렵다는 뜻으로,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이 아니다. 불구(不久)는 오래지 않음을 뜻한다.

835. '격린(隔隣)'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해 있음을 뜻한다.

836. '셩ᄉᆞ(성사)'는 成事로 '일을 이룸'이라는 뜻이며, 초벌의 '성실하게 대하다'는 오역임.

837. '욕을 취헐가(취할까)'는 取辱, 즉 '욕을 당하다·자초하다'의 뜻임.

838. '졀힝(절행)'은 節行으로 절개와 품행을 뜻함.

839. '생의(生意)치 말라'는 '마음에 두지/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초벌의 '애태우며 걱정하다'는 과한 의역임.

840. '과거'는 寡居(과거, 일찍 홀로 됨)로, 정씨가 일찍 과부가 되었다는 뜻이다. 과거시험 낙방이 아니다.

841. '노뫼'는 老母(노모, 늙은 어머니), '모녜'는 母女(모녀)이다. 따라서 의지하는 상대는 부모가 아니라 노모이며 모녀 관계다.

842. '홍포옥대(紅袍玉帶)'는 붉은 도포에 옥으로 장식한 띠, '옥홀(玉笏)'은 벼슬아치가 손에 드는 옥으로 만든 홀, '선관(仙官)'은 하늘의 벼슬을 맡은 신선을 가리킨다.

843. '불너 왈'은 '불러 말하기를'이라는 뜻으로, 노래한 것이 아니다.

844. '옥졔'는 玉帝, 곧 옥황상제(玉皇上帝)를 가리킨다.

845. '교명'은 敎命으로, 윗사람(여기서는 옥황상제)이 내리는 명령·분부를 뜻한다.

846. '향안(香案)'은 향로와 향합을 올려놓는 상으로, 신령이나 귀한 존재를 맞이할 때 차린다.

847. '요지반도연'은 瑤池蟠桃宴으로, 서왕모(西王母)가 곤륜산 요지에서 삼천 년에 한 번 익는 반도(蟠桃)를 차려 여는 신선들의 잔치

848. '춤예'는 參預(참예), 즉 자리에 참여·참석하는 것이며 초벌의 '참모'는 오역임

849. 'ᄌᆞ미'는 滋味(자미)로 재미·흥취를 뜻함

850. 'ᄃᆡ경'은 大驚(크게 놀람)으로, 초벌의 '크게 외치다'는 오역이다.

851. '뎡시'는 정씨(鄭氏)라는 인물을 가리킨다.

852. '옥칙'은 옥책(玉冊)으로 읽었으나, 이 문장만으로는 정확한 한자어를 단정하기 어렵다(앞뒤 문맥에 따라 다른 한자어일 가능성 있음).

853. '먹어'는 주어가 직접 '마셔'의 뜻이며, 초벌의 '마시게 하여'(사동)는 오역임. '이졋도다'는 '잊었구나'(忘)의 뜻.

854. '문선낭'은 文仙娘으로, '낭(娘)'은 선녀·여인을 가리키는 호칭.

855. '동ᄌᆞ'는 童子(동자, 심부름하는 사내아이)로, 초벌의 '잔'은 오역. 우치가 동자를 시켜 술을 권한 것이다.

856. '인ᄉᆞ를 모로다'의 '인ᄉᆞ'는 人事로, 정신을 잃어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뜻.

857. '그 모시'의 '모시'는 母氏(어머니)로, 정씨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초벌의 '모습'은 오역이며, 어머니가 신령스러운 일로 여겨 공중에 대고 절하며 감사한 것이다.

858. '향온'은 香醞으로 잘 빚은 향기로운 술, '무슈 하례'는 無數 賀禮로 수없이 절하며 축하·치하함을 뜻한다.

859. '강님도령'은 강림도령으로, 전우치전에서 거지 무리를 이끄는 두목이다.

860. '향취 옹비'는 향내가 코를 찌른다는 뜻이다(옹비擁鼻).

861. '채운(彩雲)'은 오색구름이다.

862. '가르치니'는 옛말로 '가리키니'의 뜻이다.

863. '뎡시'는 정씨(鄭氏) 여인으로, 앞에서 함께 떨어진 '고운 계집'을 가리킨다.

864. '대매(對罵)'는 마주 대고 꾸짖는다는 뜻이며, 초벌의 '대마주'는 오역이다.

865. '필부'는 匹夫로, 보잘것없는 한 사내를 낮잡아 이르는 말.

866. '렬부를 훼졀'은 烈婦毁節로, '백성을 괴롭히고 법도를 어지럽힌다'가 아니라 정절을 지키는 부인(烈婦)의 절개를 꺾으려 한다는 뜻.

867. '명텬'은 明天으로, 모든 것을 밝게 굽어보는 하늘을 가리킴.

868. '대로'는 大怒(크게 노함)이다.

869. '저히고져'는 '위협하고자'의 뜻이다.

870. '빅회'는 칼이 변신해 도리어 그를 공격한다는 문맥상 白廻(흰 독사)로 보았다. 초벌의 '백회(머리 꼭대기)'는 문맥과 맞지 않는 오역이다.

871. '변심'은 도술·법술을 부리는 문맥상 變身(몸을 바꾸는 변신술)으로 보았다. 마음을 바꾼다는 變心이 아니다.

872. '만사무석'은 萬死無惜으로,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죄가 크다는 뜻.

873. '고당'은 高堂으로 노부모(노모)가 계신 집을 높여 이르는 말.

874. '졀힝을 히ᄒᆞ려'는 節行을 害하려, 곧 정씨의 절개와 행실을 해치려 했다는 고백. 초벌의 '절개를 지키려 한다'는 정반대 오역.

875. '두 번째는 목숨을 도모함'이 원문이며, 초벌의 '관직을 도모'는 오역.

876. '선도'는 仙道로 신선이 되는 도술을 뜻함.

877. '듸홰'는 大禍(큰 재앙)이며 對話(대화)가 아님. 초벌의 '대화를 믿을 수 있다'는 오역.

878. '삼팔'은 三八, 곧 3×8=24세를 가리키는 곱셈식 나이 표현이며 38세가 아님(二八=16과 같은 어법).

879. '셩이 뎡시오'는 그 사람의 성(姓)이 정씨(鄭氏)라는 뜻으로, 대신할 여인도 정씨여서 적임이라는 맥락. 초벌의 '성품이 정직'은 오역.

880. '양가'는 兩家(두 집안)를 뜻함.

881. '고셩듸명'은 高姓大名(고성대명)으로, 상대의 성과 이름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높은 명성'이 아니라 '존함'을 묻는 표현이다.

882. '강님도령'은 강림도령(姜林道令)으로, 저승사자의 우두머리로 알려진 설화 속 인물명. '강 도령'이라는 성씨가 아니다.

883. '쥬려노흐니'는 '주리어 놓으니'로, 앞서 풀어 주었던(가르쳐 주었던) 요술 부리는 법을 도로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

884. '뎡시'는 정씨(鄭氏) 성을 가진 여인을 가리킨다.

885. '옥경(玉京)'은 옥황상제가 머무는 천상의 궁궐을 뜻한다.

886. '죄 진치 못ᄒᆞ엿스미'는 罪(죄)를 다 치르지(盡) 못하였으므로의 뜻이다. 초벌의 '자리를 잡지 못하였으니'는 오역.

887. '고힝'은 苦行(고행)으로, 초벌의 '공을 세운다'는 오역이다.

888. '향약(香藥)'은 향이 나는 약재로 만든 약으로, 정신을 잃은 사람을 깨우는 데 쓰였다.

889. '재설(再說)'은 옛 고전소설에서 장면을 바꿔 다른 이야기를 다시 이어 갈 때 쓰는 상투어로, '한편' 정도의 뜻이다.

890. '강님도령'은 강림도령(姜林道令)으로, 저승사자의 우두머리로 알려진 설화 속 인물이다. 단순한 성씨 '강 도령'이 아니다.

891. '일간모옥(一間茅屋)'은 한 칸짜리 띠풀로 엮은 초가집을 뜻한다.

892. '츈광이 삼칠이 지나도록'에서 춘광(春光)은 젊은 나이, 삼칠(三七)은 21을 뜻하므로 '스물한 살이 지나도록'으로 옮김.

893. '즁미 되고져'의 '즁미'는 中媒(중매)로, '중이 되고자'가 아니라 '중매를 서고자'라는 뜻임.

894. '환영단(換影丹)'은 모습을 바꾸는 단약으로, 먹고 진언을 외면 다른 사람의 얼굴로 변하는 도술 약이다.

895. '정가녀(鄭家女)·정녀'는 정씨 집안의 딸을 가리킨다. 운치는 낭자(정씨)를 진짜 정녀의 얼굴로 변신시켜 양생에게 데려간 것이다.

896. '붓그려'는 '부끄러워'이며, 초벌의 '붓으로 그림을 그려'는 오역이다. '인하여(因—)'도 '감탄하여'가 아니라 '곧이어, 그래서'의 뜻이다.

897. '말를 발뵈지 못ᄒᆞ고'에서 '발뵈다'는 솜씨·생각 따위를 드러내 보인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말을 꺼내 보지도 못했다는 의미.

898. '싱의'는 生意(생의), 곧 '살아날 마음·다시 해 볼 엄두'를 뜻한다.

899. '만단개유(萬端開諭)'는 여러 가지 말로 타이르고 달래는 것을 뜻한다.

900. '운치'는 주인공 전우치를 가리킨다.

901. '병인'은 病人(병든 사람)으로, 초벌의 '병을 핑계 삼다'는 오역임.

902. '경성지색(傾城之色)'은 한 성(城)을 기울게 할 만큼 빼어난 미인을 뜻하는 말.

903. '강잉(强仍)'은 억지로 참고 무리해서 한다는 뜻으로, 양생이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킨 것이다. 지명 강릉이 아니다.

904. '여취여광'은 如醉如狂으로, 취한 듯 미친 듯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가리킨다.

905. '나하가더라'는 병세가 점점 '나아갔다'는 뜻으로, 호전된 것이다. 나빠진 것이 아니다.

906. '셔화담'은 조선 학자 서경덕(徐敬德)의 호 花潭으로, 『전우치전』에서 도사로 등장한다.

907. '례담'은 禮緞(예물로 보내는 비단)·禮單(예단)에 해당하는 말로, 여기서는 찾아갈 때 갖추는 예물을 뜻한다.

908. '시동'은 侍童, 곁에서 시중드는 아이를 가리킨다.

909. '뎐싱'은 田生, 즉 전우치를 가리키는 '전생(전씨 서생)'의 표음 표기다.

910. '쇄쇼'는 灑掃(쇄소), 물을 뿌리고 비로 쓸어 깨끗이 청소함을 뜻한다.

911. '운치'는 주인공 전우치(田禹治)를 가리키며, 초벌의 '운치(雅趣) 있는 경치'는 오역이다.

912. '미록'은 麋鹿(사슴)으로, 초벌의 '녹색 풀'은 오역이다. '벗을 찾아다니며'는 사슴이 짝을 찾아 거니는 모습이고, '백학이 춤을 희롱한다'의 '츔'은 춤(舞)이지 구름이 아니다.

913.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은 이백의 「산중문답(山中問答)」 구절로, 인간 세상과 동떨어진 별천지를 뜻한다.

914. '시비'는 柴扉(사립문), '두다리니'는 '두드리니'의 옛 표기다. 초벌의 '두 다리를 내놓으니'·'동재와 문이 나와서'는 모두 오역이며, '동자(童子)가 나와 물었다(問曰)'가 맞다.

915. '뎐공'은 田公으로, 전(田)씨 성을 높여 부르는 말이며 곧 전우치를 가리킨다. 초벌의 '도력'은 오역이다.

916. '동ᄌᆡ'는 童子(동자)로, 도사를 시중드는 어린아이를 뜻한다. 초벌의 '동쪽 하늘'은 오역이다.

917. '션싱'은 先生(선생)으로, 윗사람·스승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918. '쵸담'은 草堂(초당)으로, 짚이나 풀로 지붕을 인 작은 별채를 뜻함.

919. '빈쥬지녜'는 賓主之禮(빈주지례)로, 손님과 주인이 서로 갖추는 예의를 말함.

920. 'ᄆᆡᆨ바드라'는 '맥(脈)을 보다', 곧 상대의 속내나 실력을 떠보려 한다는 뜻으로, 초벌의 '칭찬하며 찾아오다'는 오역임.

921. '모믈 일이 업다'는 '몸 둘 곳/따를 자가 없다', 즉 그만큼 법술이 뛰어나다는 뜻임.

922. '만힝(萬幸)'은 더없는 행운·큰 다행을 뜻하며, 초벌의 '즐거움'보다 '큰 행운'이 정확함.

923. '화담'은 서경덕(徐敬德)의 호 花潭으로, 전우치전에서 도사로 등장한다.

924. '죡ᄌᆞ'는 족자(簇子, 벽에 거는 두루마리 그림), '사창(紗窓)'은 비단을 바른 창이다.

925. '칭사'는 稱謝(고마움을 표함)이며, 여기서는 운치가 화담의 도술에 감탄해 인사하는 장면이다.

926. '치의 입은 선녜'는 彩衣(고운 색옷)를 입은 선녀로 옮겼다. 초벌의 '선비'는 오역이며, '압히 노코'도 '압도'가 아니라 '앞에 놓고'이다.

927. '신션의 열츌쥐'는 표음만 남은 한자어로, 신선이 빚은 술(仙酒)의 일종으로 보아 '신선의 술'로 옮겼다.

928. '경장옥액(瓊漿玉液)'은 신선이 마신다는 옥같이 귀한 술과 음료를 뜻한다.

929. '진수미찬(珍羞美饌)'은 진귀하고 맛 좋은 음식을 뜻한다.

930. '박쥬'는 薄酒(박주), 곧 변변치 못한 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931. '일캇ᄂᆞ뇨'는 '일컫느냐(말하느냐, 칭하느냐)'의 옛 표기이다.

932. 원문 가운데 ○○○ 부분은 판본이 훼손·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는 글자로, 그대로 비워 두었다.

933. '갈건야복(葛巾野服)'은 갈포로 만든 두건과 베로 지은 옷으로, 벼슬하지 않은 은자나 처사의 소박한 차림을 뜻한다.

934. '일위 션싱'의 '션싱'은 先生(선생)으로, 학식 높은 인물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935. '아오'는 아우(동생)이며, 초벌의 '아버지'는 오역이다.

936. '일면지분(一面之分)'은 한 번 만나 본 정도의 친분을 뜻하며, 여기서는 그런 안면조차 없었다는 의미다.

937. '대객지도(待客之道)'는 손님을 대접하는 도리를 가리키며, '일허스니'는 '잃었으니(그르쳤으니)'의 뜻이다.

938. '헌앙(軒昂)'은 풍채가 의젓하고 높이 빼어남을 뜻한다.

939. '용렬(庸劣)'은 사람이 변변치 못하고 졸렬함을 뜻하며, '용기 없음'과는 무관하다.

940. '쑬이 셰 발' = 뿔이 세 발(發/길이 단위로, 매우 긴 모양). 초벌의 '여섯 개'는 오역.

941. '돗희 머리' = 돼지(돝)의 머리. 초벌의 '도깨비'는 오역.

942. '셕상' = 席上(자리 위), '암상' = 巖上(바위 위)으로 풀었다.

943. '헤오ᄃᆡ' = 헤아리되, 곧 '속으로 생각하기를'의 뜻.

944. 'ᄎᆞ인'은 此人(저 사람·그 사람)으로, 앞서 언급된 상대를 가리킴.

945. '운치'는 사람 이름 전우치(田禹治)다. '운치 있는'이라는 뜻이 아니다.

946. '제두(猪頭)'는 돼지머리, '우두(牛頭)'는 소머리. 도술로 부린 형상이다.

947. '선추(扇墜)'는 부채 자루 끝에 매다는 장식 고리.

948. '불분승부(不分勝負)'는 승부가 가려지지 않음, '시진(澌盡)'은 기운이 다 빠짐을 뜻한다.

949. '화담'은 서경덕(徐敬德)의 호 花潭으로, 『전우치전』에서 도사로 등장한다.

950. 'ᄌᆡ죠(재조)'는 才操(재주·재능)로, 초벌의 '재물(財物)'은 오역임.

951. '결우다'는 '겨루다(競)', '조치 아니리라'는 '좋지 아니하리라(좋지 못할 것이다)'의 옛 표기임.

952. '연적'은 硯滴으로 벼루에 물을 따르는 문방구이며, '치치니'는 위로 치뜨려 던지는 동작이다.

953. '선추'는 扇錘(扇墜)로 부채 고리에 다는 장식이고, '션ᄌᆞ'는 扇子(부채), '관'은 冠(쓰개)이다.

954. '화히'는 和히, 즉 부드럽고 온화하게 말한다는 뜻이다.

955. '하직'은 下直으로 작별 인사를 뜻한다.

956. 원문의 '놉○○○○○○○○○○' 부분은 글자가 훼손되어 판독 불가능하며, '선생의 높은 (명성/이름을 더럽혔다)'는 취지로 추정되나 본문에는 보충하지 않고 '……'로 비워 둠.

957. '결워'는 '겨루어'(競)로, '재주를 겨루다'의 뜻임.

958. 'ᄉᆞ죄(사죄)'는 謝罪로,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한다는 뜻임.

959. '운치'는 전우치(田禹治)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초벌의 '경치'는 오역임.

960. '용담'은 인물(도사)의 호로 보이며, 초벌의 '경치를 가리키다'는 오역임.

961. 청·적·백·흑은 오행의 색으로, 각각 목(木)·화(火)·금(金)·수(水)에 대응한다. '금극목(金克木)·수극화(水克火)'는 금이 목을, 물이 불을 이긴다는 오행 상극의 원리로, 백룡(금)이 청룡(목)을, 흑룡(수)이 적룡(화)을 제압한다는 도술 풀이다.

962. '젹뇽'은 赤龍(붉은 용)으로, 초벌의 '작은 용'은 오역이다.

963. '손(숀)'은 客(손님)으로, 화담의 집에 찾아온 손님인 전우치를 가리킨다. 초벌의 '식솔'은 오역이다.

964. '사죄(ᄉᆞ죄)'는 謝罪로, 자기 잘못을 빈다는 뜻이다.

965. '마음의 가장 운치를 노하여'를 초벌은 雅趣(운치·멋)로 옮겼으나, 뒤의 '해할 뜻이 있더라'와 이어지는 문맥상 겉으로는 사죄하면서도 속으로는 심히 노여워하며 원한을 품었다는 의미다.

966. '화담'은 서경덕(徐敬德)의 호 花潭으로, 전우치전에서 도사로 등장한다.

967. '그대의게'는 상대('그대', 즉 너)를 가리키며, 초벌의 '그에게'는 오역임.

968. '즐겨 좇을쇼냐'는 '기꺼이 따르겠느냐(내 청을 들어주겠느냐)'의 뜻으로, '함께 가겠느냐'가 아님.

969. '즁의'는 中(가운데)이며, 초벌의 '중의(中義)'라는 산 이름이 아니다. '남해 가운데에'의 뜻.

970. '회ᄉᆞ'는 回謝(회사), 곧 답장하여 사례함·회답함을 뜻한다.

971. '글월을 부리다'는 글(편지)을 보낸다는 뜻이다.

972. 원문의 '닉 ○로 슈학ᄒᆞ더니'에서 한 글자가 판독되지 않으나, '내가 그에게서 수학(修學)하였다'는 문맥으로 옮겼다.

973. '운치'는 주인공 전우치(田禹治)를 가리킴.

974. '화담'은 서경덕(徐敬德)의 호 花潭으로, 전우치전에서 도사로 등장.

975. 'ᄒᆡ즁'은 海中(바다 가운데)으로, 초벌의 '세상 가운데(世中)'가 아니라 화산이 바다 가운데 있다는 뜻이다.

976. '무지'는 無才(재주가 없음)로, 초벌의 '무례'(無禮)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낮추는 겸사임.

977. '화담'은 서경덕(徐敬德)의 호 花潭으로, 전우치전에서 도사로 등장함.

978. '운치'는 사람 이름 전우치(田禹治)를 가리키며, 초벌의 '운치 있는 선비들'은 오역임.

979. '내렴(ᄂᆡ렴)'은 內念으로 '속마음·마음속으로'의 뜻이며, '업슈이 녀기다'는 '업신여기다'임.

980. '산문(山門)'은 절의 바깥문, 곧 절 입구를 가리킨다. 초벌의 '이 문'보다 사찰의 문임을 분명히 했다.

981. 'ᄒᆡ즁을 향ᄒᆞ여'의 '해중'은 海中(바다 가운데)으로, 운치가 화산(華山)으로 가려 바다 위를 날아가는 대목이다. 초벌의 '하늘'은 오역.

982. '벼리'는 그물의 위쪽 코를 꿴 굵은 줄로, 그물 전체를 오르내리게 하는 벼릿줄을 가리킨다.

983. '텬변'은 天邊(하늘 끝), '신고'는 辛苦(고생)이며, '죽기로 그음ᄒᆞ여'는 죽기를 한정(限定)하여, 곧 죽기를 각오하고라는 뜻이다.

984. 원문의 '○○○'은 결락 부분으로, 문맥상 '말하니(告하니)'에 해당하는 서술로 옮겼다.

985. 원문에 ○로 표시된 부분은 판독 불가능한 결락이라 옮기지 못했다. 따라서 문장 전체 의미는 확정할 수 없다.

986. '출산문'은 원문 표음 그대로다. 결락된 앞부분이 없어 한자어를 확정할 수 없으며, 초벌의 '출사문(出仕文)'은 표음(출'산'문≠출'사'문)과도 맞지 않아 근거가 약하다.

987. 'ᄉᆞᆱ'은 'ᄉᆞᆱ'(들고양이 모양의 산짐승)으로, 초벌의 '스님'은 오역임. 'ᄉᆞᆱ → 보라매 → 청사자'로 이어지는 둔갑술 대결 장면.

988. '보라ᄆᆡ'는 '보라매'(어린 매)로, 색깔 '보라'가 아니라 새(매)임. 날아 달아나려고 매로 변한 것.

989. '무안(無顔)'은 부끄럽고 면목 없음을 뜻하며, 초벌의 '멋을 부려'는 오역임.

990. '화담'은 서경덕(徐敬德)의 호 花潭으로, 전우치전에서 우치와 도술을 겨루는 도사로 등장.

991. 'ᄃᆡᄆᆡ'는 大罵(대매), 곧 크게 꾸짖음. '○○'는 원문이 마멸되어 판독 불가하나 문맥상 우치가 변신한 '보라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992. '긔군망상'은 欺君罔上(기군망상)으로, 임금을 속이고 윗사람을 기만한다는 뜻이다.

993. '작난이 무샹'은 作亂(작란)이 無常(무상)함, 즉 난동·못된 장난이 일정함이 없이 변화무쌍하다는 뜻이다.

994. '죄당만사'는 罪當萬死로 '죄가 만 번 죽어 마땅하다'는 뜻의 상투적 사죄 표현이다. 초벌의 '마땅한 일이나'는 오역.

995. '잔명'은 殘命(남은 목숨)이며, '빌니쇼셔'는 '살려 주십시오'의 뜻으로 목숨을 보전해 달라는 간청이다.

996. '존위'는 尊位(존엄한 지위·자리)로, 상대의 높은 신분을 가리킨다.

997. 원문의 '○고하시믈' 첫 글자는 판독이 어려우나 문맥상 선생의 높고 고매한 신분·도술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으로 옮겼다.

998. '무상흔 일'은 無狀(무상)으로 '도리에 어긋나고 형편없는 행실'을 뜻하며, '무모한 짓'과는 뉘앙스가 다름.

999. '기셰 후'는 棄世(기세) 후, 곧 '세상을 버린 뒤=별세하신 뒤'를 뜻함. 초벌의 '기세가 좋은 날'은 오역.

1000. '영쥬산'은 瀛洲山으로, 봉래·방장과 함께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

1001. '화담'은 서경덕(徐敬德)의 호 花潭으로, 전우치전에서 도사로 등장한다.

1002. '졸(卒)하니'는 '돌아가시니'의 뜻으로, 어머니가 별세한 것이다. 초벌의 '연로하여 기력이 쇠함'은 오역이다.

1003. '션산'은 先山(조상의 묘가 있는 산)으로, 은거처가 아니다. '삼년을 받들다'는 삼년상을 치른다는 뜻이다.

1004. '녜필 좌졍'은 禮畢坐定, 곧 인사하는 예를 마치고 자리에 앉음을 뜻한다.

1005. '셕갑'은 石匣(돌로 만든 함)으로, 짐승을 가두는 돌상자를 가리킨다.

1006. '샹약'은 相約(서로 약속함)이다.

1007. '여호'는 여우(狐)를 가리킨다. 초벌의 '일'은 오역이다.

1008. '만행(萬幸)'은 '매우 다행함, 큰 다행'이라는 뜻의 한자어다.

1009. 원문에 훼손된 글자(◯)가 있어 데려갈 대상을 정확히 판독할 수 없음. '다려가려'는 '데려가려'(사람을 데리고 가다)이므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데려간다는 뜻이며, 초벌의 '이 곳을 떠나 가려'는 오역임.

1010. '행장(行裝)'은 길 떠날 때 챙기는 짐과 채비를 뜻함.

1011. 원문의 '듸◯ᄒᆞ여'는 가운데 한 글자가 훼손·판독 불가하나, 문맥상 '대답(對答)하여'로 복원했다.

1012. '노복'은 奴僕으로, 집안의 사내종을 가리킨다.

1013. '죠션'은 朝鮮(조선)이 아니라 祖先(조상·선조)이며, '향화(香火)'는 제사를 뜻한다. 따라서 '죠션 향화'는 '조상의 제사'다.

1014. '영결(永訣)'은 다시 못 볼 영원한 이별, 곧 죽음을 앞둔 작별을 뜻한다.

1015. '무양(無恙)'은 탈 없이 평안함을 뜻하므로 '무탈하게 지내며'로 옮겼다.

1016. '화담'은 서경덕(徐敬德)의 호 花潭으로, 『전우치전』에 도사로 등장한다.

1017. '기후ᄉᆞ'는 '其後事(그 뒤의 일)'로, 날씨(氣候)가 아니다. 초벌의 '날씨'는 오역이다.

1018. '영주산(瀛洲山)'은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다.